
학생생활연구

제 24권 <비매품>

발행인	정문경
편집인	엄기영
발행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행일	2021년 12월 27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ISSN : 2635 - 5604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상담분야의 연구논문과 신입생 실태자료를 게재합니다. 학생생활연구는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관계는 상담센터 T(031-450-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지는 21권부터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학생생활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학생생활연구

제 24 권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인 사 말

우리 한세대학교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의·진리·사랑의 대학’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한국 속의 세계대학’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세인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도 한세인의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적인 자기 계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온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COVID-19에 따라 전 세계의 활동이 마비되고, 사람들과의 대면이 통제되는 사상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어 우리 대학도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한세인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여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생생활연구지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술 논문과 한세인의 신입생 실태조사와 상담소의 이용실태를 정리하여 엮었습니다. 본 학술 연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과 조사 연구들을 수록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세인들의 학생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 12.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장 정 문 경

목 차

인 사 말	상담센터장
-------------	-------

I. 연구논문

죽음에 관한 연구 동향분석	허 설 향· 정 문 경
----------------------	-----------------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오 영 금· 정 문 경
--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 의 매개효과	차 복 자· 정 문 경
--	-----------------

성인의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 : 자기 침묵 매개효과	최 한 나· 유 금 란
--	-----------------

II.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21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	엄 기 영
--------------------------	-------

<부 록>

- 2021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 2020년도 상담센터 활동 보고
- 2021년도 상담센터 운영 계획

죽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허 설 향

정 문 경*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죽음의 연구 동향을 죽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죽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성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은 최근 10년 동안의 등재 후보 및 등재 학술지 국내 논문 100편이었고, 연도별, 전공별, 연구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주제어별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죽음에 대한 변화된 패턴으로 죽음 교육에 대한 연구가 2014년-2017년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공별 분석에서는 체계적이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한 효과성 검증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교육학(29%), 사회복지학(19%), 간호학(16%), 신학(18%), 순이다. 연구 대상별로 고령화라는 인구 사회적 변화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노인(23%), 청소년(18%), 대학생(16%) 순으로 성인(3%), 유아(2%) 대상이 가장 적었다. 연구 방법별 분석을 보면 양적 연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헌 연구 (32%), 사례 및 개발 연구(2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어 동향은 죽음에 대한 정서적 불안 즉, 죽음 불안(25%)을 가장 많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죽음준비 교육(22%), 노인(21%), 죽음에 대한 태도(10%), 자아 통합감(6), 생활 만족도(5%), 심리적 안녕감(4), 노년기의 죽음(4%)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죽음이 죽음으로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죽음, 죽음교육, 죽음학, 죽음 연구동향

* 교신 저자 : 정문경, 한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jmoonk509@hansei.ac.kr

I. 서 론

죽음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근원적인 성찰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현실 삶의 방향성을 인식하기 위한 토대이다(박지은, 2009). 죽음은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음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삶의 목표이다(Wong, 2000).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안정성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상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자신 삶의 완성, 자기실현을 달성해야 한다(Goodman, 1981; Wong, 2000).

최근 각종 사건 사고, 자살과 같은 죽음의 증가로 인해 죽음의 문제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며 ‘품위 있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심리·사회적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김신향, 2015).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중위생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 영양 증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의정 2016).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에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3,820명)의 14%를 넘어섰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김미정 2019).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해지고 있는 고령화 현상,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임효남, 김광한, 2019). 우리 사회에는 노년기에 겪게 되는 문제들(예: 질병, 고독, 가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치매를 비롯한 만성 질환을 지닌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삶의 질 유지와 부양 및 간병의 문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류은희, 2017). Becker & Russell (1994)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이라는 이중적 과업을 수행하는 중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을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부담감, 두려움, 또는 불안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죽음이 가족과 친족에게서 전문가로 위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관심 및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이 대두되고 있다(김미정 2019). 이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 죽음을 금기시 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연장선에서 보게 된 변화이다. 웰다잉은 웰빙의 이면으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며 잘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언제든지 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윤영호, 2014).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최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신교남, 2020.)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더불어 ‘죽을 권리’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상담, 사별 상담의 활성화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품위 있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이 사별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죽음 관련 연구는 40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길다(송양민·유경, 2011). 한국 죽음학은 죽음 관련 연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이슈를 간과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질적 재고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죽음의 가치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박진홍, 2007). 현재까지 연구 되어진 죽음 관련 연구 동향을 다루는 것은 기초적

인 분석을 넘어 죽음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죽음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도별, 전공별, 연구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주제어 별로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죽음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와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죽음의 전반적 연구 동향(연도별, 연구 전공별, 연구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 주제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죽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죽음과 죽음학(Thanatology)

죽음에 대한 정의는 종교적·철학적·문화적 관점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동의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최근에 생명 연장기술과 장기이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정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신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권석만, 2019). 죽음의 다양한 의미로 생물학적 정의로 육체적 죽음(심폐사, 뇌사, 세포사), 심리적 죽음, 사회적 죽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죽음의 정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세 가지 장기

(심장, 폐, 뇌)의 영구적 기능 정지 상태인 심폐사(cardiopulmonary death)를 의미한다. 현재 법 의학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심폐사를 개인의 사망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오진탁, 2004). 죽음의 다른 의학적 정의로 뇌 기능 전체의 불가역적인 영구적 정지를 의미하는 뇌사(brain death)로 현대사회에서 뇌사에 주목하는 것은 장기이식의 가능성 때문이다. 뇌가 죽어 회생 가능성은 없지만 심장과 폐를 비롯한 다른 장기는 살아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식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허대석, 2018). 생물학적 관점에서 세포사가 개인의 완전한 죽음이지만, 의료계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심폐사 또는 뇌사를 개인의 죽음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권석만, 2019).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인 심리적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인 심리적 죽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며 삶이 아닌 것 즉, 삶의 종말을 의미한다(윤영호, 2014). 의식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 자존감과 존엄성의 상실 또한 심리적 죽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가치한 존재 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권석만, 2019). 죽음은 <표 1>과 같이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표 1> 죽음의 다양한 정의

죽음의 분류	유형		정 의
육체적 죽음	임상적 죽음	세포사	모든 세포의 기능 정지
		심폐사	심장, 폐기능 불가역적 정지
	뇌 의 죽음	뇌 사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심리적 죽음	의식 상실		의식과 감각기능을 상실한 상태
	자기 정체성 소실		자기라는 개체의식의 상실
	자아존중감 상실		가치있는 삶의 의욕 상실
사회적 죽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 관계적 망각과 무관심
	사회적 무시		사회 관계적 무시
	사회적 단절		타인들로부터 역할의 상실
	법적 죽음		법적인 권리와 책임의 지위 상실

‘죽음’(death)은 육신 생명의 소멸을 가리키지만, ‘죽음에 다가서는 일’(dying)은 아직 생명 활동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죽음은 불가항력적이고 수동적인 사건이지만, ‘죽음에 잘 다가서는 일’(well-dying)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의 ‘의지’에 의한 능동적 사건이다. ‘죽음’(death)은 수동적·피동적이며, 죽음에 잘 다가서는 일’(well-dying)은 주체의 자율적 선택과 의지적 결정에 의해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가리킨다(임병식·신교원 2007). ‘임종’이라는 단어는 의지적 존재로서의 ‘준비된 죽음’을 표현한다(임순록, 2020). Kübler-Ross는 ‘사람의 죽음’을 ‘사물의 죽음’과 구별하여, 의지·의미적 존재로서의 ‘품위 있는 죽음’을 강조했다. 죽음은 비록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중국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지만, 의지·의미적 존재로서 사람의 죽음은 사물의 죽음과 달리, ‘의지 활동의 종결’ 또는 ‘의미 추구의 완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존재론적 위상과 결맞도록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싸나톨로지(Thanatology)의 사전적인 정의는 죽음학, 생사학이다.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학문으로 그 핵심이 전체 사람(전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싸나톨로지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 심리에 따른 죽음교육과 죽음의 준비·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돌봄·관계 정립·못다 해결한 인간관계 해결·평온한 가운데 품위 있는 죽음 연구·임종에서의 영성 발견 등을 인류학·종교학·사회학·의학·철학·심리학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통합 연구하는 학문이다. 싸나톨로지의 목표는 ‘삶의 질’을 위한

물음을 죽음에게 물어봄으로써 참다운 인간다운 삶에 도달하는데 있다(임병식·신교원 2007).

2. 품위 있는 죽음과 죽음 준비교육

근대 의료제도는 질병에 대한 치료(cure)에 전념하느라 환자에 대한 보살핌(care)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다. 또한 관료화된 병원 규칙과 의료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임병식, 신교원 2007). 사람은 사물과 달리 의식을 가진 존재다(임순록, 2020). 사람은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나마 아직 의식이 또렷하여 자기 통제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미리 앞서 죽음에 대비하는 능동적 자세야말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공포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임병식·신경원, 2007). 디고리와 로스먼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멸’ 즉 생물학적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서 금기로 여기지 말고, 죽음의 여러 국면에 관하여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잘 맞이할 수 있고, 죽음에 성숙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죽음학(Thanatology)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박

지은, 2009).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The 2015 quality of death index ranking palliative care across the worl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를 중심으로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세계 각국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었다. 조례의 내용에 인간답고 품위 있는 죽음과 전문가 조력의 역할, 웰다잉을 위해 유용한 도구, 웰다잉을 가능하게 해주는 죽음 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요소들로 포함되었다(길태영, 2016). 죽음 준비교육은 개인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에 공식적·제도적으로 구성된 개입프로그램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바람직한 가치를 갖게 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죽음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Warren, 1989). 인생의 마지막인 임종과 죽음, 또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죽음 준비교육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임종 환자에 대한 교육, 유가족을 위한 교육,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죽음 준비교육 전문가들이다. 그러므로 죽음 준비교육은 지식의 차원, 가치관의 차원, 기술의 차원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Deeken, 1992).

죽음 교육에 대한 기존의 동향 연구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 동향 분석이 있었다(김신향, 변성원, 2014). 고령화라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혁명이 가지고 올 사회, 경제, 노

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규 학교 교육과 연대한 통합적 접근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최운실, 2019).

3. 한국 죽음학의 발전과 현황

한국의 죽음학은 1990년대에 죽음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 4월 사회복지 법인인 각당복지재단이 김옥라 이사장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창립하였고 그해 10월에 일본에서 죽음 교육을 펼치고 있는 알폰스 디켄(Alfons Deeken)을 초청하여 죽음학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죽음학과 관련된 강좌가 최초로 개설된 것은 1997년에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오진탁이 ‘죽음 준비교육’ 과목을 개설하면서부터이다. 2012년에는 ‘한국적 생사학 정립과 자살 예방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계기로 생명 교육 융합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본격화 되었다. 한림대학교의 생사학 연구소는 『타나토스 총서』와 『생사학 총서』를 비롯하여 죽음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 도서와 출판물을 출간함으로써 한국의 죽음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2000년에 비로써 한국 죽음학회가 창립되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죽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죽음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철학과 종교학뿐만 아니라 노인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에서 발표되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20세기 들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 결과, 대부분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었다. 생명 연장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의 수명은 연장 되었지만 존엄한 죽음이라는 생명 윤리적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과거에는 너무 이른 때에 갑작스런 죽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반면, 21세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는 노년기의 연장된 죽음이 개인과 사회 모두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년기의 삶의 질과 더불어 길게 연장된 죽어감(dying)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죽어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들은 종교와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각적인 연구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죽음은 심리학을 비롯하여 의학, 간호학, 사회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죽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최근 10년 동안의 한국 죽음학의 연구 동향 주요 관심 영역으로 죽음 불안,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이며, 공통적으로 연구된 내용으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이 죽음 불안 및 죽음에 대한 수용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며 교육 효과성 연구, 자아 통합감, 삶의 의미, 삶의 질, 심리적 행복감 등과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연구, 웰다잉 및 죽음관의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되었다(신교남, 2020).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선정범위

본 연구는 2011년에서 2020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죽음 관련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논문,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등 총 100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논문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IS), 한국학술정보원(K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원(e-article), 학지사(New논문), Google scholar, 국회도서관에서 키워드 검색기법을 사용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검색어는 ‘죽음학’, ‘죽음 교육’, ‘웰다잉’, ‘죽음 준비교육’, ‘죽음 교육 프로그램’, ‘호스피스’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수집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수집된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한 후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게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주제어는 논문 초록의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빈도를 구하였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전체 대상 논문을 각 범주와 코드의 구조화된 내용과 분류의 예를 여러 차례 분석하고 코딩 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방법의 범주화에 있어 본 논문이 제시한 범주들이 구체화 되었으며 준거가 될 수 있었다.

2. 분석기준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기존의 동향 연구의 분석패턴을 참조하였다(길태영, 2017; 김신향, 변성원, 2014; 김영아, 권영숙, 2009). 2010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영선, 2020)의 분석 준거를 기초하였다. 연도별, 연구 전공별, 연구대상별, 연구 방법

별, 연구주제어별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죽음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신향·변성원(2014)은 199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죽음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95편 연구 연도별, 연구 전공별, 연구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 설계, 연구 내용 영역의 준거 틀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연구 동향을 위해서는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출처는 석사학위 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구 전공별 동향은 사회복지학이 가장 많이 연구 되었다. 연구 대상별 동향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구 물에 제시된 논문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분석하였다. 유아, 아동/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혼합(노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무(별도 언급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이영선, 2020).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사 연구, 실험 연구, 문헌 연구, 사례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홍현미라, 2011: 김신향·변성원, 2014: Brewer and Hunter, 1989: Gresweell and Plano 2011).

IV. 연구 결과

1. 연도별 연구 동향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2011-2013년 논문 29편 (29%), 2014-2016년 논문 38편(38%), 2017-2019년 논문(33%)이 게재 되었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최근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죽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죽음 교육에 대한 연구로 죽음에 대한 변화된 패턴으로 200년 중반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과 존엄사법의 입법에 관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의 증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죽음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박사 논문은 2012년 1편, 2014년 2편, 2015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3편이 발표되었으며, 석사 논문은 2011년 11편, 2012년 5편, 2013년 4편, 2014년 4편, 2015년 12편, 2016년 10편, 2017년 7편, 2018년 9편, 2019년 9편으로 꾸준히 매년 7편 이상씩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죽음 교육 및 죽음 중재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2 >

Year	N(%)
2011-2013	29(29)
2014-2016	38(38)
2017-2019	33(33)
N(%)	100(100)

2. 연구 전공별 연구동향

연구 전공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교육학 29편(29%), 사회복지 19편(19%), 신학 18편(18%), 간호학 16편(16%), 융합 전공 7편(7%), 사회학 4편(4%), 철학 3편(3%), 독문학 1편(1%), 생사학 1편(1%), 영화학 1편(1%), 의학 1편(1%)

이 게재 되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된 죽음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점차 교육학, 사회복지학, 신학, 간호학 및 의학, 철학에서 연구가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연구 동향에서 전체 100편의 분석 논문 중 69편이 죽음에 관한 석사 논문으로 학위 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웰빙(Well-being)에 대한 열풍에 이어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되기 시작하였다. 다학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바람직한 가치를 갖게 한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곧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기능의 향상, 개인적 역기능의 문제 해결과 관련성을 지닌다. 다학제간 죽음에 관한 연구는 죽음의 가치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박진홍, 2007).

< 표 3 >

	2011 2013	2014 2016	2017 2019	N(%)
간호학	3	7	6	16(16)
교육학	8	11	10	29(29)
독문학	1			1(1)
사회 복지학	7	6	6	19(19)
사회학	1	2	1	4(4)
생사학			1	(1)
신학	5	8	5	18(18)
영화학	1			1(1)
융합	2	2	3	7(7)
의학	1			1(1)
철학		2	1	3(3)

3.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혼합, 장애인, 무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을 언급하지 않은 논문 29편(29%)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노인 19(19%), 청소년 18(18%), 대학생 16(16%), 성인 3편(3%), 유아 2편(2%)이 게재 되었다. 죽음에 관련된 죽음 연구 대상은 전 생애 발달단계에서 심리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고 각 단계를 완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0%가 죽음 준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죽음 준비교육은 강의보다는 대화나 토론을 통한 교수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며 죽음 준비교육이나 연구는 다학제간으로 접근할 때 그 효과나 효율성이 커진다고 하였다(이현지, 이윤주, 조계화, 2005.).

< 표 4 >

	2010- 2013	2014- 2016	2017- 2019	N(%)
유아	1	0	1	2(2)
청소년	7	7	4	18(18)
대학생	4	5	7	16(16)
성인	1	2	0	3(3)
노인	4	6	9	19(19)
혼합	5	3	1	9(9)
장애인	0	2	2	4(4)
무	7	13	9	29(29)

4.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은 크게 문헌 연구, 사례 및 개발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고 양적연구는 실험 연구, 조사 연구, 메타분석으로 세부 분류하였으며, 질적연구는 접근방법에 따라 내러티브, 사례연구, Q방법론으로 세부 분류하여 분석하였다(길태영, 2017 ; 김신향, 변성원, 2014 ; 김영아, 권영숙, 2009).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양적 연구가 38편(38%), 문헌연구 32편(32%), 사례 및 개발 연구 24(24%), 질적 연구 4편(4%), 혼합연구 2편(2%), 메타분석 2편(2%). 혼합연구(실험연구+조사연구) 1편(1%)이 게재되었다.

<표 5>

		2010 - 2013	2014 - 2016	2017 - 2019	N(%)	N(%)
문헌 연구		10	12	10	32 (32)	21 (21)
사례 및 개발연구		4	12	8	24 (24)	24 (24)
양 적 연 구	메타분석	0	2	0	2 (2)	38 (38)
	실험연구	4	7	6	17 (17)	
	조사연구	10	2	6	18 (18)	
	실험+조사연구	0	1	0	1(1)	
질 적 연 구	Q방법론	0	0	1	1(1)	4 (4)
	내러티브	0	1	1	2(2)	
	사례연구	0	0	1	1(1)	
혼합연구 (실험연구+인터뷰)		1	1	0	1(1)	2 (2)

5. 연구주제어별 연구 동향

연구주제어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어들의 빈도를 연구대상별로 분류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죽음 불안 25편(25%), 죽음 준비교육 22편(22%), 노인 21편(21%), 죽음에 대한 태도 10편(10%), 자아 통합감 6편(6%), 생활 만족도 5편(5%), 심리적 안녕감 4편(4%), 죽음 인식 3편(3%), 삶의 의미 2편(2%), 노년기의 죽음 2편(2%)으로 게재되었다. 죽음 불안에 대한 하위 변인으로 고립, 타인에 대한 염려, 사후의 불확실성, 능력상실, 존재의 없어짐, 죽음의 장소 및 방법, 등이 있었다. 죽음 준비교육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죽음 불안’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불안한 존재이며, 모든 불안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다(오진탁·김춘길, 2009; 송양민·유경, 2011; 김성희·송양민, 2013; 조성희·정영순, 2015; Templer, 1970; Kalish et al,1985; Wong, 2000; William, 2012). 다음으로 죽음 준비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죽음 준비교육’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양민·유경, 2011).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추구는 죽음 준비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죽음 준비교육은 죽어가는 과정까지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며, 삶의 과정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루어는데 도움이 된다. 죽음 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불안 감소와 영적 안녕의 중요한 안정 요인이 되며 동시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표 6>

연구 대상	주제어(빈도)
청소년	비행 청소년, 죽음 교육, 죽음 인식
성인	죽음 불안, 죽음 준비교육(2),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 인식 정도, 죽음에 대한 반응
노인	죽음 불안(20), 죽음 준비교육(16) 죽음에 대한 태도(5), 자아 통합감(5), 생활 만족도(5), 심리적 안녕감(4) 노년기 죽음(2),
혼합	죽음 준비교육 (4), 죽음 불안(3), 죽음에 대한 태도(3),
장애인	통합된 죽음 준비교육,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
기타 (호스피스)	죽음 준비교육, 죽음 불안, 임종 간호,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죽음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개관하며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죽음의 정의를 이해하며, 죽음 연구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죽음과 관련된 연구 100편을 선정하여 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별 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죽음을 터부시 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이 학문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지지 않았으나, 죽음 교육 영역으로는 확장 발전 되었으며 죽음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기관에서 죽음 혹은 죽음교육 관련 강좌가 생겨났다. 1978년 서

강대학교에서 김인자의 「죽음에 관한 강의」가 처음 도입되었다. 1996년에는 김옥라의 「죽음의 심리적 이해」라는 강좌 또한 생겨났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 교육, 종교 교육, 단체의 호스피스 과정이라는 이름의 죽음, 임종 관련 교육이 생겨났다. 2008년 11월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오으로써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존엄사법의 입법에 관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며 죽음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죽음 교육으로의 연구 전환점이 되었다.

2010-2013년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고찰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죽음 연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명료화 하고자 신학, 철학, 문학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았다. 2014-2016년은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 및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동·서양의 철학적 관점의 반영과 해외 죽음 교육 모형 및 사례를 고찰하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기반으로 죽음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죽음에 관한 문헌 연구와 사례 및 개발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상과 내용의 죽음 교육 과정 개발이 활발히 연구 되었다. 죽음 교육을 통한 구체적인 변화 및 죽음에 관에 대한 깊이 있는 변화는 질적연구가 처음으로 게재 되기 시작하며 나타났다. 2017-2019년은 다양한 철학 및 문학적 관점으로 죽음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다. 해외사례 및 장례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을 비롯한 실천적 접근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철학 및 문학적 접근으로 마음 챙김 명상, 진도 김씨굿 그리고 현대소설들을 활용한 새로운 죽음 교육 과정 개발을 시도하였다.

둘째, 연구대상별 동향의 경우 노인 19편(19%), 청소년 18편(18%), 대학생 16편(16%), 성인 3편(3%), 유아 2편(2%)이 게재되었다. 노인 대상의 연구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아나 성인 대상의 죽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2편에 불과하며, 성인 대상의 연구 또한 2010-2017년까지 3편이었으나 2017년 이후 전무하였다. 발달 단계상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노인대상 연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발달 단계의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아와 성인 대상으로 연구는 2%, 3%에 그쳐 매우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연구 방법별 동향으로는 2010-2014년에는 문헌 및 양적 연구중심으로 시

행되었다. 2015-2017년에는 사례 및 개발 연구가 이전의 3배 증가 하였다. 2006년부터 실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문 조사나 실험 연구의 경우 연구의 엄격성 및 신뢰성과 관련하여 윤리적 고려를 민감하게 요한다. 그러나 윤리적 내용에 대한 제시부분이 부족하였다. 죽음 관련 논문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다른 대상에 대해 동의 과정에서 노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 경우 엄격성이나 신뢰성이 어떻게 확보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양적 연구와 실험 연구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적 연구에 의존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혼합연구의 시작은 실험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분석을 보이고 있다.

넷째, 대상별 연구 주제어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죽음 관련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는 죽음 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자아 통합감,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순으로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청소년은 죽음 교육과 죽음인식에 주된 관심을 보였고 성인은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 죽음 준비 교육의 질문, 교육 방안, 죽음 교육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 인식, 죽음에 대한 반응에 관심을 보였다. 발달단계별 또는 특별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주제어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죽음과 관련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이론과 연구대상별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죽음 교육에 대상은 유아·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에게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입과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연구의 주제가 필요하다. 죽음의 문화를 금기시하는 사회적 상황들, 종교나 사회 제도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죽음 이후 상실에 대한 애도에 필요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죽음에 관련된 연구는 조사 방법이 양적 연구에 편향되어 왔다. 죽음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혹은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종합적인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아(2011). **중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지, 14(4): 204-211.
- 강선보(2003).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죽음과 교육. **교육문제연구**, 19, 1-23
- 강성경(1992). **노인의 심리사회적 재통합**.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권석만(2020).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길태영(2017a). 베이비부머 대상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미래 사회복지연구**, 8, 69-99.
- 길태영(2017b). 죽음교육 관련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동향분석. **사회복지연구**, 48(2) 267-301.
- 김대동(2002).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신학대학교 석사논문.
- 김대복(1992). **노인에게 있어서의 삶의 의미**.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김명숙(2010).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유학연구, 22, 73-108.
- 김미정(2019). **노인병원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 정도에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 논문. 남서울대학교.
- 김성희, 송양민(2013).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불안의 매개역할. **보건사회연구**, 33(1), 190-219.
- 김소희(2002). 죽음교육의 교육철학적 의미. **한국종교교육학회**, 15, 206-223
- 김순자, 김지아, 김혜정(1999). **죽음관련연구의 현황**. 고려대학교의과대학원 석사논문.
- 김승희(1998). **죽음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신향, 변성원(2014). 죽음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 연구**, 12(12), 469-475.
- 김영아, 권영숙(2009). 국내의 죽음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계명간호과학**, 13, 51-62.
- 김용해(2010). 죽음의 철학적 함의와 죽음교

- 육의 필요성. **생명연구** 18, 43-75.
- 김은미(200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임종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논문.
- 김지혜(2018). 현대소설을 통한 죽음 교육 연구. **문학과 환경**, 17(3), 93-124.
- 김태현, 손양숙 (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7-26.
- 김태현(1996).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춘길(2009). 죽음 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 노년학**, 29(1), 51-69.
- 김신향(2013).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희경(2002). **현대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은희(2017). **임종간호 종사자의 죽음태도, 간호태도, 그리고 직무소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명대학교.
- 박지은(2009).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정서, 인지, 행동에 미치는 효과. **사회복지실천**, 80, 79-23.
- 박진홍(2008).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변미경, 현혜진, 박선정, 최은영(2017).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 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0).
- 서이중(2016). 고령사회와 죽음교육의 사회학. **사회와 이론**(28), 69-103.
- 손양민, 유경(2011).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 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인 복지연구**(54): 111-134.
- 신교남·이병승(2013).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나타난 죽음의 현상학적 의미와 죽음교육. **한국교육철학회**, 50, 219-24.
- 심승환(2019). 키에르케고어와 하이데거 사상에 나타난 죽음의 교육적 의미와 죽음교육의 방향 고찰. **교육철학연구**, 41(1), 65-95.
- 안미숙(2013). **노인 요양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석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안선희(2019). 장례예식을 넘어 죽음의례로. **신학과 실천**, 63, 7-37.
- 오진탁·김춘길(2009).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 노인학** Vol. 29, No. 1, 51-69
- 오진탁(2004).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청림출판사.
- 윤서희(2012). 노인죽음 준비교육 활성화 방안:기독교 측면에서. **교회와 사회 복지**(19): 193-232
- 윤영호(2014).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서울: 엘도라도
- 윤영호(2014). 웰다잉 (well dying) 문화 형성을 위한 불교의 죽음관 연구. **철학연구**, 130, 161-186.
- 이경희(2008).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 죽음준비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이영선(2020). 죽음교육 연구동향 분석: 평생교육관점에서. **교육문화연구** 26(2), 435-455
- 이윤주·조계화·이현지(2006). 죽음교육 모형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7(3), 121-140
- 이이정(2016). 죽음교육의 현황과 과제. **노년교육연구**, 2, 69-88.
- 임병식·신경원(2007). **죽음교육교본**. 서울: 가리온출판사
- 임순록(2008). 한일사생관 비교-유교와 신도를 중심으로. **일본 근대학 연구** 32, 417-433.
- 임송자(2012). **죽음 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부란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임춘식(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 임효남, 김광환(2019).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9), 432-439.
- 전병술(2015) 한국에서의 죽음학. **동양철학**, (44), 55-73.
- 정진홍(1983). **죽음과의 만남**. 서울: 궁리출판사.
- 조성희, 정영순(2015). 죽음교육이 노년기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70, 319-347.
- 조혜진(2004). **죽음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죽음 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천선영(2012). **죽음을 살다**.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채은희(2018).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테마 에세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9(3), 571-586.
- 최승현(2019). 들뢰즈의 시간론과 죽음교육의 의미. **교육학연구**, 57, 1-27.
- 최영훈(2019). 원불교 죽음교육과 생사체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9, 81-109.
- 최운실(2019).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담론 분석. **아시아 문화학술원** 10(6), 1709-1720
- 최희경(2016). 치매관련 사회복지연구의 연구동향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1, 1-27
- 허대석(2018).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서울: 글항아리
- 현은민(2005). 노인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95-111
- 홍숙자(1999). **노년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이우.
- 홍시명(2013). 노인자살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0, 5-31.
- 홍현미라(2011). 사회복지 거시실천에서의 질적 평가연구,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정책학**, 13(3), 287-310.
- 황필호(1990).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 Auten, A(1982). Why teach death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25(6), 602-605.
- Barnes, H. E(1967). *An Existentialist Ethic*. N.Y: Random House.
- Brewer, J. and Hunter, A(1989). *Multimethod research: A synthesis of style*. Sage Publications, Inc.
- Bollnow, O. F(2008).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 Creswell, W. and Plano C(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ethods Research*. SAGE publishing.
- Deeken, A(1992). The needs for death education. *cancer and chemotherapy*, 19(9), 1247-1252
- Despelder, L. A(2008).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 Goodman, L, M(1981). *Death and the creative life: Conversation with eminent artist and scientists as they reflect on life and deat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Ernst Becker(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N.Y: Free Press
- Heidegger, M(2008).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hn Maccurrie & Edward Robinson. N.Y: Harper-Collins Pub.
- Kneller, G. F(1964)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Y: John Wiley & Sons Inc.
- Nietzsche, F.(2000). *Also sprach Zarathustra*.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 Kalsh, D. P. Green, R. G. and Irish, D. P.(1985). *Death education: Preparation for living*. NY: Washington Square Press.
- Kübler-Ross, E.(1967). *On death and dying*, New York : Macmillan.
- Puolimatka, T. & Solasaari, U(2006) *Education for death.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920, Blackwell Publishing Ltd, 201-313.
- Templer, D(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death anxiety scar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6-177.
- Warren, W. G(1989). *Death research and education: cretical perspectives*.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 William, M. L. J(2012). Herman Feifel, The meaning of death, *Taylor Francis*, 17(1), 64-78.
- Wong, P. T. P(2000). *Meaning in life and meaning in death in successful aging, in Death attitudes and older adults: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eath

Heo, Sulhyang

Jeong, Moon-Kyeong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research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future death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death over the past 10 years from the viewpoint of death. The papers to be analyzed were 100 domestic papers in domestic journals and candidates for registration in the last 10 years, and they were analyzed by year, major,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topic. In the analysis by year, research on death education as a changed pattern for death was actively conducted from 2014 to 2017. In the analysis by maj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studi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and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were actively conducted, followed by education (29%), social welfare (19%), nursing (16%), and theology (18%). By subject, in the social context of demographic change such as aging, the number of subjects was the least in the order of the elderly (23%), adolescents (18%), and university students (16%), followed by adults (3%) and infants (2%). When looking at the analysis by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studies (38%) accounted for the most, followed by literature studies (32%) and case and development studies (24%). As for the research topic trend, it was found that emotional anxiety about death, that is, death anxiety (25%), was the most studied. Next, death preparation education (22%), the elderly (21%), attitude toward death (10%), self-integration (6), life satisfaction (5%), psychological well-being (4), old age Death (4%) appeared in the order.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earch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death as death.

Key words: *death, death education, Thanatology, death studiesresearch trends*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 효과연구

오 영 금 정 문 경*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인턴상담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H대학교 상담센터의 인턴상담사 7명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단일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고 단일집단에 사전·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사전·사후검사의 통계 방법은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는 첫째,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나 평균점수는 상승하였다. 둘째,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의 진로상담에 도움이 되는 방안임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사, 진로상담, 자기효능감

*교신저자 : 오영금, 한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E-mail : gum5050@hanmail.net

I. 서 론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 진학률의 하락과 대학 신입생의 감소로 이어지고(교육부, 2017) 더불어 대학에서 학업중단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6.10.14.).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환경, 교수 강의, 학업 지도 등의 요인보다는 학생 자신의 관점에서 각자의 만족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한 진로의 수립에 관한 여부,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 등이 학업중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동욱, 강민채, 2016). 이에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하고 적응적인 대학 생활과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대학상담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학상담센터는 대학마다 규모와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학생의 역량 강화 및 심리 지원을 위해 학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교내외 봉사활동, 학생 생활에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김수현, 2012). 대학상담센터는 학내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교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 및 교육하며, 심리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상담 기관이다(김동일, 이정인, 김기현, 유훈, 2021).

주요 내담자인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 있기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대학 생활 적응,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최혜윤, 백현정, 차지숙, 김은하, 2015). 2019년 한세대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업문제’(30.8%), ‘대인관계문제’(15.8%), ‘진로취업문제’(15.5%), ‘경제문제’(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는 ‘진로문제(40.8%)’, ‘학업문제’(23.2),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8.5%)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시 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신입생들의 58.3%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도 72.3%가 ‘있다’라고 응답했다(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19). 이처럼 대학생들은 진로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에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사를 채용하지만, 대학의 위상과 급여 수준에 따라 양질의 인력 확보에 차이가 나며 근무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는 장기간 근무가 어려워 많은 대학이 비정규직 상담사나 인턴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었다(황부순, 2020; 김형태, 2016; 임은미, 2013). 또한, 예산 부족, 운영의 자율성, 서비스 연계 등의 어려움(최혜윤 외, 2015), 대학생 내담자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상담자료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현장에서 요구하는 인턴상담자의 자격은 상담 관련 전공을 한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로, 대학원에서 이론과 지식교육은 받았으나, 충분한 실습이나 슈퍼비전의 경험이 없는 초심상담자들이다. 인턴상담자의 교육과정은 약 1년이며, 수련

과정에서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습하면서 슈퍼비전, 집단상담 교육, 공개사례발표회 등의 교육을 받는다(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자는 경험 부족으로 상담에서 적절한 개입과 의사소통 기술, 내담자의 이해, 불안, 개인적인 반응을 다루는데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두려움과 좌절이 많은 상담자는 발달 초기에 현실적인 상담기술 습득과 사례이해의 능력, 인격적 성숙, 올바른 상담자의 태도를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권경인, 김창대, 2007). 인턴상담자는 초기의 훈련기간 동안 모방과 모델링하는 과정에 이득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 종종 많은 상담자를 관찰하고 싶어 하나 관찰의 기회가 없을 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관찰학습을 할 기회를 보통 초기에 가질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Skovholt, 2000). 상담자의 발달과정 중 초심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시기의 경험이 전문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권경인, 김창대, 2007; 박영미, 엄정혜, 정신아, 최명식, 신혜린, 2014; 김주빈, 김현주, 2020) 이는 초기에 경험하는 두려움과 실수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김영주, 장재현, 김대원, 이지원, 2013). 상담자는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시기에 맞게 초점을 두어야 할 학습내용을 인지하게 되고 상담자 입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개인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을 구별하게 되므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수용하기 쉬워진다(심홍섭, 1998).

진로상담이란 개인의 생애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성격·정서·대인관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문적인 상담으로 볼 수 있다(황부순, 2020; Crites, 1981; Imbimbo, 1994; Krumboltz, 1993; Swanson, 1995). 진로문제는 직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몇몇 대학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H대학교를 포함해 가톨릭 대학의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상담,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등이 진로와 연관된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나 공통으로 실제 활용할 기법인 ‘진로상담기법’이 개설된 경우는 찾지 못하였다. 이는 진로상담기법을 정규 과정이 아닌 외부 교육기관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고 국내 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 후에도 진로상담 기회가 부족하고 쉽지 않은 실정이다(황부순, 이제경, 2021). 점점 진로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담기법의 빈약함이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되고(김봉환, 2003) 상담자들을 위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진로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인턴상담자가 현실적으로 진로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나타낸다(황부순, 이제경 2021).

Combs(1962)는 그의 동료들과의 연구에서 효과적인 상담자와 비효과적인 상담자와의 차이는 자기효능감과 특성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Combs, 1962; Combs, Soper, Gooding, Benton, Dickman, & Usher, 1969; 김진영, 2012) 개인이 가진 실

제 능력의 정도가 아닌,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말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나뉜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상황에서 개인의 성취욕구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있다(Sherer et al., 1982). 이런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대한 선택과 그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노력의 양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과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며 수행을 장기간 지속하도록 촉진하면서, 다른 행동에도 전이되어 더 힘든 과제에서도 노력하게 만든다(Bandura, Adams, & Beyer, 1977). 사회적 상황에서 맞는 기술을 사용해 바람직한 인상으로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Leary & Atherton, 1986)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서 자신의 능력, 특성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이런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장경애, 2004). 상담자의 성장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담 과정 및 성과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수행 및 발달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Heppner, Multon, Gysbers, Ellis, & Zook, 1998). 따라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한 인턴상담자에게 자기효능감은 앞으로 상담 수행의 정도와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대학상담센터의 인턴상담자의 진로상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로상담의 역량향상과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상담센터에 지속해서 활용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진로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인턴상담자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인턴상담자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H대학교 상담센터의 인턴상담사 중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7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를 선정 후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대해 사전면담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인원
성별	남	1 (14%)
	여	6 (86%)
나이	20대	3 (43%)
	40대	3 (43%)
	50대	1 (14%)
결혼	미혼	3 (43%)
	기혼	4 (57%)
진로상담	수강	5 (71%)
	미수강	2 (29%)
계		7 (100%)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의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기 위한 실험연구로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설계이다. 연구에 사용될 실험설계의 모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단일집단	O ₁	X	O ₂
O ₁ : 사전검사 (자기효능감)			
O ₂ : 사후검사 (자기효능감)			
X :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1년 7월에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턴상담자를 모집하였고 프로그램 시작 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 프로그램은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10일까지 4주 동안 주 1회씩 총 12회기로 온라인 회의 ZOOM을 이용해 오후에 진행하였다.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일에 3회기로 운영하고, 1회 기당 6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온라인 사후검사를 하였다.

4.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Scherer, Maddux, Mercandrate, Pretice-Dunn, Jacobs & Rogera(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지는 총 23문항이고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하위요인 2개로 구성되어있다. 백정연(2016)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 α 는 .88이고 본 연구에서의 .76이다.

<표 3>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역채점: 2, 5, 6, 7, 10, 11, 12, 14, 16, 17)	1 ~ 17	17	.75
사회적 자기효능감 (역채점: 18, 20, 22)	18 ~ 23	6	.75
전체		23	.76

5.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회기목표와 내용은 ‘진로상담 교재에 대한 내용분석: 진로상담 전문가 역량요소를 중심으로(강혜영, 2014)’, ‘단기상담 훈련프로그램이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강진구, 연문희, 2005)’, ‘초심집단상담자 교육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심집단상담자의 요구를 중심으로(권경인, 김지영, 엄현정, 2020)’,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전미영)’ 등을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에 응용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턴상담자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자기이해, 진로상담, 단기상담, 훈련한 기법의 반복 적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활동내용은 표 4과 같다.

<표 4>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내용

주제	회기	회기목표	활동내용	준비물
자기 및 진로상담 이해	1	- 집단의 목표를 이해 - 라포형성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진진가 게임)	PPT 자료 A4용지 1장, 사인펜
	2	- 자기 탐색의 기회 - 집단응집력 증진	- 생애주기 진로곡선 그리기 - 리더의 시연 - 자신의 생애주기 진로곡선 나누기	
	3	- 진로상담의 개념 파악 - 집단의 기대 높이기	- 진로상담의 개념 - 진로 관련 사이트 탐색 - 상담자의 태도 다루기 (공감적 이해)	
내담자 이해 및 단기상담 활용방안	4	- 자기분석 - 검사해석 상담 시연	- 자신의 성격과 진로검사 결과 해석하기 - 검사해석 상담의 구조화	PPT 자료
	5	대학의 특징 파악	○○대 학부생 이해 -학과별 경쟁률, 특징, 진로 ○○대 사이트 탐색 -학사일정, 인턴십, 비교과프로그램	
	6	단기상담의 개념 파악	- 단기상담의 개념 - 단기상담의 특징 및 기법 - 집단원들의 질의응답	
현장 프로그램 활용	7	- 대학상담센터의 운영방식 이해 - 상담주제별 구조화	- 학사 경고자 상담 구조화 - 학습전략 상담 구조화	PPT 자료
	8		- 진로상담 구조화 - 사례공유와 질의응답	
	9	상담기법의 공유	- 상담 시연 - 피드백 나누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마무리			과제안내	A4 용지 1장, 사인펜
	10	초심상담자의 긴장완화·마음 안정화 활동	- 상담자의 태도 다루기 (무조건적 수용) -영화를 보고 소감과 느낌 나누기 - 수용을 받은 경험을 나누기 (리더)	
	11	자기수용을 통해 타인 수용을 다루는 작업	수용을 받은 경험 나누기 (집단원)	
	12	-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 - 집단상담 마무리	- 장점 찾기 게임 -자신의 장점을 그림으로 표현 - 칭찬 샤워 - 상담자의 태도 다루기 (진정성) - 집단 참여 소감 나누기	

6.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로 수집된 자료로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지로 수집된 자료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검증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집단원의 수가 적고 모집단이 정규집단이라는 가정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턴상담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단일집단 설계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사전·사후검사의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1.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표 5>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기술통계

측정변인	N	사전		사후	
		M	SD	M	SD
일반적 자기효능감	7	3.60	.24	3.77	.50

단일집단의 사전 일반적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3.60이며, 사후 평균점수는 3.77로 소폭 상승하였다. 단일집단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윌콥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측정변인	N	음의 순위		양의 순위		Z (P)
		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일반적 자기효능감	7	4.00	8.00	4.00	20.00	-1.02 (.308)

* $p < .05$

<표 6>의 윌콥슨 부호순위 검정결과를 보면, 음의 순위는 사후점수보다 사전점수가 높고 양의 순위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단일집단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z = -1.02, p > .05$)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2.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해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기술통계

측정변인	N	사전		사후	
		M	SD	M	SD
사회적 자기효능감	7	3.45	.47	3.91	.48

단일집단의 사전 사회적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3.45이며, 사후 평균점수는 3.91로 소폭 상승하였다. 단일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윌콥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행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측정변인	N	음의 순위		양의 순위		Z (P)
		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사회적 자기효능감	7	1.50	1.50	4.42	26.50	-2.13 (.033*)

* $p < .05$

<표 8>의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결과를 보면, 음의 순위는 사후점수보다 사전점수가 높고 양의 순위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단일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z = -2.13,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

결과적으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은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평균점수는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평균점수가 향상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인턴상담자에게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상담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점수에 상승이 있었다. 인턴상담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직접적 논의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결과는 인턴상담자의 진로상담의 역량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과정이 일반적인 이론교육, 상담 실무 위주의 교육, 정보습득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부터 인턴상담자의 개인적 성취 욕구와

동기, 직무 열의가 높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연구 대상자가 적어 변화를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상담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턴상담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미미한 실정이라 직접적 논의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대학상담센터의 상담 전반에 관련된 업무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상담기법을 습득할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인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동료 인턴들 간에 서로 모델링이 되면서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인턴상담자로서 상담 과정 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나누면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진로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조화시켜준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처음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상담센터 인턴상담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역량향상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한 것이다. 상담의 성패 여부는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상담자 교육의 수준과 그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진정한 상담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 (강순화, 1993) 따라서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턴상담자의 진로상담 역량향상을 위해 실제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송수경, 구자경(2017)의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등재 학술지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최종 분석 대상 28편 중 초심상담자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5편(17.85%)만 있을 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인턴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극복할 교육과 상담 시연, 모델링을 통한 간접 훈련의 기회를 얻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대학상담센터의 인턴상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자료와 구조화된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대학원 수업과 전공 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고 있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상담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상담센터에서 맞는 상담의 주제, 회기, 내담자에 따른 구체화 된 상담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개인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기효능감을 키울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인턴상담자는 경험 부족과 상담기법의 미숙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권경인 외, 2020).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자는 불안이 낮고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Larson & Daniels, 1998; Larson et al., 1992; Lent et al., 2003; 김문정, 2017).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턴상담자로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낮아지면서 자기효능감이 올라가는 경험하게 되었다.

넷째, 인턴상담자들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정보제공과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가 마련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상담센터의 근무 형태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배상담자, 동료 인턴상담자 간의 상호교류와 접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 경험을 통해 자기성찰과 성장을 할 기회를 얻으면서 선배, 동료와의 긍정적 상호협력관계를 경험하면서 전문상담자로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혜경, 2016).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단일집단을 사전·사후설계로 이루어져 통제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인턴상담자 집단의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지역의 특정 대학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인턴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전국의 인턴상담자에게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의 대학상담센터의 인턴상담자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검사지는 자기 보고식이고 본 연구의 대상군에 적용하여 효과를 나타내기에 모호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자기 보고식의 검사지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과 심층면접을 실시해야 하고 인턴상담자의 맞는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측정 도구를 이

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진로상담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선행연구와 효과 연구가 미흡하다. 실제 인턴상담자들의 실태조사와 시장 중심의 요구조사를 통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순화 (1993). 초심상담자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 연구. **학생생활연구**, 29, 123-149, 개인상담실습을 중심으로.
- 강진구·연문희 (2005). 단기상담 훈련프로그램이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339-357.
- 강혜영 (2014). 진로상담교재에 대한 내용분석: 진로상담전문가 역량 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9.1: 23-46.
- 교육부 (2017.03.09.).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 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권경인·김지영·엄현정 (2020). 초심집단상담자 교육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심집단상담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41(1), 67-90.
- 김동일·이정인·김기현·유훈 (2021). 코로나 일상(With COVID-19) 시대 대학 학생상담 기관의 기능과 역할: 비대면 기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사례 및 실제**, 6.1, 47-63.
- 김문정 (2017). **상담자의 사회인지적 마음**
- 챙김과 상담성과와의 관계에서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작업동맹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2003). 행복한 직업생활을 조력하기 위한 상담자의 역할 탐색. **상담학연구**, 4(3), 381-396.
- 김수현 (2012). 한국과 미국 대학상담센터의 주요 업무와 기능. **인간이해**, 33(2), 37-52.
- 김진영 (2012). **학교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역할수행정도 및 역할만족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주빈, 김현주 (2020). 초심상담자의 수련과정 자발적 중도탈락 경험에 관한 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질적탐구** 6.3: 269-304.
- 김영주·장재현·김대원·이지원 (2013). 초심상담수련생과 내담자가 겪는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57-186.
- 김형태 (2016). 대학에서의 학생상담센터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량강화.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연차대회**, (7), 1-15.
- 박영미·엄정혜·정신아·최명식·신혜린 (2014). 대학상담소 레지던트 상담자의 수련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5(1), 107-128.
- 백정연 (2016). **성인초기 자기애적 취약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

- 학교 휴먼서비스 대학원.
- 송수경·구자경 (2017).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8(5), 1-19.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척도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해경 (2016). **상담인턴교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임은미 (2013). 상담자 발달단계별 도전과 대응: 기관의 상담자 지원을 중심으로.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학술대회지**, 7, 17-26.
- 장경애 (2004). **사회복지사의 재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미영 (2013).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승희·박정민·임영선(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최혜윤·백현정·차지숙·김은하 (2015). 대학상담센터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25-848.
- 한국대학신문 (2016.10.04.). 지난해 대학생 18만명 학업중단.
- 한동욱·강민채 (2016) 교육만족도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테즈학회논문지**, 16.11, 63-71.
-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19). **학생생활 연구**, 22(2), 206-260.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부순 (2020). **대학상담자가 경험하는 진로상담 수행의 어려움**. 박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 황부순, 이제경 (2021). 대학상담자의 진로상담 수행에 대한 적응과정: 근거이론 접근. **상담학연구**, 22.4, 257-28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n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 Bandura, A., Adams, N. E., & Beyer, J. (1977). Cognitive processes mediating behavioral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3), 125-139.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 Model,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Combs, A. (1962). A perceptual view of the adequate personality. In A. Combs(Ed), *Perceiving, behaving, becoming. Washington, DC: Yearbook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Heppner, M. J., Multon, K. D., Gysbers,

- N. C., Ellis, C. A., & Zook, C. E. (1998). The relationship of trainee self-efficacy to the process and outcome of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393.
- Imbimbo, P. (1994). Integrating personal and career counseling : A challenge for counselor.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1*, 50-59.
- Krumboltz, D. J. (1993). Integrating Career and Personal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2), 143-148.
- Larson, L. M., & Daniels, J. A. (1998). Revie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2), 179-218.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L.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105.
- Leary, M. R., & Atherton, S. C. (1986). Self-efficacy, social anxiety, and inhibition in interpersonal encount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256-267.
- Lent, R. W., Hill, C. E., & Hoffman, M. A.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97.
-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kovholt, T. M.(2000).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Boston: Allyn and Bacon.*
- Swanson, J. L. (1995). The process and outcome of career counsel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a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for Intern Counselors at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Oh, Young-Geum Jeong, Moon-Kyeong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on the self-efficacy of intern counselor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organized into a single group sample by receiving online applications from the seven intern counselors at H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in K-si, Gyeonggi-do. For the analysis of results, general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were used, and pre and post test were performed in a single group sample.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statistical method of the pre- and post-test of the scale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a non-parametric test.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is study, first, the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eral self-efficacy of intern counselors at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but the average score increas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effect on the social self-efficacy of intern counselors at th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Therefore, it could be verified that the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was effectiv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ocial self-efficacy of intern counsel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was a helpful plan for their career counseling to the intern counselors at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Keyword :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intern counselor, career counseling, career counseling*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차 복 자* 정 문 경

한세대 학교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에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어린이집 원장 331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직무만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의 정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분석결과 직무만족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통해 심리적 소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어린이집 원장,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직무만족

*교신저자 : 차복자, 한세대 학교 박사과정 재학. E-mail : bjcha1203@hanmail.net

I. 서 론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면서, 국정과제의 한 부분으로 보육 서비스가 차지하게 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사업의 주관 부서를 법체계와 통합하여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면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제를 실시하고, 2015년 CCTV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었고, 어린이집의 일과 운영이 종일반, 오후반, 야간반 등 24시 보육으로 가정과의 연계는 더욱 강조되어 교사나 원장의 업무는 증가하는 실정이다(김희정, 임유경,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연관된 의사결정자로서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해야 함은 물론, 변화하는 정책을 수용하고 교사, 부모,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기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서비스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일차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사를 지도하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기에 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미정, 2019).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는 원아 관리, 보육 교직원 관리, 학부모 관리, 보육 활동 및 교육 관리, 행정과 재정 관리, 지역사회 협력, 행사계획 및 진행, 재교육,

식자재 구입 및 관리, 시설과 설비 관리, 시설평가 관리 이외에도 차량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하는 상황이 많아 쉴 새 없는 일의 반복뿐 아니라 전체 관리를 책임지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소진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김수연, 2015). 강정혜(2012)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보육통합, 2020)에 따르면 2020년 2,019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120,689명의 아동이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서는 재정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모집의 어려움 등이며, 그 외에 시설환경의 미비, 행정업무 또한 폐원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COVID-19,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법 12조 제3항, 19, 6월 법 시행령 개정) 의무화가 되면서 기존 어린이집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직무스트레스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각되었다. ‘팽팽하게 켜다’는 의미의 스트레스는 라틴어 ‘Stringere’에서 유래되었다(성희자, 권현수, 2010).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개인의 반응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Ivancevich & Matterson, 1987). 김수연, 나종혜(2006)는 직무스트레스를 보육의 목적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원장의 만족과 욕구 간 불균형으로부터 개인의 행동, 생리적 반응, 정서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어린이집 조직 구성원 전체와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육의 질과 보육 활동의 전체과정, 어린이집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김현경·신동주, 2009). 차선미(2006)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로 지원업무, 교육활동 등의 스트레스가 있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서는 그들 상호 간 다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미숙(2008)은 원장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재정과 행정관리 영역이라 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될 때 좌절감, 무력감, 신체적, 심리적인 불안감 등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고(Maslach & Goldberg, 1998), 원아들과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부모들이 바라는 수준 높은 기관의 조건과 거리를 갖게 된다(이미정, 2021).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초기에는 보육교사의 개인적 관점에 맞추어 연구되었으나 점차 적으로 사회와 환경을 강조하며 개인의 환경과 상호 작용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차금례, 2020).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직무 관련이나 동료 교직원, 학부모,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갈등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이다(전은주, 2015). 김요진(2015)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교사 자신의 자원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에서 각 개인의 가치 체계와 욕구 만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치판단,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에 따라 다르다고 정의하였다(Tiffin, 1971). 또한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은 직무 자체, 인간관계, 근무환경, 보수와 승진, 사회적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희정, 임유경, 2021). 직무만족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유쾌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의 종합으로, 호의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태도라 보고하였다(Smity, 1993). 직무만족이 직무수행에서 갖게 되는 불만이 삶 자체의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영면, 2011).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만족은 보육 현장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을 둬으로써 직무에 관해 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적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이미화, 2005). 직무만족도가 높을 때 보육 종사자에 대한 외부 인식이 좋아지면서 어린이집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현상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임숙향, 2015).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수행에 의한 소진 역시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영유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현숙, 2012), 원장의 소진 정도가 높을수록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유란, 2007). 따라서 보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 소진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소진이란 업무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되는 현상으로, 자신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지만 기대했던 보상이나 성과 없이 인간적인 실망, 좌절, 회의감을 겪게 되는, 육체적·정서적인 고갈의 상태(최선경, 2011)를 의미한다. 심리적 소진은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구성원들이 겪는 정서적 소모, 개인적 성취감 감소, 비인간화 그리고 정서적 소모의 총체적 현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힘이 고갈된 탈진상태로 직무 능력이 떨어져 성취감이 감소 되고 서비스 대상자를 비인격화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Maslach & Jackson, 1981). 심리적 소진은 스트레스의 누적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후군(서석립, 1995)으로, 장기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일종의 정서적 고갈상태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김보경, 2011).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은 개인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지나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생기는 탈진상태라는 개념으로 심리적 소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환경에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기에,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를 원장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미정, 2019).

보육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도가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문제 제기와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는 절실히 필요하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심리적 소진을 줄이고,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 직무만족도를 조사해보고,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331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령대는 30대 15명(4.5%), 40대 120명(36.3%),

50대 170명(51.4%), 60대 이상 26명(7.9%)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기혼 306명(92.4%), 미혼 25명(7.6%)으로 나타났다. 재직은 고용원장 93명(28.1%), 설립원장 238명(71.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 14명(4.2%), 전문대 졸업 40명(12.1%), 대학교 졸업 122명(36.9%), 대학원 졸업 155명(46.8%)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 70명(21.1%), 5년~10년 미만 64명(19.3%), 10년~15년 미만 77명(23.3%), 15년~20년 미만 61명(18.4%), 20년 이상 59명(17.8%)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 65명(19.6%), 민간어린이집 84명(25.4%), 법인 어린이집 9명(2.7%), 가정어린이집 149명(45.0%), 직장어린이집 15명(4.5%), 법인 단체 등 9명(2.7%)으로 나타났다. 정원은 20명 미만 134명(40.5%), 20~39명 58명(17.5%), 40~59명 54명(16.3%), 60~79명 37명(11.2%), 80~120명 40명(12.1%), 121명 이상 8명(2.4%)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한 연구에서 김수연과 나중혜(2006)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7문항), 교사와 관련된 스트레스(7문항), 행정과 관련된 스트레스(7문항)의 3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리커트(Likert)식으로 응답하였다. 척도의 총점은 평균 점수로 구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전체 Cronbach α 는 .92,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 .84, 교사 관련 스트레스 .81, 행정 관련 스트레스 .85로 나타났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동과학 연구소(고려대학교 부설)에서 발행한 심리척도 핸드북(2006)의 직무만족에 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유란(2007)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무 자체 관련 만족도(17문항), 인간관계 만족도(5문항)의 2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리커트(Likert)식으로 응답하였다. 척도의 총점은 평균으로 구했으며, 7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전체 Cronbach α 는 .86, 하위 요인인 직무 자체 관련 만족도 .83, 인간관계 만족도 .69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소진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 & Jackson(1981)이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어린이집 원장의 상황에 맞게 이미정(2019) 연구에서 수정한 심리적 소진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8문항)의 3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

로, 리커트(Likert)식으로 응답하였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은 모두 긍정적 문항으로서 역채점을 한 후 척도의 총점은 평균으로 구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진 전체 Cronbach α 는 .91,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 .92, 비인간화 .69, 성취감 감소 .8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에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Hayes(2017)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설문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매개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분포 및 변인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편차, 왜도, 평균, 척도를 구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고 (Baron과

Kenny, 1986),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4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매개 모형에 투입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 변인이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자 왜도 및 첨도를 구하고, 변인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에 투입된 주요변인은 왜도 .10 ~ .32, 첨도 -.63 ~ -.05로 나타났으며,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기준(왜도 ± 2 이하, 첨도 ± 7 이하)에 부합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r=-.68, p<.001$),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76, p<.001$)을 보였다. 직무만족은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72, p<.001$)을 보였다.

<표 1>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N=331>

변인	1	2	3
1. 직무스트레스	1		
2. 직무만족	-.68***	1	
3. 심리적 소진	.76***	-.72***	1
평균	2.30	3.48	2.22
표준편차	.63	.46	.59
왜도	.32	.10	.26
첨도	-.14	-.05	-.63

*** $p<.001$

2. 매개효과 분석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에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우선 적으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3단계 분석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경로 a)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유의하게 나타나야 한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경로 c)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유의하게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경로 b)이 유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경로 c')이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 모형으로 해석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경로 c')이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경로 c)에 비해 감소하면서 의미가 있다면 부분 매개 모형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에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289.2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R^2=.47$).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50$, $p<.001$).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449.5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R^2=.58$).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쳤다($B=.71$, $p<.001$).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심리적 소진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311.49$, $p<.001$), 모형의 설명력은 66%로 나타났다($R^2=.66$). 3단계에서 직무만족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B=-.49$, $p<.001$), 앞서 각 단계에서 나타난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에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의 정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소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B=.46$, $p<.001$)이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B=.71$, $p<.001$)보다 감소된 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통해 심리적 소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연구 모형의 3단계 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t	R ²	F
1	직무스트레스	직무 만족	-.50	.03	-17.01 ***	.47	289.22***
2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71	.03	21.20***	.58	449.56***
3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	.46 -.49	.04 .06	11.22*** -8.59***	.66	311.4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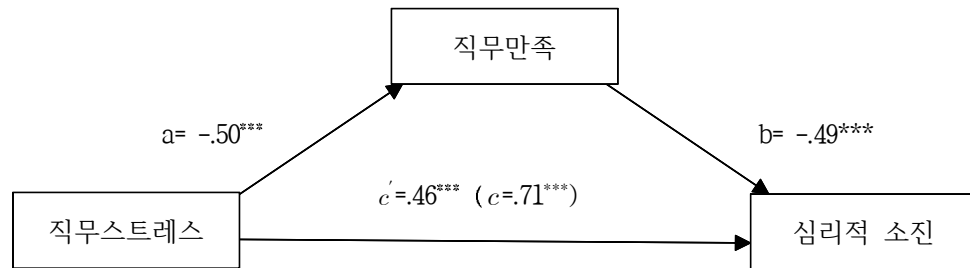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에서 경로계수

이어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끼치는 영향(a)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b)의 곱인 매개효과(ab)에 대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의 하한값은 .18, 상한값은 .31로 나타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변수	매개효과	SE	95% 신뢰구간
직무만족	.24	.03	.18 ~ .3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어떤

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335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31명

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어린이집 원장의 정상 업무 수행에도 역시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됨에 따라 좌절감, 무력감, 신체적 및 심리적인 불안감 등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게 된다(Maslach & Goldberg 1998). 직무스트레스는 또한 비인간화, 정서적 고갈, 성취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소진의 하위 요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미, 노필순, 윤혜미, 20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수록 높은 수준의 심리적 소진이 보인다는 연구(김수연, 2015)와 일치한다. 또한 전은주(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직무스트레스를 교사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와 더불어 직무관련이나 동료 교직원, 학부모,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갈등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한 감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교사 자신의 자원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한 김요진(2015)의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무스트레스가 정상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처럼 어린이집 원장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심리적 소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직무만족이 유의한 매개변수가 되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 세 가지 요소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다. 이미정(2020)의 연구에서 역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바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직무 자체와 관련된 직무만족도의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아지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또한 직무만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관한 차이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가 낮으면 심리적 소진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만족은 보육 현장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들

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시 보육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이미화, 2005). 위 연구결과들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도를 보인다는 강정혜(2012), 정은미(201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정유란(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은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김현숙, 2012)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심리적 소진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은 책임자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끔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직무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심리적 소진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보육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원장의 심리적 소진을 경감시키기위해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바로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고 더욱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

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경감 및 간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직무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통한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기 보고에 의존하여 원장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행동관찰, 심층면접, 사례연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혜 (2012). **어린이집 유형별 원장의 직무수행,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8). **시설장의 직무만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준 (2018). **보육교사의 긍정 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소진의 매개 효과 검증**.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연, 나종혜 (2006). 보육시설장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1호.
- 김요진 (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련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강남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 신동주 (2009). 보육시설장의 갈등 인식 및 갈등관리유형이 교육성화에 미치는 영향. **유아 교육학론집**. 제13권 1호.
- 김현숙 (2012). **어린이집 원장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소진과의 관계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 임유경 (2021).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십 역량이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국제문화기술 진흥원**. Vol.7 No.1
- 보건복지부 (2020). www.mohw.go.kr
- 서석림 (1995).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특수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희자, 권현수 (2010).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척도의 타당성 연구: 대구지역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Vol.13 No.3
- 오숙자 (2017).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도와 집단 자존감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정 (2019).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집단 자존감의 매개효과**.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화 (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 이영면 (2011). **직무만족 의미와 측정**. 서울: 경문사
- 이형권 (2015).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경기도: 신영사
- 임숙향 (2015). **어린이집 원장의 갈등관리 유형 및 창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경미·노필순·윤희미 (2019).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 조중윤 (2018).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주 (2015).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유란 (2007). **보육환경이 시설장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은미 (2011). **어린이집 원장의 갈등관리 유형이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선미 (2007).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의 직무수행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숙 (2004). **유아 교사의 자아 개념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충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 (2011).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Maslach & Goldberg J. (1998). Prevention of burnout: net perspective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7(63),
- Maslach,C.,& Jackson, S. E.(1981).The measurement of perceiv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 Smith, H. C. (199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 Mc Graw-Hill.
- Tett, R. P., & Meyer, J.P. (1993).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Turnover : Fath Analysis Based on Meta-Analytic Findings. *Personnel Psychology*, 46(2), 259-293.
- Tiffin, (1971). Personnel selection and the prediction of error Raubenheim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5(3), 229-233

<Abstract>

The effect of daycare center directors' job stress
on psychological exhaustion : The mediation effect
of job satisfaction

Cha, Bok-ja

Jeong, Mun-gyeong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fluencing daycare center director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A survey targeting 331 daycare center directors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regarding their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To analyze the data,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zing methods were used through the program SPSS 21.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below.

Job stres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It is indicated by the phenomenon that job satisfaction decreases when job stress increases,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also increased as a result.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did a role of partial medi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of daycare center director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This means that job stress does not only increase psychological exhaustion through job satisfaction but also directly increases psychological exhaustion.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nd mentions about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Key Words : *Daycare center director, Job stress, Psychological exhaustion, Job satisfaction*

성인의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 : 자기 침묵 매개효과*

최 한 나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거부 민감성과 자기 침묵,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 침묵이 성인의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49세의 성인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거부 민감성 척도,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중 하위요인인 분노 표출과 분노 억제에 관련한 16문항, 자기 침묵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각 변인 간 상관분석과 거부 민감성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 민감성은 자기 침묵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인 분노 억제, 분노 표출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자기 침묵 또한 분노 억제, 분노 표출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거부 민감성은 자기 침묵을 통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 침묵이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거부 민감성과 자기 침묵,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거부 민감성, 자기 침묵,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분노 억제, 분노 표출

* 본 연구는 최한나(2018)의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kyu@catholic.ac.kr

I. 서 론

요즘 우리 사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무작정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는 물론, 가족이나 이웃, 연인, 직장 내 친밀한 관계에서 분노로 인한 강력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부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분노는 특히 가까운 관계를 통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Averill, 1983). 최근 시사 잡지 월간 중앙(2017년 1월 17일 자 기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분노 감정의 표현은 우리 사회의 숨은 시한폭탄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가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분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개인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취약한 아동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에 따르면 분노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고립감’이 있고, 특히 ‘거부당하는 느낌’이 분노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이지만, 분노가 다른 정서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데에는 분노 감정 그 자체보다 주로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다(정해숙, 2011). 우리는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분노 감정을 느끼지만, 개인마다 경험되는 분노 수준과 그것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고경희, 2001; Linden, 2003).

분노에 대처하는 행동적 차원을 분노 표현양식이라고 한다(이경은, 2011). 분노 표현양식은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억제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대처방식을 의미한다(고경희, 2001; 고희경, 2006). Spielberger(1985)는 분노 표현양식을 분노 조절, 분노 억제, 분노 표출로 구분하였다. 이 중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으로, 분노 조절은 기능적인 분노 표현양식으로 분류된다(Bilodeau, 1992; Gottlieb, 1999).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서 표현은 그 사회의 정서 표현 규칙에 영향을 받게 되고(Ekman & Friesen, 1971), 특히 분노 감정 표현은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 되는 경향으로 관계에서 상호 간의 조화가 중시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한국 사회의 성인들이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분노 감정을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종종 타인에게 수용보다는 거부를 경험하게 되고, 거부 경험은 두려움과 불안, 분노 등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거부를 예상하면 관계에서 철회 또는 회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반대로 언어적 공격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대

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선, 2009; Ayduk, Downey, Testa, Yem & Shoda, 1999; Downey, Feldman, & Ayduk, 2000).

Feldman과 Downey(1994)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소하거나 모호한 것을 거부의 단서로 지각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거부 민감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수용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되어 이후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불안을 잠재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Bowlby, 1980). 이러한 거부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서부터 취업, 연애와 결혼 등의 발달과업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성인의 대인관계에서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적응과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 요즘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 학교 내 왕따 문제가 성인의 직장 내 왕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친밀감을 이용한 이별 범죄 등이 개인의 불화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무직 종사자 207명 중 남자 집단의 16.5%, 여자 집단의 13.0%가 ‘거의 매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또래 괴롭힘 피해자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모호한 단서에서 분노를 느끼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소영, 전희선, 이승연, 2017). 또한 점차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부모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때 개인의 거부 민감성 수준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거부 민감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승애, 서경현,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Levy, Ayduk, & Downey, 2001), 높은 거부 민감성이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이는 아동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학습된 거부 경험이 개인의 거부 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성장 후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Pietrzak, Downey, & Ayduk, 2005).

한 편으로 임정민(2014)은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외현적으로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지만 내현적으로는 자기 침묵으로 대처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기 침묵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Jack(1991)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적으로 긴장감을 경험하는 자아감을 자기 침묵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 침묵은 외적인 자기 지각, 자기 침묵,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분리된 자기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인 자기 지각’은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고,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 ‘자기 침묵’은 자신의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관

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분리된 자기’는 내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겉으로는 타인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침묵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 나름의 신념과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도록 사회화되어(Tan & Carfagnini, 2008)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지닌다(김소정, 2014). 자기 침묵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적 인지 도식의 인지적 요소, 자기희생이나 배려를 통해 타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갈등을 일으킬만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행동적 요소, 관계에서 분리된 자기를 경험하여 상실감이나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 침묵의 이러한 특성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행동과 태도가 정서적으로 분노 감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기 침묵은 분노 억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김소정,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부 민감성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김미선, 2014; 김진선, 2017), 거부 민감성이 주로 아동기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Pietrzak, Downey, & Ayduk, 2005), 어린 시절 거부 민감성이 형성된 성인이 성장하여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발달적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잠정적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거부 민감성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김미선, 2014; 김진선, 2017), 거부 민감성이 자기 침묵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며(서지영, 2016; 임정민, 2014), 자기 침묵이 분노 억압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김소정,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이 심리 내적으로 형성된 거부 민감성으로부터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자기 침묵이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자기 침묵을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성인의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의 역할을 살펴보고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의 거부 신호에 민감한 성인의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결과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거부 민감성,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자기 침묵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20세에서 49세까지 성

인 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15명(42.3%), 여자가 157명(57.7%)으로 연령은 20대가 80명(29.4%), 30대가 92명(33.8%), 40대가 100명(36.8%)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참가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5.26과 8.34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거부 민감성 척도

본 연구는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 제작한 것을 이복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거부 민감성 척도를 사용했다. 각 문항은 18개의 상황에서 각각 거부 불안과 수용 기대에 대한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에 민감함을 뜻한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보고되었고,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87,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척도

본 연구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점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 각 10문항, 분노

표현양식에 해당하는 분노 조절, 분노 표출, 분노 억제 각 8문항씩 24문항,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 표현양식 중에서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인 분노 억제 8문항과 분노 표출 8문항, 총 16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전혀 아니다’=1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4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김진선(2017)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70이고, 분노 억제 .81, 분노 표출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78이고, 분노 억제 .80, 분노 표출 .85로 나타났다.

3) 자기 침묵 척도

본 연구에서는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양지윤(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3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어 최저 31점부터 최고 155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기 침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ack과 Dill(1992)이 보고한 여대생 집단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는 .86이고, 하위요인 내적 신뢰도 계수는 외적인 자기 지각 .75, 자기 희생을 통한 돌봄 .65, 하위요인 자기 침묵 .78, 분리된 자기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침묵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 외적인 자기 지각 .71,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64, 하위요인 자기 침묵 .74, 분리된 자기 .6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 간의 상관을 검토하기 위해서 SPSS(PASW) 21.0판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상정된 매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단일 요인으로 확인된 거부 민감성에 대해서는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3개의 측정 변인을 사용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적합도 및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X2 차이 검증을 사용하여 이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셋째, AMOS 21.0판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TLI, CFI, RMSEA, 표준적인 X2 차이 검증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는 Bootstrap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Bootstrap 방식은 표본 집단이 모집단으로 가정되므로 표본 집단 추출 과정이 중요하며 최소 200 이상의 대표본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10,000개의 bootstrap 표본과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수준 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 민감성은 자기 침묵,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각각 $r = .358, p < .01$; $r = .296, p < .01$). 아울러, 자기 침묵은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r = .308, p < .01$). 또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2와 7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Finch와 West(1997)의 제언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각각 절댓값이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기초통계량과 상관(N = 272)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1. 거부민감성	1											
1-1. 거부민감성_1	.920**	1										
1-2. 거부민감성_2	.908**	.750**	1									
1-3. 거부민감성_3	.907**	.757**	.733**	1								
2. 자기 침묵	.358**	.291**	.351**	.339**	1							

2-1. 외적인자기자각	.350**	.295**	.338**	.325**	.809**	1						
2-2. 자기회생 통한 돌봄	.112	.085	.138*	.083	.758**	.491**	1					
2-3. 자기 침묵	.300**	.226**	.284**	.313**	.849**	.565**	.506**	1				
2-4. 분리된 자기	.399**	.343**	.380**	.368**	.826**	.611**	.500**	.593**	1			
3. 분노표현	.296**	.294**	.252**	.262**	.308**	.366**	.244**	.109	.327**	1		
3-1. 분노억제	.163**	.138*	.160**	.150*	.097	.172**	.154*	-.092	.136*	.857**	1	
3-2. 분노표출	.343**	.366**	.271**	.300**	.429**	.454**	.265**	.276**	.424**	.863**	.479**	1
평균	10.36	3.49	3.37	3.50	87.47	18.76	21.06	27.46	20.20	33.68	15.56	18.12
표준편차	3.69	1.39	1.35	1.30	13.13	3.66	3.75	4.91	3.83	7.39	4.25	4.34
왜도	0.83	0.66	1.15	0.59	0.49	0.36	0.03	0.06	0.10	0.29	0.59	0.16
침도	1.79	1.02	2.69	0.69	0.44	0.24	-0.03	0.62	0.20	0.23	0.23	-0.32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것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여 표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확인된 거부 민감성에 대해서는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 변인을 구성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분노 표출 변인의 오차항이 음오차분산(negative error variance)으로 나타나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위반추정치가 나타나는 경우에 문제 변수의

분산을 극히 작은 값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Chen, Bollen, Paxton, Curran, & Kirby, 2001)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인의 분산 값을 제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2에서 보듯이, 측정모형은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적절하게 부합되었다($\chi^2(25) = 87.240$; RMSEA = .096(90% 신뢰구간: .074 ~ .118); TLI = .920; CFI = .945]. 또한,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1$) 적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요인 부하량과 표준오차를 표3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90% CI)
적합도	87.240	25	.920	.945	.096(.074 ~ .118)

<표 3>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C.R.
거부 민감성			
거부 민감성 1	1	-	-
거부 민감성 2	0.941	0.054	17.515***
거부 민감성 3	0.917	0.052	17.732***
자기 침묵			
외적인 자기지각	1	-	-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0.815	0.083	9.788***
자기 침묵	1.25	0.108	11.554***
분리된 자기	1.08	0.086	12.633***
역기능적 분노 표현			
분노 표출	1	-	-
분노 억제	2.131	0.237	8.99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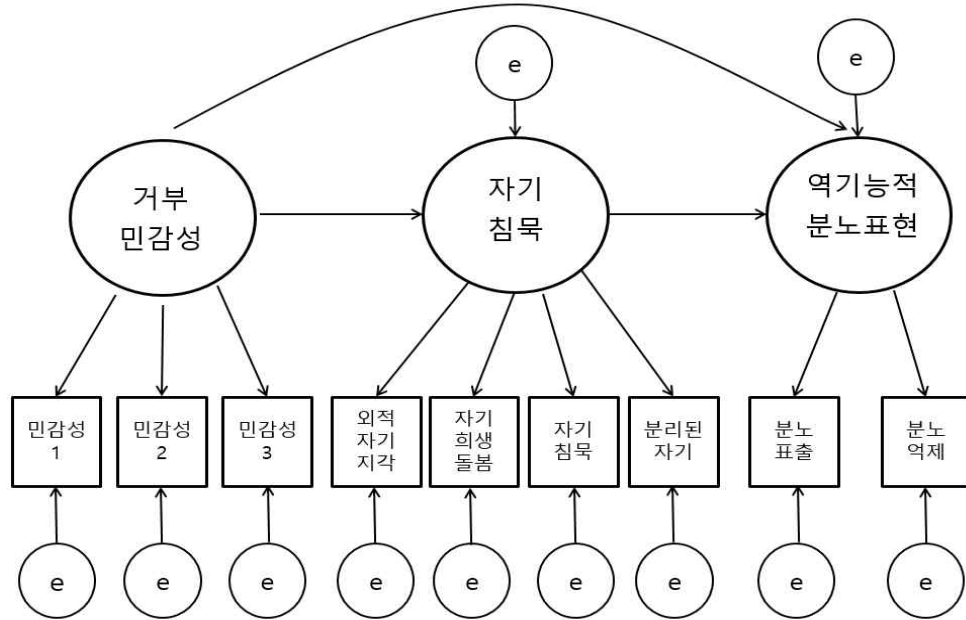
3. 구조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 두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아울러 각각의 모형을 그림1과 그림2에 제시하였다. 표4에서 보듯이, 연구모형은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적절하게 부합되었다. 또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서로 등지 관계(nested)에 있으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χ^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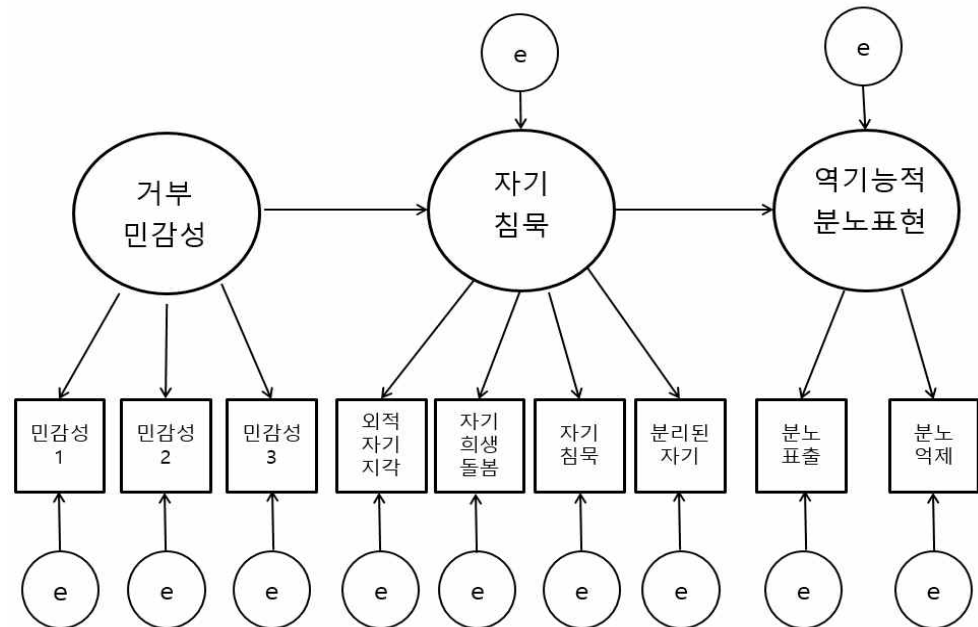
$[\Delta\chi^2(1)=7.445, p > .01]$, 적합도에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모형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러한 직접 경로를 연구모형에서 제거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6)= 94.685; RMSEA = .099(90\% \text{ 신뢰구간: } .078 \sim .120); TLI = .915; CFI = .939]$.

<표 4> 모형 적합도 검증

	χ^2	df	TLI	CFI	RMSEA(90% CI)
연구모형	87.240	25	.920	.945	.096(.074 ~ .118)
경쟁모형	94.685	26	.915	.939	.099(.078 ~ .120)
최종모형	94.685	26	.915	.939	.099(.078 ~ .120)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4. 모형의 모수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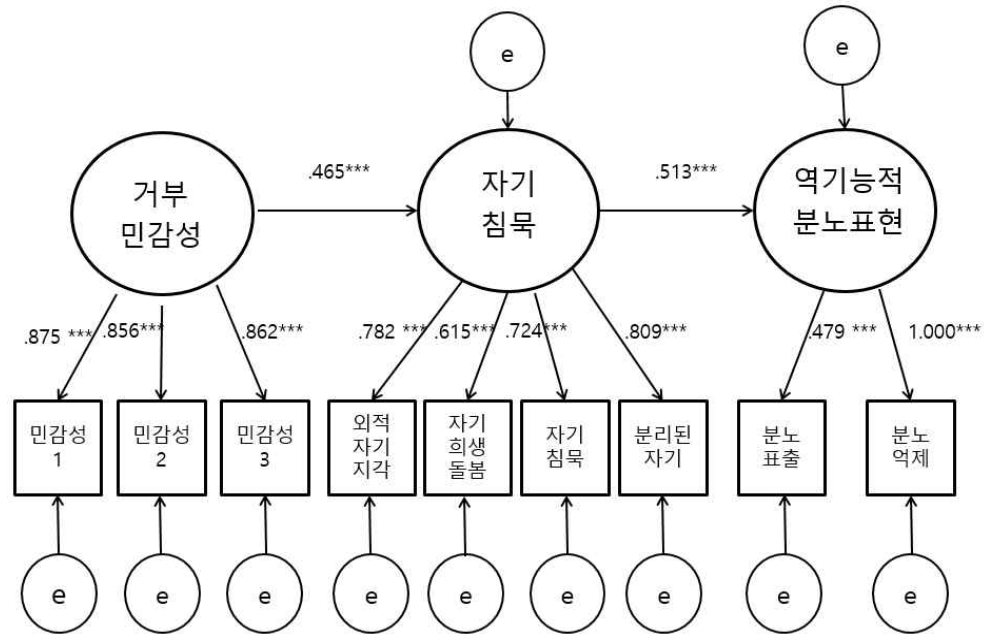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제시된 각각의 직접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와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그리고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표준오차와 Critical Ratio를 표5에 제시하였다. 그림3에는 각각의 직접 경로에 대해 표준화 계수 추정치를 사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제시된 직접 경로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거부

민감성에서 자기 침묵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고(비표준화 계수 = 1.095, 표준오차 = .163, $p < .001$), 자기 침묵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으로 가는 직접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비표준화 계수 = .365, 표준오차 = .061, $p < .001$).

<표 5> 직접 경로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C.R.
거부 민감성 → 자기 침묵	1.095	.163	.465	6.709***
자기 침묵 → 역기능적 분노 표현	.365	.061	.513	5.978***
거부 민감성 → 거부 민감성 1	1.000	-	.875	-
거부 민감성 → 거부 민감성 2	.951	.054	.856	17.474***
거부 민감성 → 거부 민감성 3	.924	.052	.862	17.636***
자기 침묵 → 외적인 자기지각	1.000	-	.782	-
자기 침묵 →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805	.083	.615	9.701***
자기 침묵 → 자기 침묵	1.240	.108	.724	11.525***
자기 침묵 → 분리된 자기	1.081	.085	.809	12.735***
역기능적 분노 표현 → 분노 표출	1.000	-	.479	-
역기능적 분노 표현 → 분노 억제	2.131	.237	1.000	8.99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최종모형과 표준화 계수 추정치

5.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종모형을 토대로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여 간접효과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0,000개의 bootstrap 표본에 입각하여 산출된 각 간접 경로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 및 비표준화 계수 추정치의 표

준 오차와 95% 신뢰구간 등의 구체적인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표6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거부 민감성이 자기 침묵의 매개를 경유하여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의 추정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 계수 = .399, 표준오차 = .103, 95% 신뢰구간 = .209 ~ .615). 이러한 결과는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표 6> 간접 경로의 추정치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거부 민감성→ 자기침묵 → 역기능적 분노 표현	.399	.103	.238	.209	.615

주. Bootstrap 표집은 10,000회 실시함.

IV.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20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의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의 거부 민감성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 침묵을 매개로 하여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부 민감성은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거부 민감성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을 갖는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진선, 2017; Ayduk, Gyurak, & Luerksen, 2008). 또한 거부 민감성은 자기 침묵과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냄으로써 거부 민감성과 자기 침묵과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을 확인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서지영, 2016; 임정민, 2014). 마지막으로 자기 침묵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두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자기 침묵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 침묵을 많이 사용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 억압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김소정, 2014; Jack, 1991; Tan & Carfagnini, 2008).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 침묵이 분노 억제보다 분노 표출과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기 침묵을 통해 분노를 계속 억압하게 되면 결국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Jack(1991)의 이론적 설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거부 민감성과 자기 침묵,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 민감성이 증가할수록 자기 침묵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자기 침묵은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 민감성이 개인의 과도한 정서적 반응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Pietrzak, Downey, & Ayduk, 2005) 및 거부 민감성이 공격성으로 표출된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거부 민감성이 높은 성인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하는 데 있어 거부 민감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자기 침묵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 민감성이 높은 성인일수록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자기 침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자기 침묵은 거부 민감성이 높은 성인의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거부 민감성이 높은 성인의 역기능적 분노 표현에 대한 치료 전략에 자기 침묵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 민감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주로 아동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본다면 (Pietrzak, Downey, & Ayduk, 2005), 거부 민감성을 형성하게 된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과정을 이어주는 특정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자기 침묵을 상정하여 거부 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 간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주변에 타인의 거부 단서에 민감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민감성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두 변인 간 발달적 연결 고리에서 빠져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매개변인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자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수용 받지 못한 경험한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므로(Bowlby, 1908), 거부당하는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Jack,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대로 관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통제감에 대한 상실을 겪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동요하고 분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혹

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차단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면서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저하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며 (Ayduk, Gyurak, & Luerksen, 2009), 자아감 저하와 상실은 결국엔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Romero-Canyas, Reddy, Rodriguez, & Downey, 2013). 이는 심리 내적으로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내적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경향을 띠게 되며,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요한 타인의 거부 신호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몰두하는 거부 민감성이 높은 성인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체험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우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본 연구 결과는 제시해준다. 즉, 거부 민감성이 높은 성인이 대인관계에서 거부를 예상하거나 거부를 경험하게 될 때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인한 결과에 먼저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침묵 수준을 우선 살펴봄으로써 자기 침묵이 오히려 피하고자 했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욕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돕는 개입으로, 자신의 내적 체험에 대해서 비 판단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침묵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과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김소정(2014)이 자기 침묵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중 분노 억압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는 자기 침묵이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분노 표출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 침묵이 분노 억제보다 분노 표출과 더 높은 정적상관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표본을 모은 성인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하위요인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같이 묶어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김미선, 2014; 김진선, 2017; 윤명희, 2017),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하위요인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분노의 방향이 안과 밖으로 반대임으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기능이 상반된다는 연구에 따라(Davis, Woodman, & Callow, 2010), 추후 연구에서 이 둘을 나누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희 (2001). **특성 분노 표현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희경 (2006).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혜진 (1994). **청소년 분노 현상의 근거 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성관계 불만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분노 억압 간의 관계 :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2009). **거절 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자기 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2017). **거부 민감성이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분노 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 (2016). **거부 민감성이 자기 침묵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과 타인 인정 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 여대생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

- 계: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2(8), 407-427.
- 양지윤 (2006). 애착유형, 자존감, 자기 침묵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성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월간 중앙 (2017.1.17). 정여울의 ‘셀프 테라피’(2), 왜곡된 자존감, 분노 조절 장애.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226>
- 윤명희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 역량지각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1). 내 외향성 분노 표현 간 관계에서의 정서 조절방략의 조절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김경희, 이흥권 (2014). 거부 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임정민 (2014). 거부 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최소영, 전희선, 이승연 (2017). 남녀 사무직 직장인의 특성분노, 사회적 회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간 관계 : 조직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1), 53-7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7(2), 245.
- Ayduk, Ö., Gyurak, A., & Luerk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 - 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yduk, Ö., Gyurak, A., & Luerk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hen, F., Bollen, K. A., Paxton, P., Curran, P. J., & Kirby, J. B. (2001). Improper solution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uses, consequences, and strateg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 468-508.
- Davis, P. A., Woodman, T., & Callow N.(2010). Better out than in: The influence of anger regulation on physical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5), 457-460.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2.
- Ekman, P., & Friesen, W. V. (1971). Constants across cultures in the face and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24-129.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01), 231-247.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anger management*. Phoenix, Arlzona: Zeig, Tuchker & Theisen Publishers.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 16(1), 97-106.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pp. 251-89). New York: Oxford - University Press.
- Linden W., Hogan, B.E., Rutledge, T., Chawla, A., Lenz, J. W., & Leung, D. (2003). There is more anger coping than "in" or "out". *Emotion, 3*(1), 12-29.
- Pietrzak, J., Downey, G., & Ayduk, O. (2005). Rejection sensitivity as an interpersonal vulnerability. *Interpersonal cognition*, 62-84.
- Romero-Canyas, R., Reddy, K. S., Rodriguez, S., & Downey, G. (2013). After all I have done for you: Self-silencing accommodations fuel women's post-rejection host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4), 732-74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
- Spielberger, C. D.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 disorders*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 Tan, J. & Carfagnini, B. (2008). Self-silencing,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 Prev I nterv Community. 35*(2), 5-18.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s'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ilencing -

Choi, Han-na

Yu, kumlan

Catholic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relationship among rejection sensitivity, self-silencing,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of adults. Particularly,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whether self-silencing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s'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For this purpose, 272 adults ranged from 20 to 49 years old participated in completing online surveys composed of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16 items related to anger-out and anger-in, which were sub-factors from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and Silencing-the Self Scal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silencing and anger-in and anger-out, which were part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and, self-silencing also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in and anger-ou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indirectly affected anger-in and anger-out through self-silencing; this implied self-silencing fully mediated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self-silencing,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rejection sensitivity, self-silencing,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tyle, anger-in, anger-out.*

목 차

I. 서론	63
II. 연구방법	64
1. 조사대상	64
2. 조사도구 및 내용	64
3. 조사기간 및 절차	65
4. 자료 분석 방법	65
III. 연구결과	66
1. 개인신상 관련	66
2. 가정생활 관련	84
3. 기타 생활	94
4. 대학 생활	98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134
6. 이성 및 성 관련	140
7. 상담센터 관련	148
8. 자살 관련	170
IV. 결론	182
<부 록>	
2021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188
2020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현황	192
2021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198
학생생활연구 발간 및 투고 규정	200

표 목차

<표 1> 성별 분포	66
<표 2> 연령 분포	68
<표 3> 건강상태 만족도	70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72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74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76
<표 7> 흡연 경험	78
<표 8> 음주 경험	80
<표 9> 이성교제 경험	82
<표 10> 출신 고교 소재지	84
<표 11>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86
<표 12> 본인의 종교	88
<표 13> 가정의 분위기	90
<표 14>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92
<표 15> 재수경험	94
<표 16> 군 입대 예정시기	96
<표 17> 대학 진학 동기	98
<표 1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100
<표 1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102
<표 20> 학교의 만족도	104
<표 2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106
<표 22> 학부 선택에 결정적 요인	108
<표 23>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110
<표 24> 학부의 결정시기	112
<표 25>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114
<표 2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116
<표 2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118

<표 2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120
<표 2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122
<표 30> 졸업 후 진로계획	124
<표 3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126
<표 3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128
<표 33>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130
<표 34> 졸업 후 진로결과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132
<표 35>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134
<표 36> 핸드폰의 주된 용도	136
<표 37> 인터넷의 주된 용도	138
<표 3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140
<표 3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142
<표 40>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144
<표 4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146
<표 42-1> 외로움	148
<표 42-2> 불안	150
<표 42-3> 분노	152
<표 42-4> 우울·무기력	154
<표 42-5> 자살충동	156
<표 43>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158
<표 44>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160
<표 45>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162
<표 46>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164
<표 47>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166
<표 48> 상담센터 이용 시 받고 싶은 검사	168
<표 49>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170
<표 50>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172
<표 51>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174
<표 52> 자살 충동이 있을 때의 대처	176
<표 53>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178
<표 54>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180

202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엄기영¹⁾

I. 서론

신입생들은 대학입학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통제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교적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다양한 과제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도하기도 한다. 특히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학업,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적합한 진로선택 등의 과업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업을 순조롭게 해나가려면 신입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특성 등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하며, 대학생활의 적응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신입생들이 이러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활의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도 등을 알아보는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들의 복지와 학사 정책 수립, 학생상담과 지도, 학생들의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년에도 신입생들의 적응실태와 신입생들의 특성 및 의식을 파악한 신입생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세우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사지도와 진로 및 취업지도 그리고 인성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2021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448명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입생(10월1일 기준) 510명의 약 87.8%에 해당 된다.

응답자의 성별구성 및 학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2020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중복된 문항은 삭제하고,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PC사용, 이성 및 성(性)관련,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이용, 자살관련 문항으로 8개 영역에 걸쳐, 총 55문항(하위 문항 제외)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주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신상 관련 :

- | | | | |
|----------|------------|------------|----------|
| (1) 학부 | (2) 성별 | (3) 연령 | (4) 건강상태 |
| (5) 대인관계 | (6) 자신의 성격 | (7) 자신의 외모 | (8) 흡연 |
| (9) 음주 | (10) 이성교제 | | |

2) 가정생활 관련 :

- | | | |
|---------------|-----------------------|------------|
| (1) 출신 고교 소재지 | (2)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 (3) 본인의 종교 |
| (4) 가정의 분위기 | (5) 가정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 |

3) 기타 생활 관련 :

- | | |
|-----------|----------------|
| (1) 재수 경험 | (2) 군 입대 예정 시기 |
|-----------|----------------|

4) 대학 생활 관련 :

- | | | |
|-----------------------------------|--------------------------|-----------------|
| (1) 대학 진학 동기 | (2)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 |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
| (4) 본교 입학 만족도 | (5) 입학 불만족 시 향후 계획 | (6) 학부 선택의 결정요인 |
| (7)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 (8) 학부의 결정시기 | |
| (9) 2학년 진학 시(전공학과 선택) 도움 받고자 하는 것 | (10)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 |
| (11)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신청여부 | (12) 교수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것 | |
| (13) 대학생활에서 가장하고 싶은 것 | (14)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
|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 (16) 취업에 대해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 |
| (17) 대학생활 중 걱정되는 부분 | (18) 졸업 후 진로결정의 어려운 부분 | |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 | | |
|---------------------|-------------------|
| (1)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 (2)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 |
|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

6) 이성 및 성(性) 관련 :

- | | |
|----------------------|---------------------|
| (1) 성추행.성희롱.성폭력의 경험 | (2) 9번 문항에 대한 대응방법 |
| (3)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도 | (4)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 |

7) 상담센터 관련:

- | | |
|--------------------------------|---------------------|
| (1) 최근 3개월간의 심리적 상태 | (2) 심리상담가의 필요 여부 |
| (3) 대학 내 갈등해결 위해 심리상담가 요청의도 여부 | |
|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 (6) 상담실 이용 시 희망하는 영역 | (7) 개인상담시 희망하는 상담내용 |

8) 자살 관련:

- | | |
|-----------------------|-------------------------|
| (1) 과거 또는 현재 자살충동 여부 | (2) 자살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 |
| (3) 자살생각이나 충동 시 진행 정도 | (4) 자살 충동이나 생각 시 하는 방법 |
| (5) 위 방법 사용의 효과 | (6) 자살생각 있는 주위사람을 도움 방법 |

3. 조사기간 및 절차

본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 설문조사의 진행이 어려워 2회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1차는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2차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작성 절차는 대면설문지 배포의 어려움으로 인해 네이버 오피스의 설문작성 폼을 사용하여 신입생에게 배포 및 응답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Raw Data)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활용하여 각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개인 신상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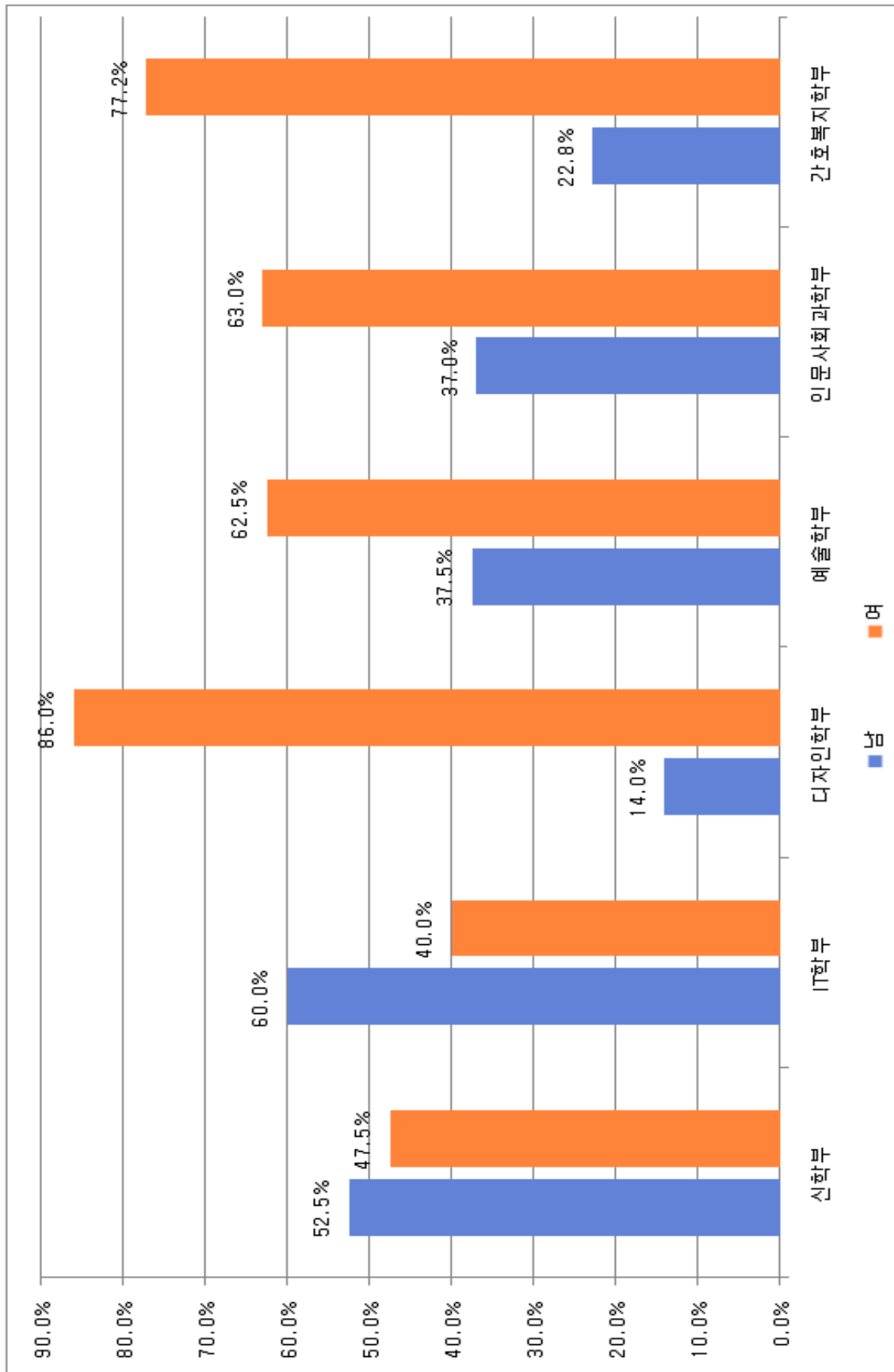
1) 성별 분포

신입생 전체 응답자 448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디자인학부(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표에서와 같이 남학생 33.9%, 여학생 66.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년도 비율(남녀 각각 32.5%, 67.4%)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낮아진 반면, 남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6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52.5%), 예술학부(37.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6.0%), 간호복지학부(77.2%), 인문사회과학부(63.0%) 순이었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	여	전체
신학부	21	19	40
	52.5	47.5	100.0
IT학부	45	30	75
	60.0	40.0	100.0
디자인학부	16	98	114
	14.0	86.0	100.0
예술학부	15	25	40
	37.5	6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37	63	100
	37.0	63.0	100.0
간호복지학부	18	61	79
	22.8	77.2	100.0
전체	152	296	448
	33.9	6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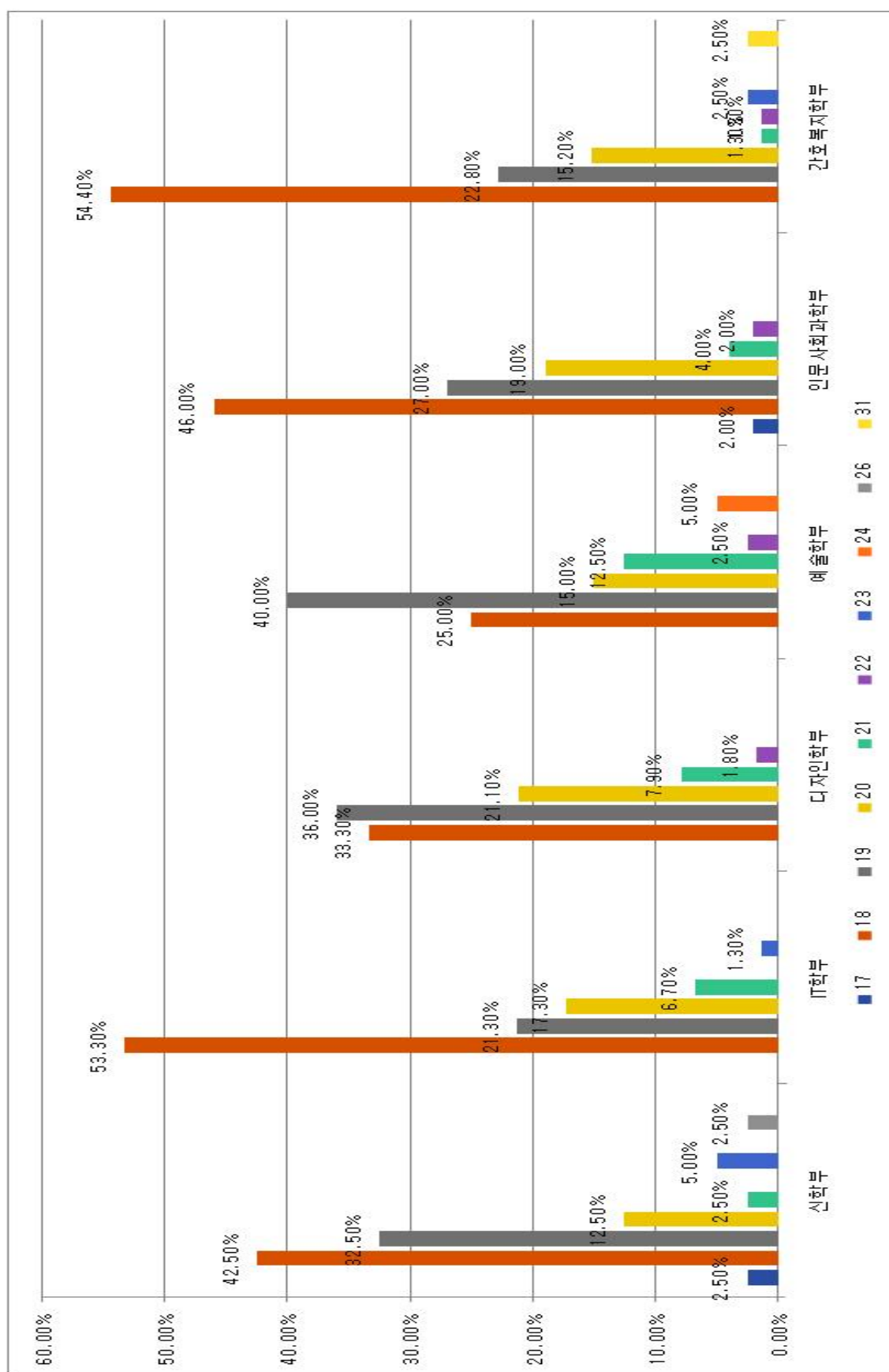
2) 연령 분포

2021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확인한 결과 만 18세(43.3%), 만 19세(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31세의 신입생이 두 명이 있는 특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부별로는 간호복지학부가 54.4%로 만 18세 신입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T학부(53.3%), 인문사회과학부(46.0%)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여학생(44.3%) 비율이 남학생(4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령 분포

단위: 명, %

	17	18	19	20	21	22	23	24	26	31	전체
남	0	63	42	31	7	3	4	1	1	0	152
	0.0	41.4	27.6	20.4	4.6	2.0	2.6	0.7	0.7	0.0	100.0
여	3	131	89	48	18	3	1	1	0	2	296
	1.0	44.3	30.1	16.2	6.1	1.0	0.3	0.3	0.0	0.7	100.0
신학부	1	17	13	5	1	0	2	0	1	0	40
	2.5	42.5	32.5	12.5	2.5	0.0	5.0	0.0	2.5	0.0	100.0
IT학부	0	40	16	13	5	0	1	0	0	0	75
	0.0	53.3	21.3	17.3	6.7	0.0	1.3	0.0	0.0	0.0	100.0
디자인학부	0	38	41	24	9	2	0	0	0	0	114
	0.0	33.3	36.0	21.1	7.9	1.8	0.0	0.0	0.0	0.0	100.0
예술학부	0	10	16	6	5	1	0	2	0	0	40
	0.0	25.0	40.0	15.0	12.5	2.5	0.0	5.0	0.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	46	27	19	4	2	0	0	0	0	100
	2.0	46.0	27.0	19.0	4.0	2.0	0.0	0.0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0	43	18	12	1	1	2	0	0	2	79
	0.0	54.4	22.8	15.2	1.3	1.3	2.5	0.0	0.0	2.5	100.0
전체	3	194	131	79	25	6	5	2	1	2	448
	0.7	43.3	29.2	17.6	5.6	1.3	1.1	0.4	0.2	0.4	100.0



3) 건강상태

신입생들 중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만족(31.7%), 보통(27.7%) 순이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만족(34.1%), 보통 (31.4%), 매우 만족(28.7%)으로, 남학생이 경우도 만족(38.8%), 매우 만족(37.5%) 보통(20.4%), 순으로 응답하여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학생(37.5%)이 여학생(28.7%)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3>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남	57	59	31	5	0	152
	37.5	38.8	20.4	3.3	0.0	100.0
여	85	101	93	16	1	296
	28.7	34.1	31.4	5.4	0.3	100.0
신학부	10	19	11	0	0	40
	25.0	47.5	27.5	0.0	0.0	100.0
IT학부	23	28	21	3	0	75
	30.7	37.3	28.0	4.0	0.0	100.0
디자인학부	33	32	43	5	1	114
	28.9	28.1	37.7	4.4	0.9	100.0
예술학부	16	12	9	3	0	40
	40.0	30.0	22.5	7.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4	39	20	7	0	100
	34.0	39.0	20.0	7.0	0.0	100.0
간호복지학부	26	30	20	3	0	79
	32.9	38.0	25.3	3.8	0.0	100.0
전체	142	160	124	21	1	448
	31.7	35.7	27.7	4.7	0.2	100.0



4)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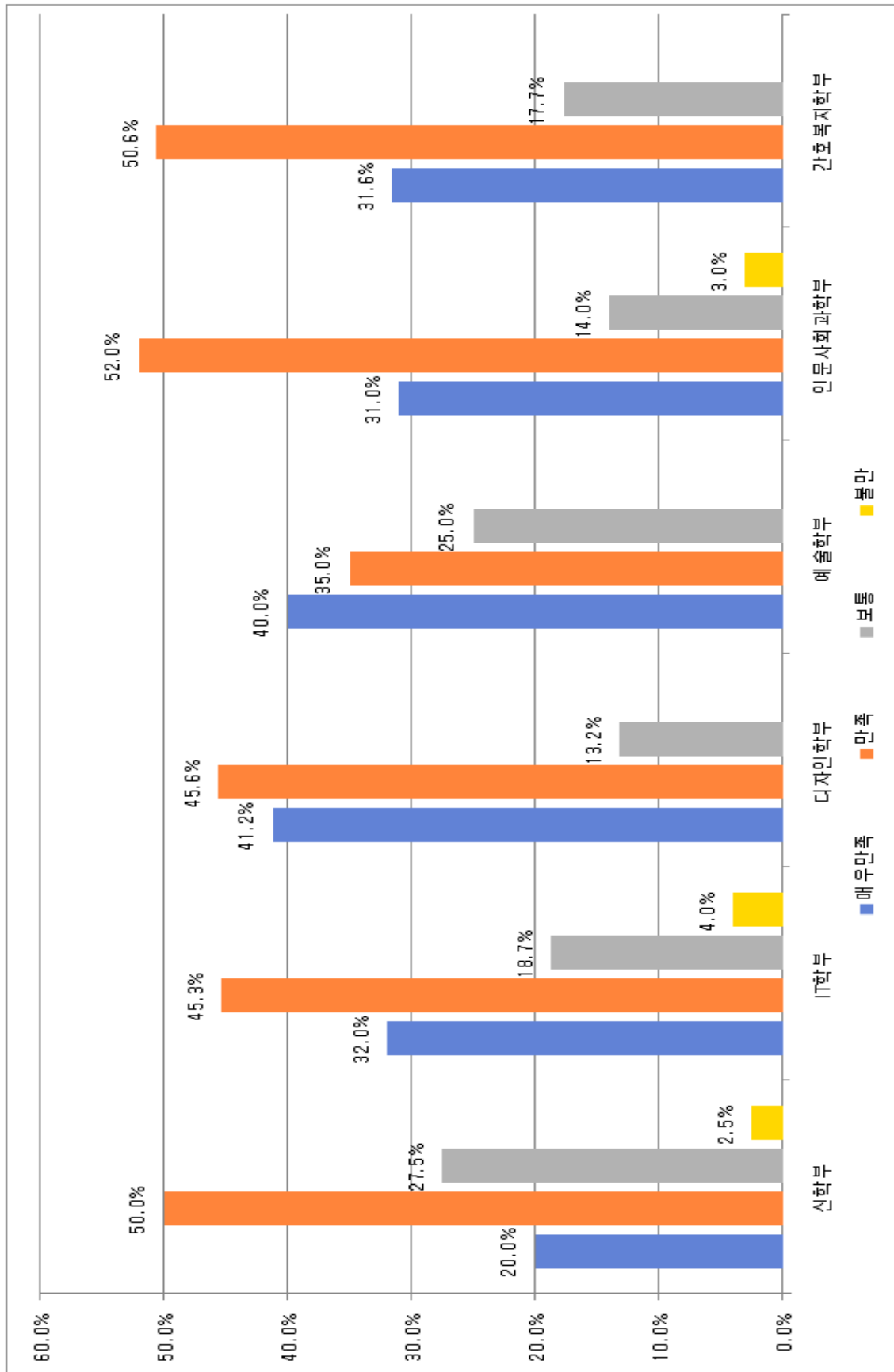
신입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7.3%)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만족(33.7%), 보통(17.4%)이 뒤를 이었다. 대인관계 만족(매우 만족, 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6.8%)였으며 뒤를 이어 인문사회과학부(83.0%), 간호복지학부(82.2%) 순이었다.

전년도 대인관계 만족(매우 만족, 만족)은 71.5%였으나 올해는 81.0%으로 매우 높아진 모습을 보였으며,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도 나오지 않아 전년도에 비해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전체
남	51	71	26	4	152
	33.6	46.7	17.1	2.6	100.0
여	100	141	52	3	296
	33.8	47.6	17.6	1.0	100.0
신학부	8	20	11	1	40
	20.0	50.0	27.5	2.5	100.0
IT학부	24	34	14	3	75
	32.0	45.3	18.7	4.0	100.0
디자인학부	47	52	15	0	114
	41.2	45.6	13.2	0.0	100.0
예술학부	16	14	10	0	40
	40.0	35.0	25.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1	52	14	3	100
	31.0	52.0	14.0	3.0	100.0
간호복지학부	25	40	14	0	79
	31.6	50.6	17.7	0.0	100.0
전체	151	212	78	7	448
	33.7	47.3	17.4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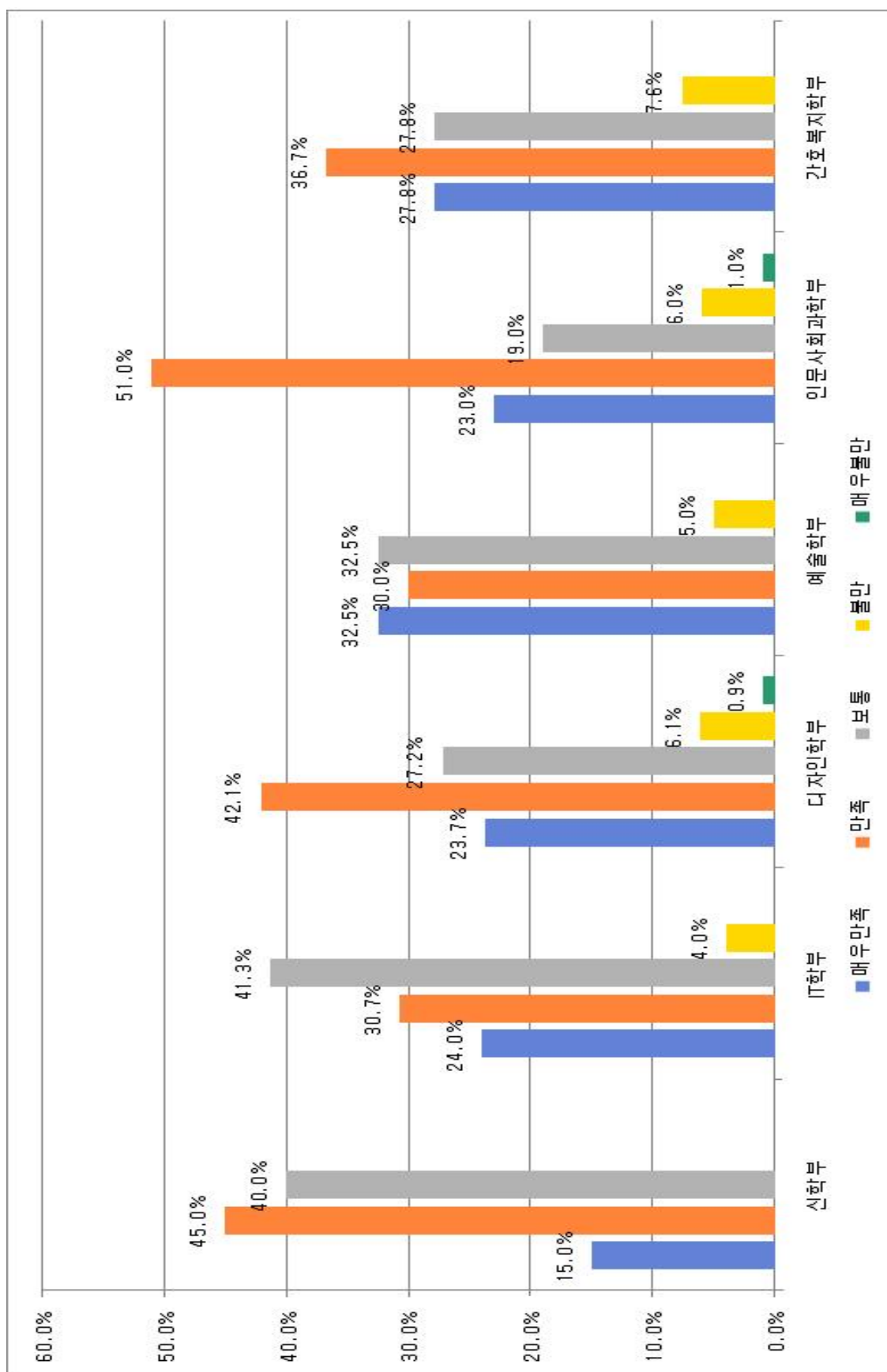
5) 자신의 성격

신입생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29.5%, 매우 만족 2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이상(매우 만족, 만족, 보통)은 9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비교했을 때 자신의 성격을 만족이상(매우 만족,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인문사회과학부(74.0%), 디자인학부(65.8%), 간호복지학부(64.5%), 예술학부(6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만족(매우 만족, 만족)의 비율은 남학생(65.8%), 여학생(64.1%)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남	39	61	46	5	1	152
	25.7	40.1	30.3	3.3	0.7	100.0
여	70	120	86	19	1	296
	23.6	40.5	29.1	6.4	0.3	100.0
신학부	6	18	16	0	0	40
	15.0	45.0	40.0	0.0	0.0	100.0
IT학부	18	23	31	3	0	75
	24.0	30.7	41.3	4.0	0.0	100.0
디자인학부	27	48	31	7	1	114
	23.7	42.1	27.2	6.1	0.9	100.0
예술학부	13	12	13	2	0	40
	32.5	30.0	32.5	5.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3	51	19	6	1	100
	23.0	51.0	19.0	6.0	1.0	100.0
간호복지학부	22	29	22	6	0	79
	27.8	36.7	27.8	7.6	0.0	100.0
전체	109	181	132	24	2	448
	24.3	40.4	29.5	5.4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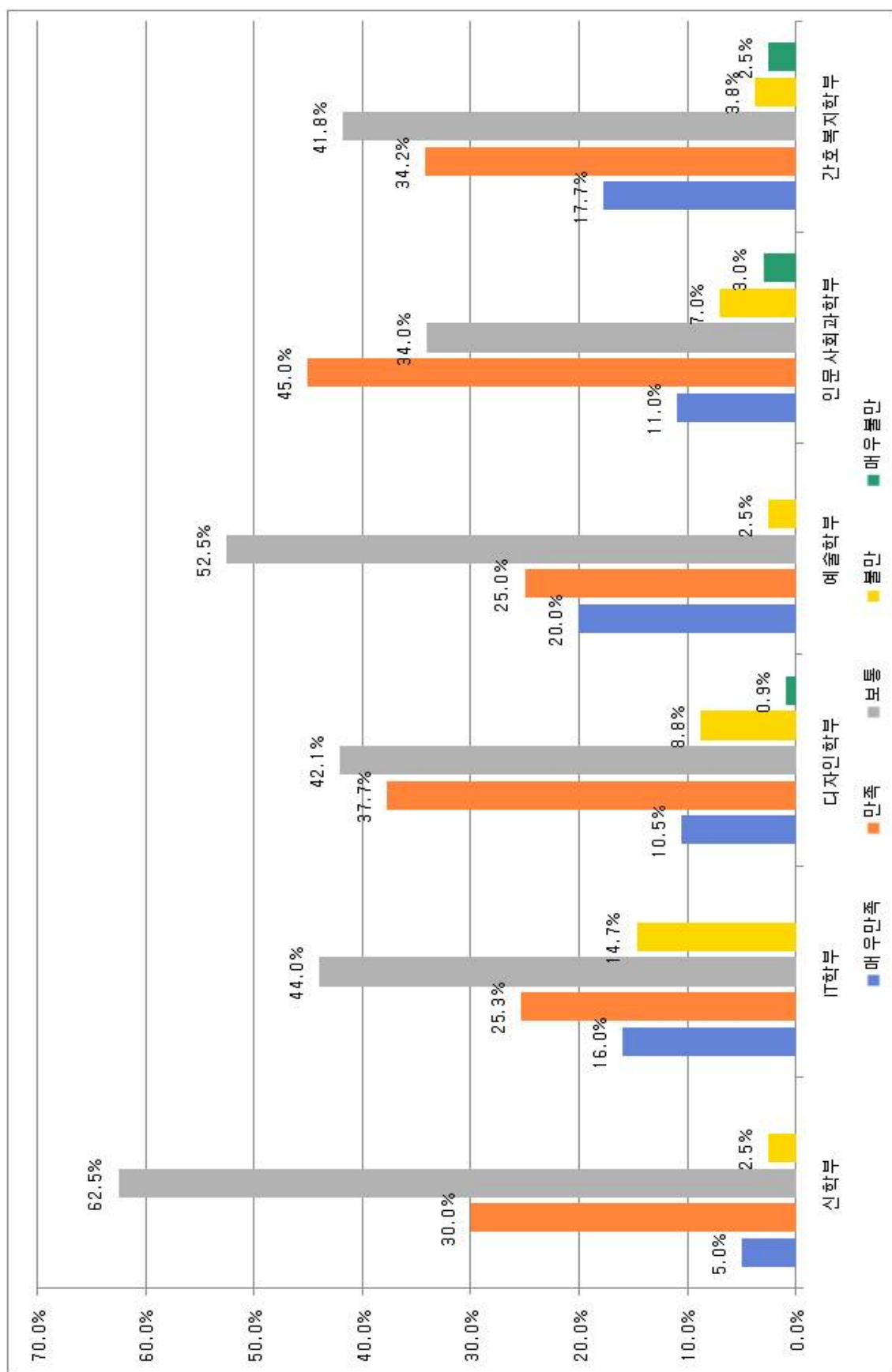
6) 자신의 외모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족 34.8%, 매우 만족 13.2% 순이었다. 학부별로는 신학부 62.5%, 예술학부 52.5% 순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 이상(매우 만족, 만족)은 간호학부 56.0%, 간호복지학부 51.9%, 디자인학부 48.2%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외모에 만족(매우 만족,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45.4%)이 여학생(49.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단위: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남	24	45	68	13	2	152
	15.8	29.6	44.7	8.6	1.3	100.0
여	35	111	126	20	4	296
	11.8	37.5	42.6	6.8	1.4	100.0
신학부	2	12	25	1	0	40
	5.0	30.0	62.5	2.5	0.0	100.0
IT학부	12	19	33	11	0	75
	16.0	25.3	44.0	14.7	0.0	100.0
디자인학부	12	43	48	10	1	114
	10.5	37.7	42.1	8.8	0.9	100.0
예술학부	8	10	21	1	0	40
	20.0	25.0	52.5	2.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1	45	34	7	3	100
	11.0	45.0	34.0	7.0	3.0	100.0
간호복지학부	14	27	33	3	2	79
	17.7	34.2	41.8	3.8	2.5	100.0
전체	59	156	194	33	6	448
	13.2	34.8	43.3	7.4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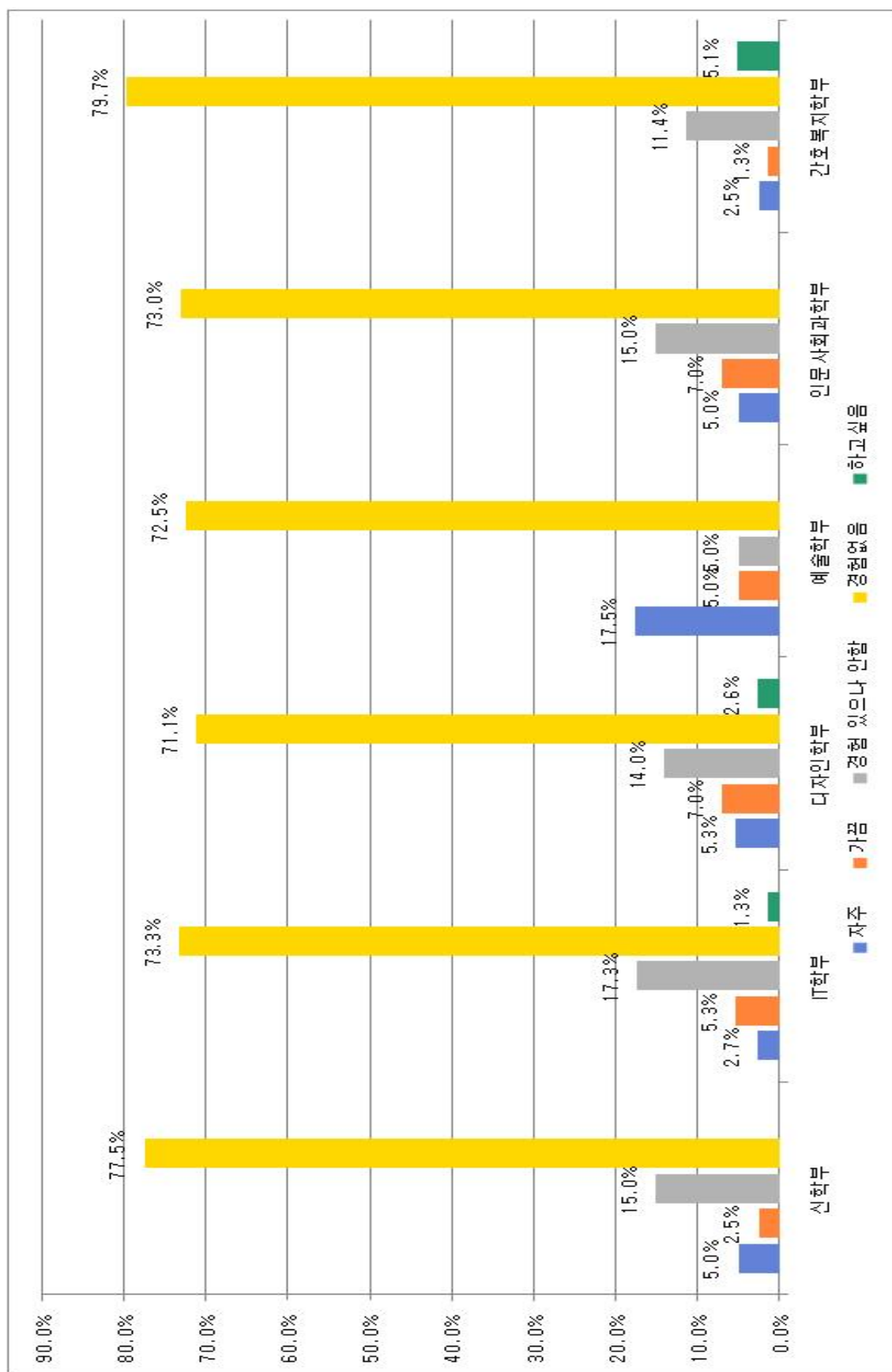
6) 흡연

신입생의 흡연경험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4.1%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자주, 가끔)은 10.5%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자주, 가끔)은 예술학부(22.5%), 디자인학부(12.3%), 인문사회과학부(12.0%)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은 간호복지학부(79.7%), 신학부(77.5%), IT학부(73.3%)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61.2%, 여학생 80.7%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남학생(53.5%)은 높아졌고, 여학생(85.7%)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흡연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있으나 지금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전체
남	18	9	31	93	1	152
	11.8	5.9	20.4	61.2	0.7	100.0
여	6	14	30	239	7	296
	2.0	4.7	10.1	80.7	2.4	100.0
신학부	2	1	6	31	0	40
	5.0	2.5	15.0	77.5	0.0	100.0
IT학부	2	4	13	55	1	75
	2.7	5.3	17.3	73.3	1.3	100.0
디자인학부	6	8	16	81	3	114
	5.3	7.0	14.0	71.1	2.6	100.0
예술학부	7	2	2	29	0	40
	17.5	5.0	5.0	72.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5	7	15	73	0	100
	5.0	7.0	15.0	73.0	0.0	100.0
간호복지학부	2	1	9	63	4	79
	2.5	1.3	11.4	79.7	5.1	100.0
전체	24	23	61	332	8	448
	5.4	5.1	13.6	74.1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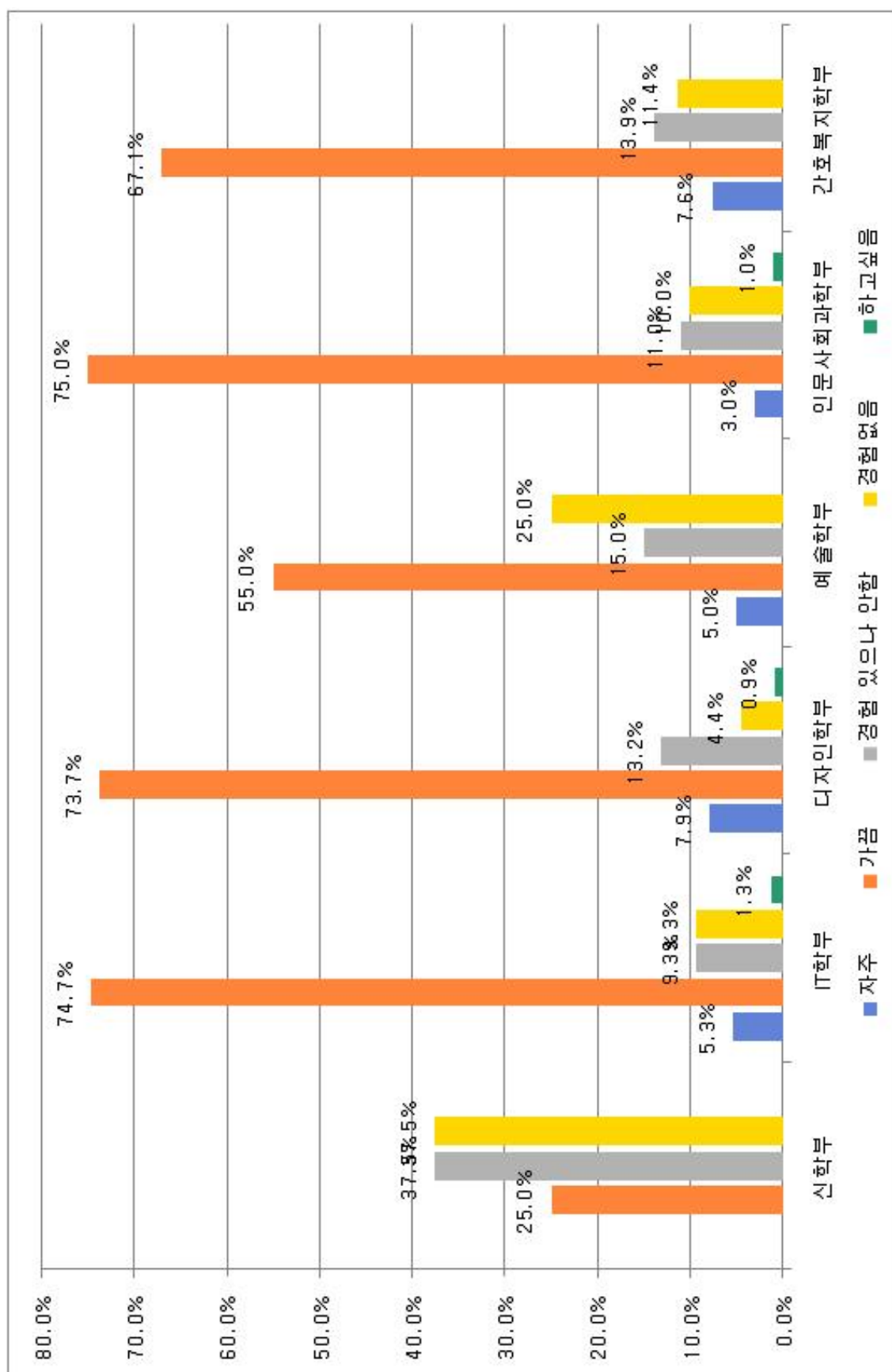
7) 음주

신입생들의 음주 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의 86.9%가 음주의 경험(자주, 가끔,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안함)이 있으며, 전체의 72.4%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 음주 경험을 보면 디자인학부가 94.8%, IT학부 89.3%, 인문사회과학부 89.0%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의 경우 경험 없음이 37.5%,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7.5%로 다른 학부에 비해 음주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주를 하는 비율(자주, 가끔)이 남학생 67.8%, 여학생 74.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주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있으나 지금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전체
남	10	93	25	23	1	152
	6.6	61.2	16.4	15.1	0.7	100.0
여	14	207	40	33	2	296
	4.7	69.9	13.5	11.1	0.7	100.0
신학부	0	10	15	15	0	40
	0.0	25.0	37.5	37.5	0.0	100.0
IT학부	4	56	7	7	1	75
	5.3	74.7	9.3	9.3	1.3	100.0
디자인학부	9	84	15	5	1	114
	7.9	73.7	13.2	4.4	0.9	100.0
예술학부	2	22	6	10	0	40
	5.0	55.0	15.0	25.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	75	11	10	1	100
	3.0	75.0	11.0	10.0	1.0	100.0
간호복지학부	6	53	11	9	0	79
	7.6	67.1	13.9	11.4	0.0	100.0
전체	24	300	65	56	3	448
	5.4	67.0	14.5	12.5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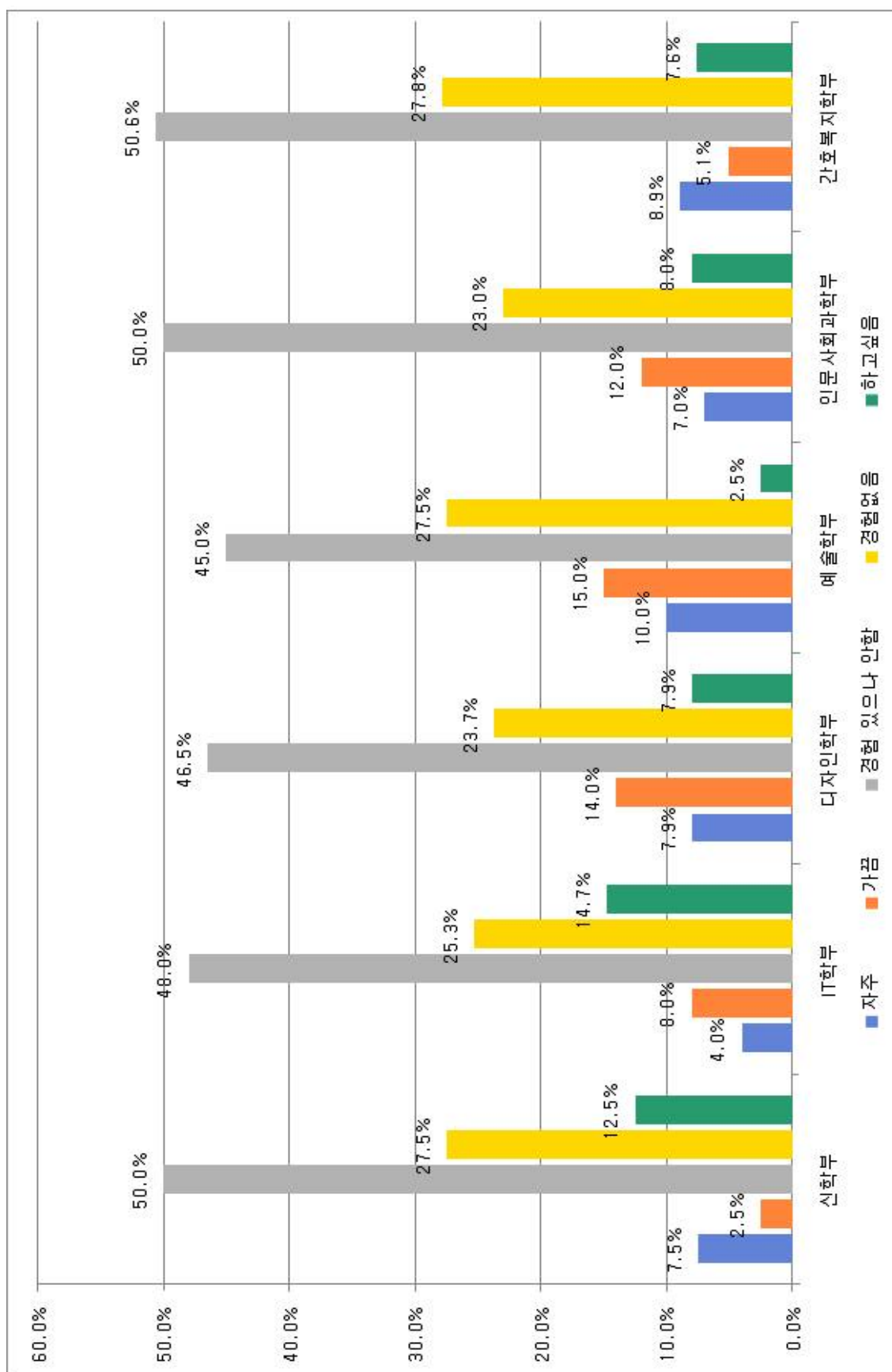
8) 연애

신입생들의 연애행정정도를 살펴보면, 연애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험 없음 25.2%, 가끔 10.0%, 하고싶음 8.9%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 50.6%, 인문사회과학부, 신학부가 50.0%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 47.0%, 남학생 51.3%로 남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 이성교제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있으나 지금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전체
남	11	10	78	33	20	152
	7.2	6.6	51.3	21.7	13.2	100.0
여	22	35	139	80	20	296
	7.4	11.8	47.0	27.0	6.8	100.0
신학부	3	1	20	11	5	40
	7.5	2.5	50.0	27.5	12.5	100.0
IT학부	3	6	36	19	11	75
	4.0	8.0	48.0	25.3	14.7	100.0
디자인학부	9	16	53	27	9	114
	7.9	14.0	46.5	23.7	7.9	100.0
예술학부	4	6	18	11	1	40
	10.0	15.0	45.0	27.5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7	12	50	23	8	100
	7.0	12.0	50.0	23.0	8.0	100.0
간호복지학부	7	4	40	22	6	79
	8.9	5.1	50.6	27.8	7.6	100.0
전체	33	45	217	113	40	448
	7.4	10.0	48.4	25.2	8.9	100.0



2. 가정생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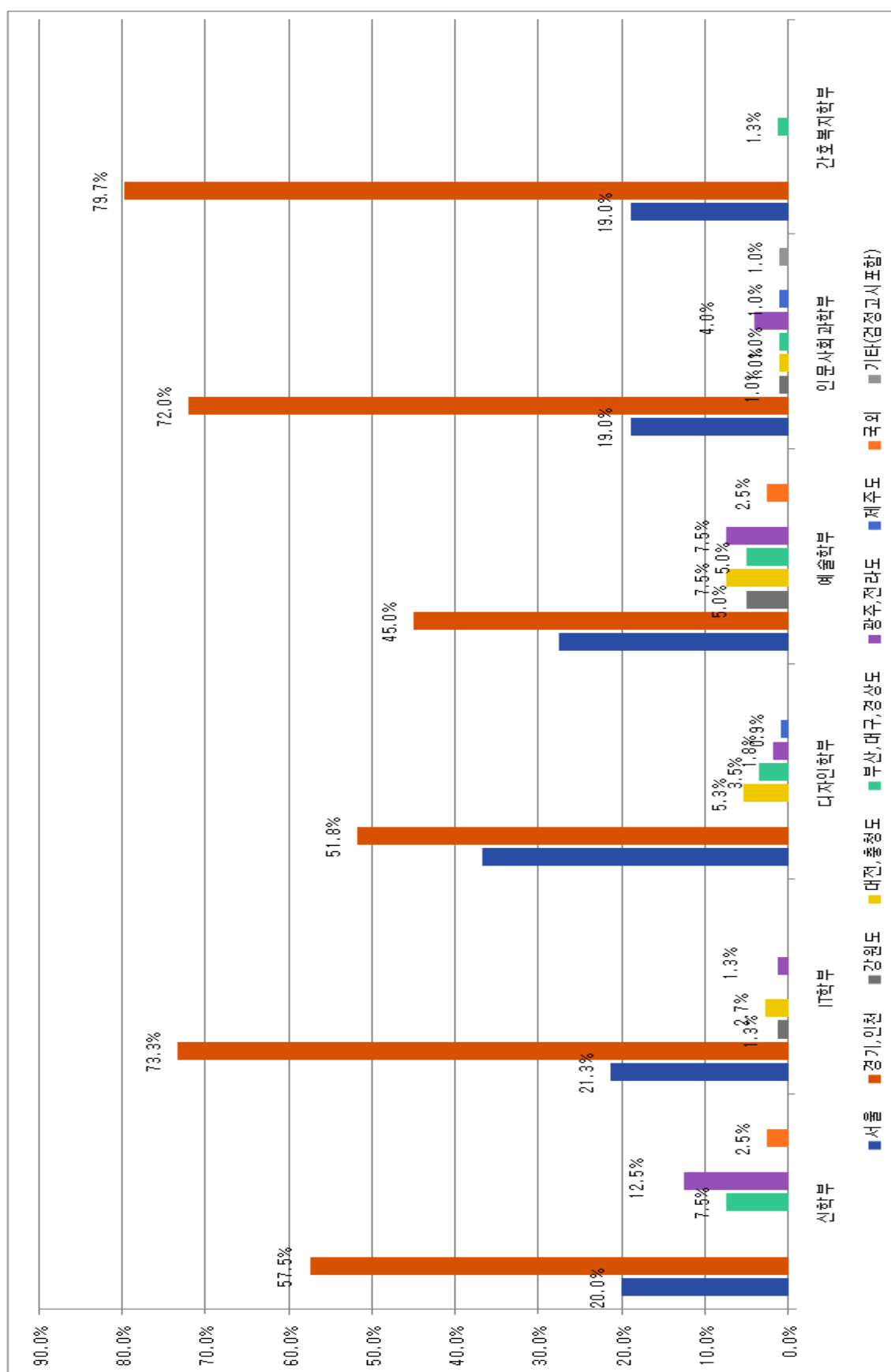
1) 출신고교 소재지

신입생들이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 24.8%, 대전, 충청 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경기, 인천지역 출신은 간호복지학부가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IT학부 73.3%, 인문사회과학 7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출신은 디자인학부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학부 27.5%, IT학부 2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64.2%, 남학생의 65.8%가 경기, 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하였다.

<표 10> 출신 고교 소재지

단위: 명, %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전, 충청도	부산, 대구, 경상도	광주, 전라도	제주도	국외	기타	전체
남	31	100	3	7	3	5	1	2	0	152
	20.4	65.8	2.0	4.6	2.0	3.3	0.7	1.3	0.0	100.0
여	80	190	1	5	8	10	1	0	1	296
	27.0	64.2	0.3	1.7	2.7	3.4	0.3	0.0	0.3	100.0
신학부	8	23	0	0	3	5	0	1	0	40
	20.0	57.5	0.0	0.0	7.5	12.5	0.0	2.5	0.0	100.0
IT학부	16	55	1	2	0	1	0	0	0	75
	21.3	73.3	1.3	2.7	0.0	1.3	0.0	0.0	0.0	100.0
디자인 학부	42	59	0	6	4	2	1	0	0	114
	36.8	51.8	0.0	5.3	3.5	1.8	0.9	0.0	0.0	100.0
예술학부	11	18	2	3	2	3	0	1	0	40
	27.5	45.0	5.0	7.5	5.0	7.5	0.0	2.5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9	72	1	1	1	4	1	0	1	100
	19.0	72.0	1.0	1.0	1.0	4.0	1.0	0.0	1.0	100.0
간호복지 학부	15	63	0	0	1	0	0	0	0	79
	19.0	79.7	0.0	0.0	1.3	0.0	0.0	0.0	0.0	100.0
전체	111	290	4	12	11	15	2	2	1	448
	24.8	64.7	0.9	2.7	2.5	3.3	0.4	0.4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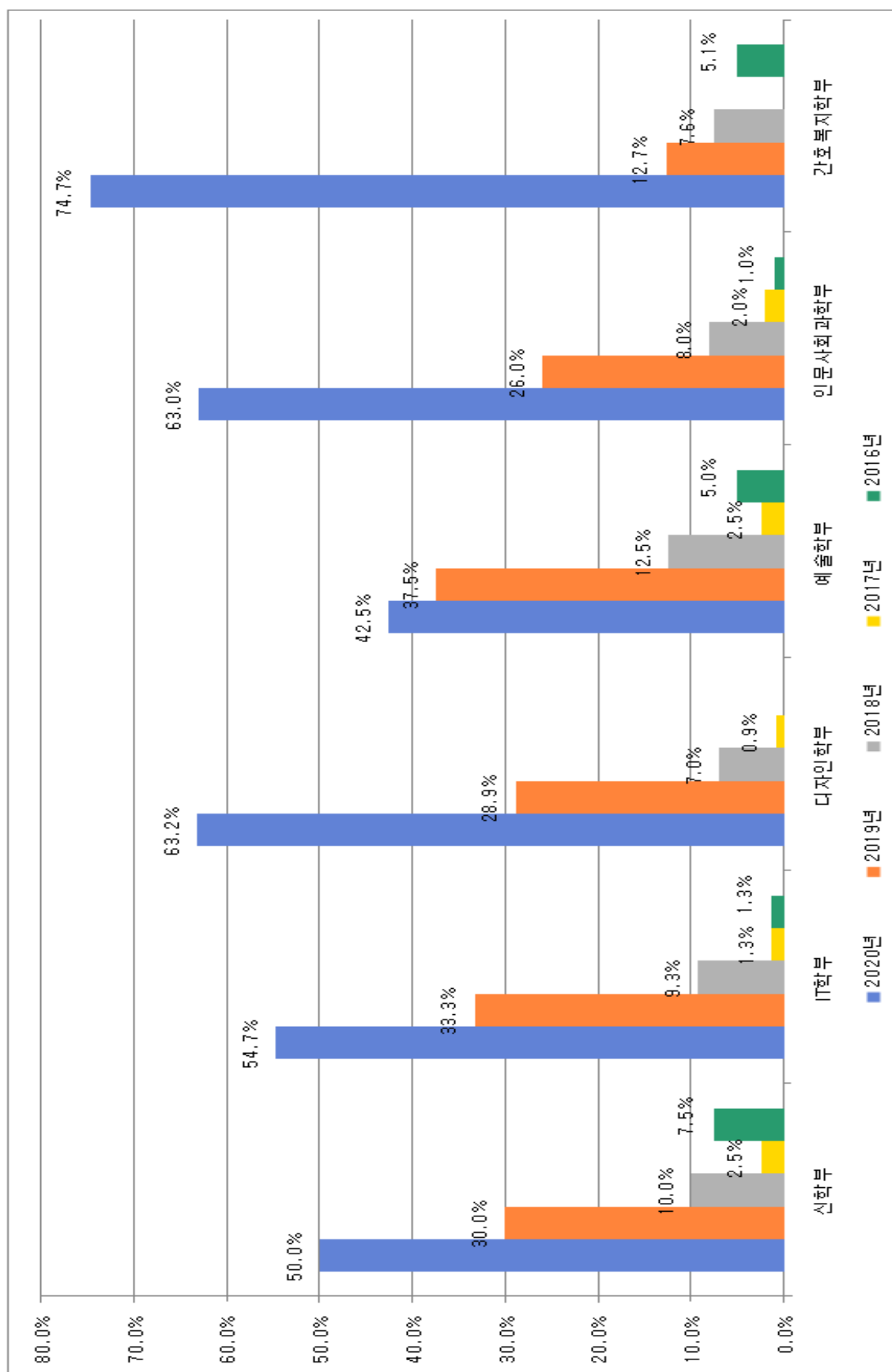
2)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신입생들의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는 2021년도가 60.7%로 가장 많았고, 2020년 27.0%, 2019년 8.5% 순이었다. 고교졸업이 2021년도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 74.7%, 디자인학부 63.2%, 인문사회과학부 6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 63.2%, 남학생 55.9%로 확인되었다.

<표 11>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단위: 명, %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전	전체
남	85	47	12	1	7	152
	55.9	30.9	7.9	0.7	4.6	100.0
여	187	74	26	5	4	296
	63.2	25.0	8.8	1.7	1.4	100.0
신학부	20	12	4	1	3	40
	50.0	30.0	10.0	2.5	7.5	100.0
IT학부	41	25	7	1	1	75
	54.7	33.3	9.3	1.3	1.3	100.0
디자인학부	72	33	8	1	0	114
	63.2	28.9	7.0	0.9	0.0	100.0
예술학부	17	15	5	1	2	40
	42.5	37.5	12.5	2.5	5.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63	26	8	2	1	100
	63.0	26.0	8.0	2.0	1.0	100.0
간호복지학부	59	10	6	0	4	79
	74.7	12.7	7.6	0.0	5.1	100.0
전체	272	121	38	6	11	448
	60.7	27.0	8.5	1.3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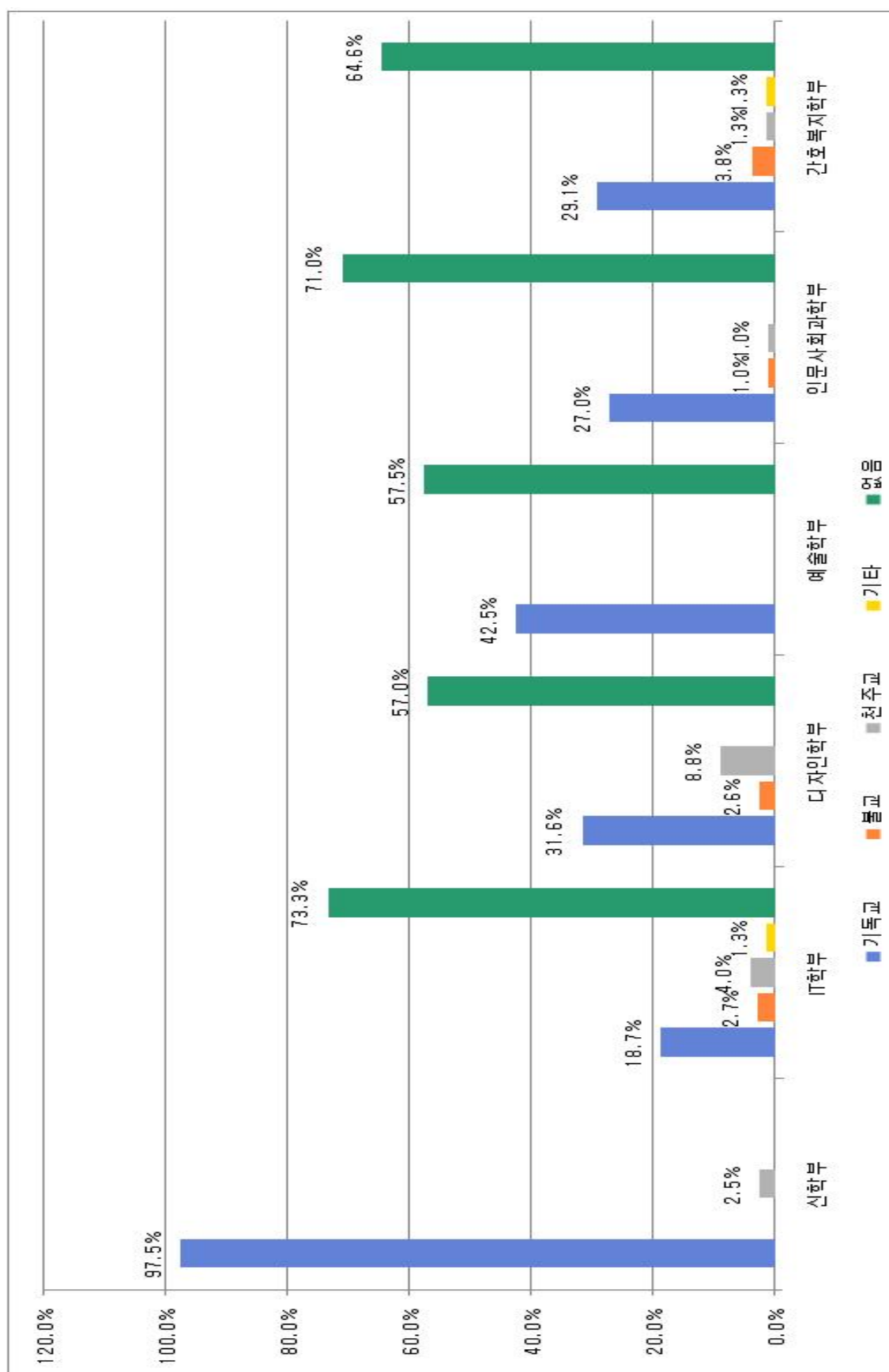
3)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 34.8%, 천주교 3.6%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는 기독교 97.5%, 예술학부도 42.5%가 기독교라고 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종교없음 59.2%, 기독교 40.8% 여학생은 종교없음 59.1%, 기독교 31.8% 천주교 5.4%로 나타나 남녀 모두 종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12> 본인의 종교

단위: 명, %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전체
남	62	0	0	0	90	152
	40.8	0.0	0.0	0.0	59.2	100.0
여	94	9	16	2	175	296
	31.8	3.0	5.4	0.7	59.1	100.0
신학부	39	0	1	0	0	40
	97.5	0.0	2.5	0.0	0.0	100.0
IT학부	14	2	3	1	55	75
	18.7	2.7	4.0	1.3	73.3	100.0
디자인학부	36	3	10	0	65	114
	31.6	2.6	8.8	0.0	57.0	100.0
예술학부	17	0	0	0	23	40
	42.5	0.0	0.0	0.0	5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27	1	1	0	71	100
	27.0	1.0	1.0	0.0	71.0	100.0
간호복지학부	23	3	1	1	51	79
	29.1	3.8	1.3	1.3	64.6	100.0
전체	156	9	16	2	265	448
	34.8	2.0	3.6	0.4	5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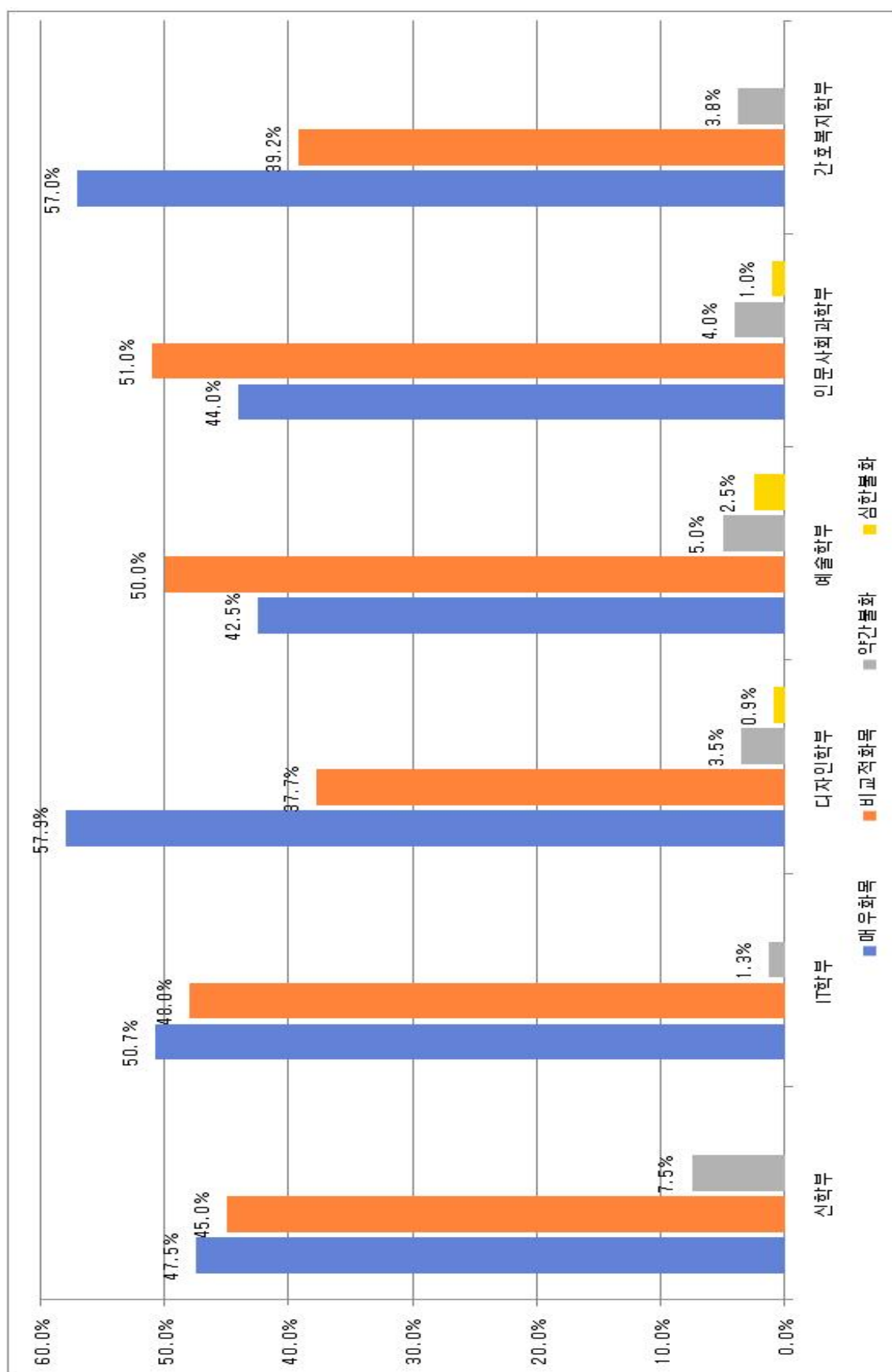
4)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화목하다 51.1%, 비교적 화목하다 44.4%,로 응답했다. 학부별로 화목하다(매우 화목, 비교적 화목)는 응답을 보면 IT학부 98.7%, 간호복지학부 96.2%, 디자인학부 95.6%, 인문사회과학부 95.0% 순으로 답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94.8%, 여학생 96.0%로 확인되었다.

<표 13> 가정의 분위기

단위: 명, %

	매우화목	비교적화목	약간불화	심한불화	전체
남	77	67	7	1	152
	50.7	44.1	4.6	0.7	100.0
여	152	132	10	2	296
	51.4	44.6	3.4	0.7	100.0
신학부	19	18	3	0	40
	47.5	45.0	7.5	0.0	100.0
IT학부	38	36	1	0	75
	50.7	48.0	1.3	0.0	100.0
디자인학부	66	43	4	1	114
	57.9	37.7	3.5	0.9	100.0
예술학부	17	20	2	1	40
	42.5	50.0	5.0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44	51	4	1	100
	44.0	51.0	4.0	1.0	100.0
간호복지학부	45	31	3	0	79
	57.0	39.2	3.8	0.0	100.0
전체	229	199	17	3	448
	51.1	44.4	3.8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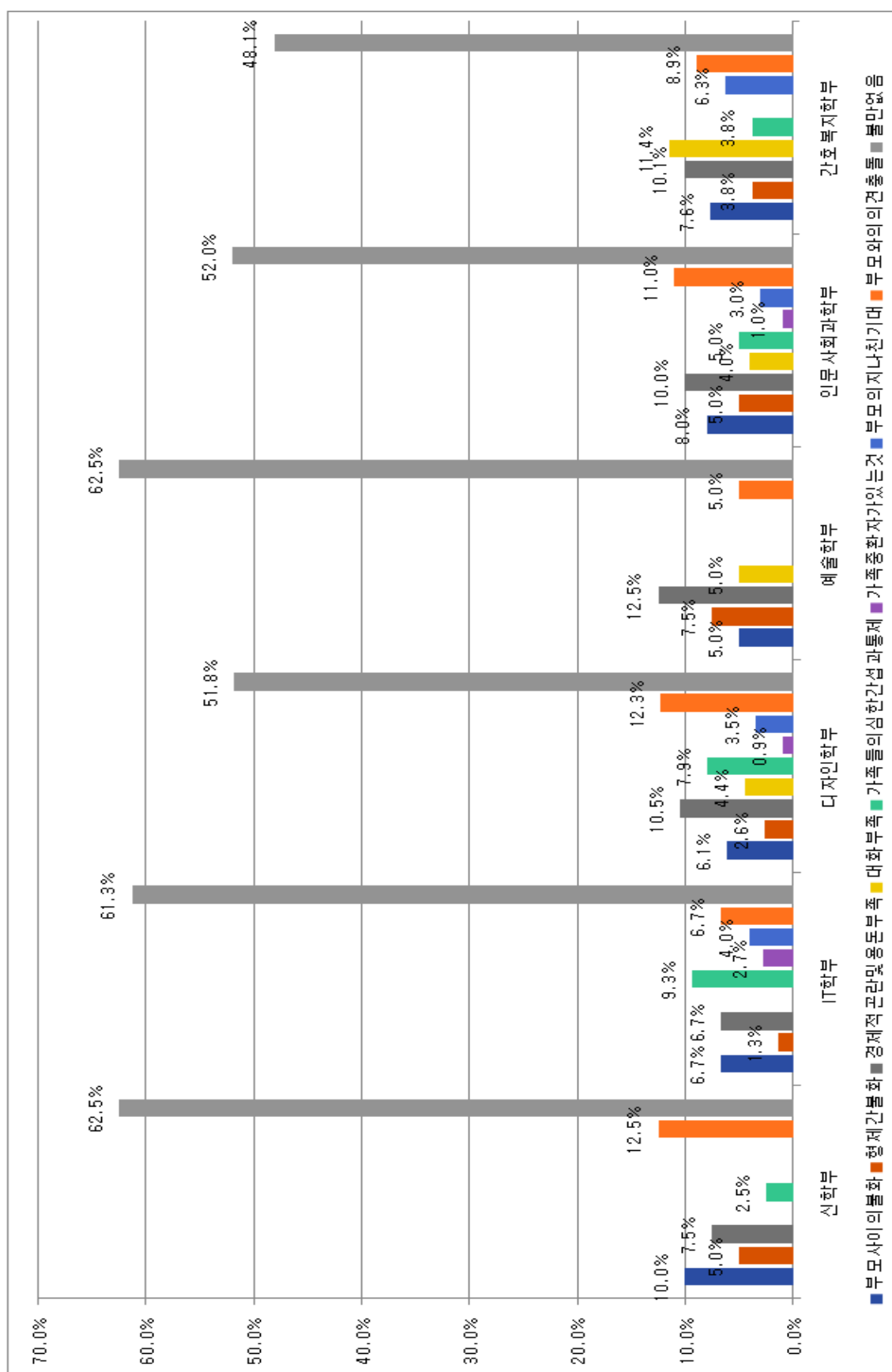
5)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신입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모와의 의견충돌 9.8%,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9.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불만 없음 비율을 살펴보면 신학부와 예술학부 62.5%, IT학부 6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복지학부가 4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60.5%, 여학생 51.7%로 가정에 대해 불만 없음으로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경제적 곤란 및 용돈부족이 9.2%로,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견충돌이 10.5%로 나타났다.

<표 14>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단위: 명, %

	부모 사이의 불화	형제간 불화	경제적 곤란및 용돈 부족	대화 부족	가족 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가족중 환자가 있는것	부모의 지나친 기대	부모 와의 의견 충돌	불만 없음	기타	전체
남	10	5	14	9	6	1	2	13	92	0	152
	6.6	3.3	9.2	5.9	3.9	0.7	1.3	8.6	60.5	0.0	100.0
여	22	12	29	11	19	3	13	31	153	3	296
	7.4	4.1	9.8	3.7	6.4	1.0	4.4	10.5	51.7	1.0	100.0
신학부	4	2	3	0	1	0	0	5	25	0	40
	10.0	5.0	7.5	0.0	2.5	0.0	0.0	12.5	62.5	0.0	100.0
IT학부	5	1	5	0	7	2	3	5	46	1	75
	6.7	1.3	6.7	0.0	9.3	2.7	4.0	6.7	61.3	1.3	100.0
디자인 학부	7	3	12	5	9	1	4	14	59	0	114
	6.1	2.6	10.5	4.4	7.9	0.9	3.5	12.3	51.8	0.0	100.0
예술 학부	2	3	5	2	0	0	0	2	25	1	40
	5.0	7.5	12.5	5.0	0.0	0.0	0.0	5.0	62.5	2.5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8	5	10	4	5	1	3	11	52	1	100
	8.0	5.0	10.0	4.0	5.0	1.0	3.0	11.0	52.0	1.0	100.0
간호 복지 학부	6	3	8	9	3	0	5	7	38	0	79
	7.6	3.8	10.1	11.4	3.8	0.0	6.3	8.9	48.1	0.0	100.0
전체	32	17	43	20	25	4	15	44	245	3	448
	7.1	3.8	9.6	4.5	5.6	0.9	3.3	9.8	54.7	0.7	100.0



3. 기타 생활

1) 재수경험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21.4%로 전년도 25.3%보다 다소 낮아졌다.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 82.3%, 인문사회과학부 80.0%, 신학부 7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77.6%, 여학생 70.6%가 재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15> 재수 경험

단위: 명, %

	없음	재수	삼수	사수이상	전체
남	118	29	4	1	152
	77.6	19.1	2.6	0.7	100.0
여	209	67	19	1	296
	70.6	22.6	6.4	0.3	100.0
신학부	30	9	1	0	40
	75.0	22.5	2.5	0.0	100.0
IT학부	51	16	7	1	75
	68.0	21.3	9.3	1.3	100.0
디자인학부	77	33	4	0	114
	67.5	28.9	3.5	0.0	100.0
예술학부	24	12	3	1	40
	60.0	30.0	7.5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80	16	4	0	100
	80.0	16.0	4.0	0.0	100.0
간호복지학부	65	10	4	0	79
	82.3	12.7	5.1	0.0	100.0
전체	327	96	23	2	448
	73.0	21.4	5.1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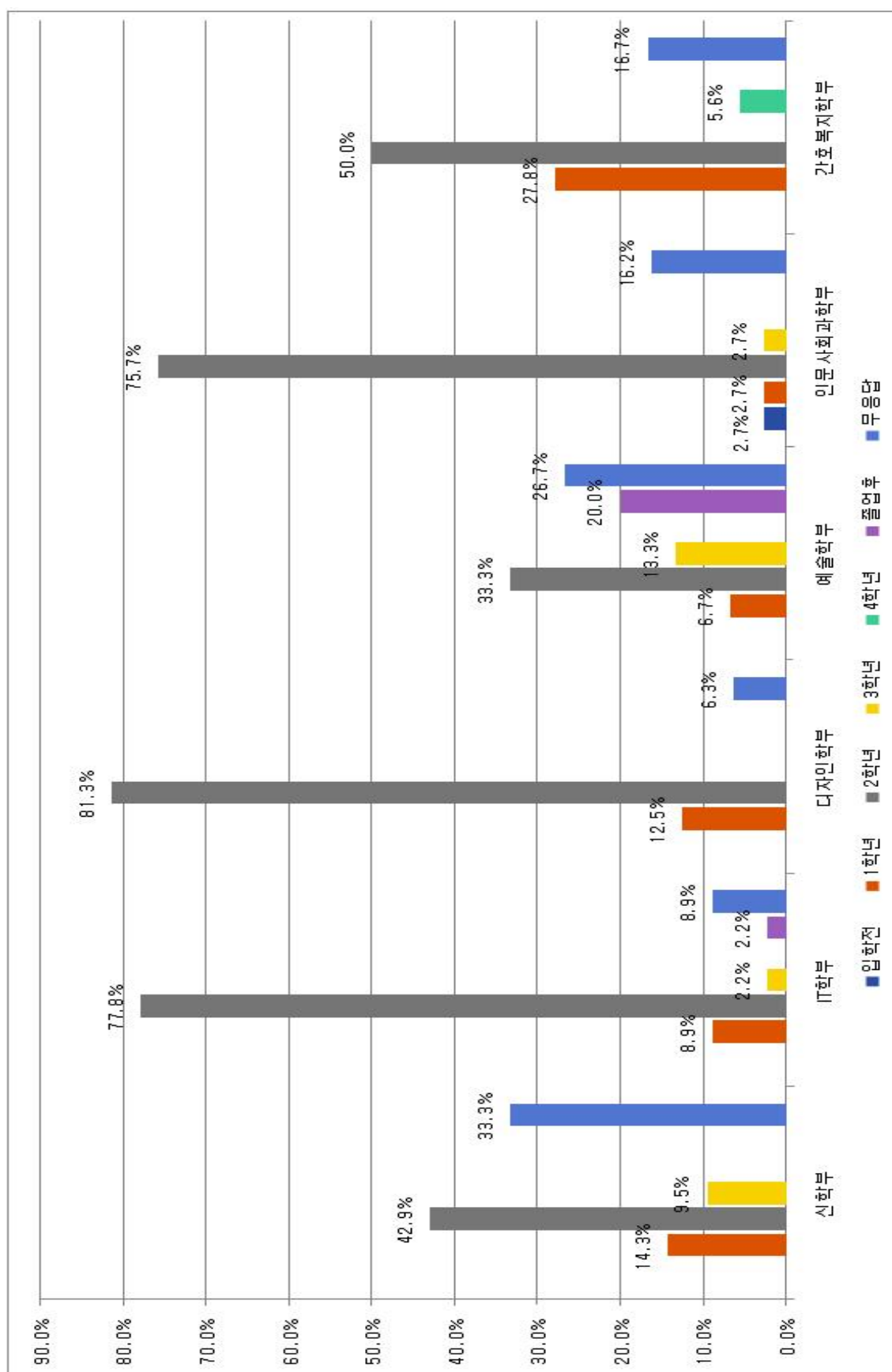
2) 군 입대 예정시기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는 남학생 152명이 응답했으며, 이들 중 25명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또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학생이 65.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의 65.7%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 81.3%, IT학부 77.8% 인문사회과학부 75.7% 순서로 나타났다.

<표 16> 군입대 예정시기

단위: 명, %

	입학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후	무응답	전체
남	1	16	99	6	1	4	25	152
	0.7	10.5	65.1	3.9	0.7	2.6	16.4	100.0
신학부	0	3	9	2	0	0	7	21
	0.0	14.3	42.9	9.5	0.0	0.0	33.3	100.0
IT학부	0	4	35	1	0	1	4	45
	0.0	8.9	77.8	2.2	0.0	2.2	8.9	100.0
디자인학부	0	2	13	0	0	0	1	16
	0.0	12.5	81.3	0.0	0.0	0.0	6.3	100.0
예술학부	0	1	5	2	0	3	4	15
	0.0	6.7	33.3	13.3	0.0	20.0	26.7	100.0
인문사회과학부	1	1	28	1	0	0	6	37
	2.7	2.7	75.7	2.7	0.0	0.0	16.2	100.0
간호복지학부	0	5	9	0	1	0	3	18
	0.0	27.8	50.0	0.0	5.6	0.0	16.7	100.0
전`체	1	16	99	6	1	4	25	152
	0.7	10.5	65.1	3.9	0.7	2.6	16.4	100.0



4. 대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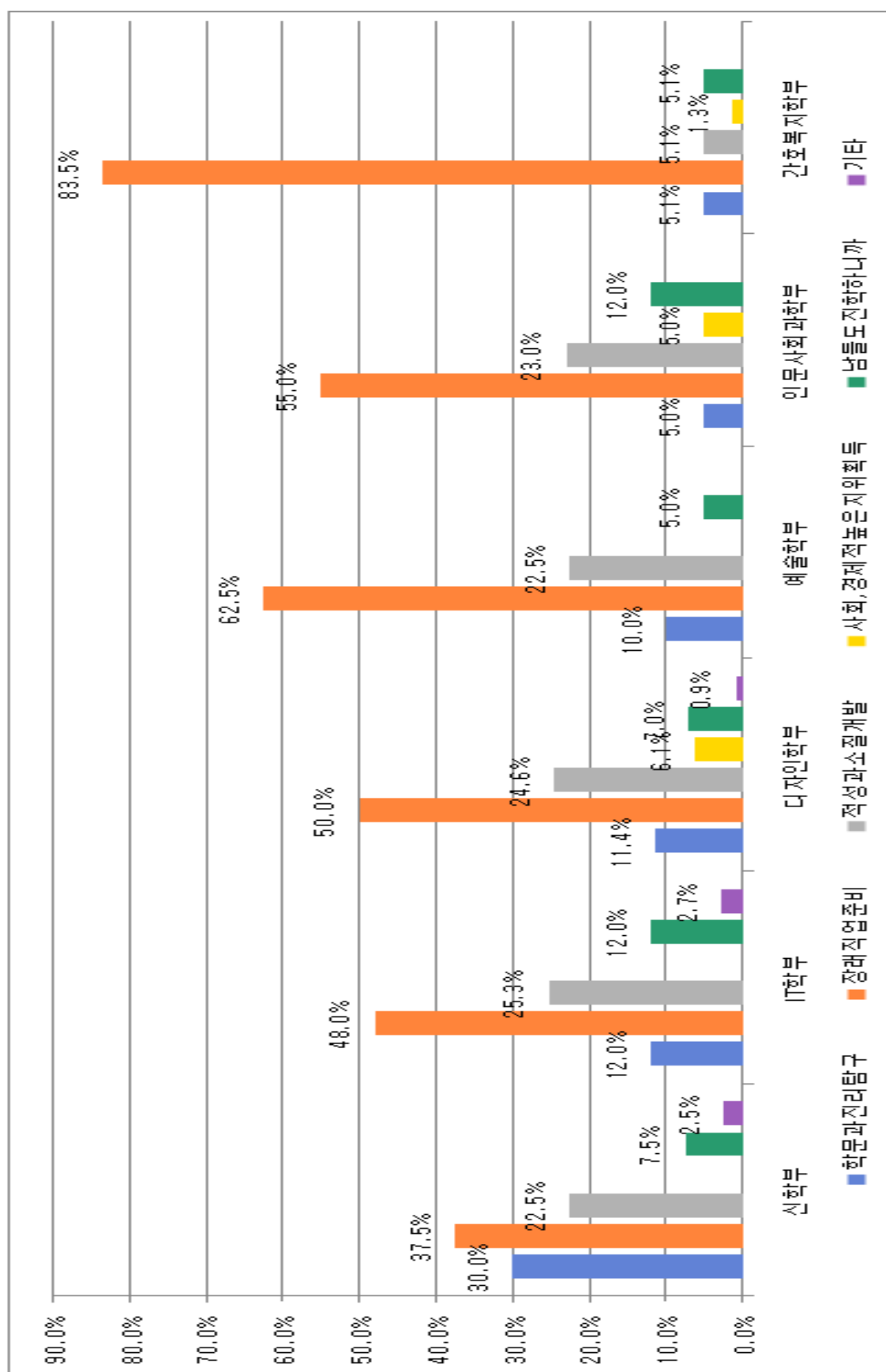
1) 대학 진학 동기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6.7%가 장래직업준비라고 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성과 소질개발 20.5%, 학문과 진리탐구 10.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장래직업준비를 위해 진학했다는 응답에 간호복지학부 83.5%, 예술학부 62.5%, 인문사회과학부 5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 57.8%, 남학생 54.6% 모두 장래직업준비를 위해 진학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 대학 진학 동기

단위: 명, %

	학문과 진리탐구	장래직업 준비	적성과 소질개발	사회, 경제적 높은지위 획득	남들도 진학 하니까	기타	전체
남	25	83	34	3	5	2	152
	16.4	54.6	22.4	2.0	3.3	1.3	100.0
여	22	171	58	10	33	2	296
	7.4	57.8	19.6	3.4	11.1	0.7	100.0
신학부	12	15	9	0	3	1	40
	30.0	37.5	22.5	0.0	7.5	2.5	100.0
IT학부	9	36	19	0	9	2	75
	12.0	48.0	25.3	0.0	12.0	2.7	100.0
디자인 학부	13	57	28	7	8	1	114
	11.4	50.0	24.6	6.1	7.0	0.9	100.0
예술학부	4	25	9	0	2	0	40
	10.0	62.5	22.5	0.0	5.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5	55	23	5	12	0	100
	5.0	55.0	23.0	5.0	12.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4	66	4	1	4	0	79
	5.1	83.5	5.1	1.3	5.1	0.0	100.0
전체	47	254	92	13	38	4	448
	10.5	56.7	20.5	2.9	8.5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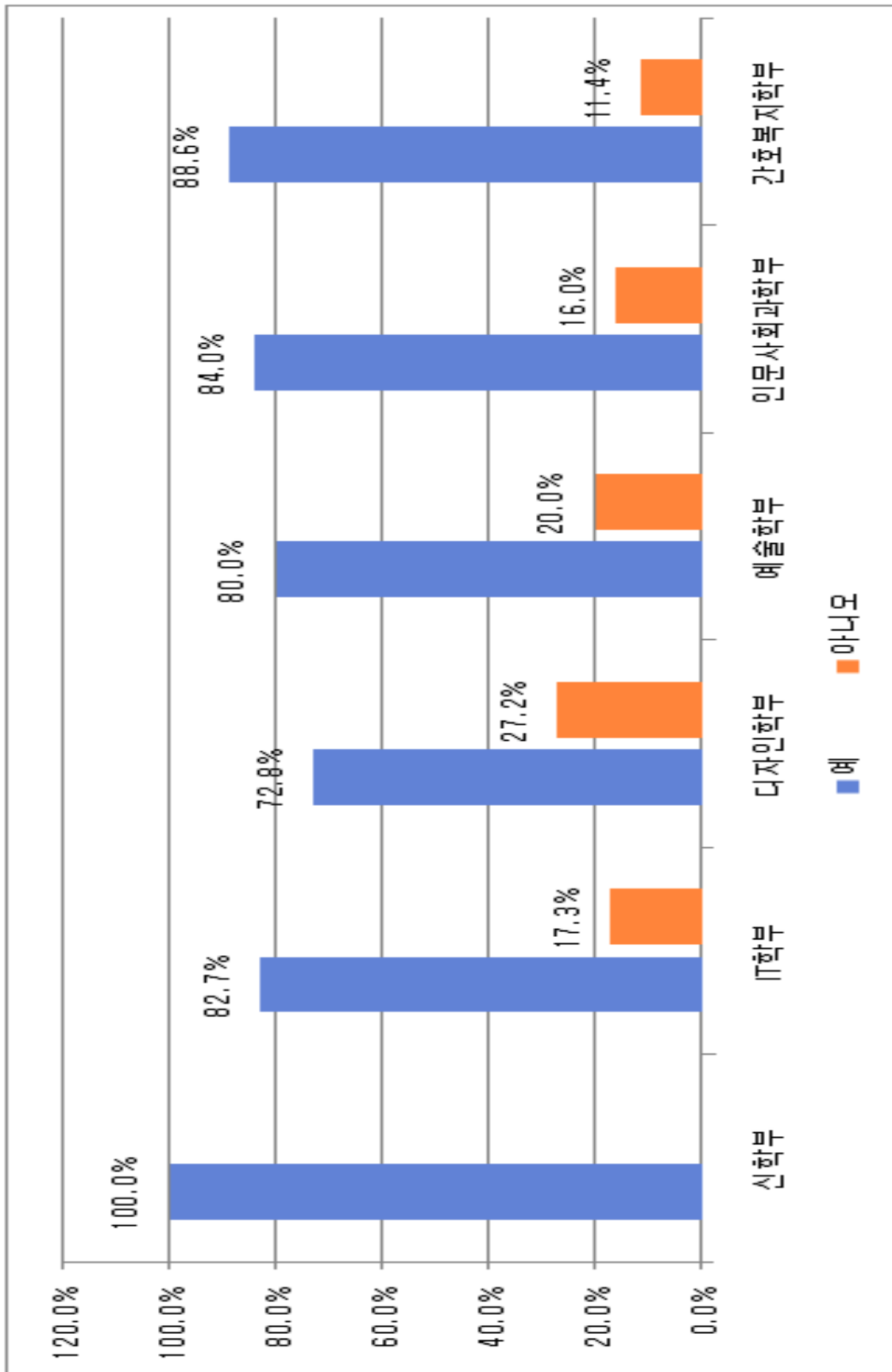


2)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2.8%가 기독교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학부는 신학부(10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복지학부(88.6%), 인문사회과학부(8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82.2%, 여학생 83.1%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25	27	152
	82.2	17.8	100.0
여	246	50	296
	83.1	16.9	100.0
신학부	40	0	40
	100.0	0.0	100.0
IT학부	62	13	75
	82.7	17.3	100.0
디자인학부	83	31	114
	72.8	27.2	100.0
예술학부	32	8	40
	80.0	2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84	16	100
	84.0	16.0	100.0
간호복지학부	70	9	79
	88.6	11.4	100.0
전체	371	77	448
	82.8	1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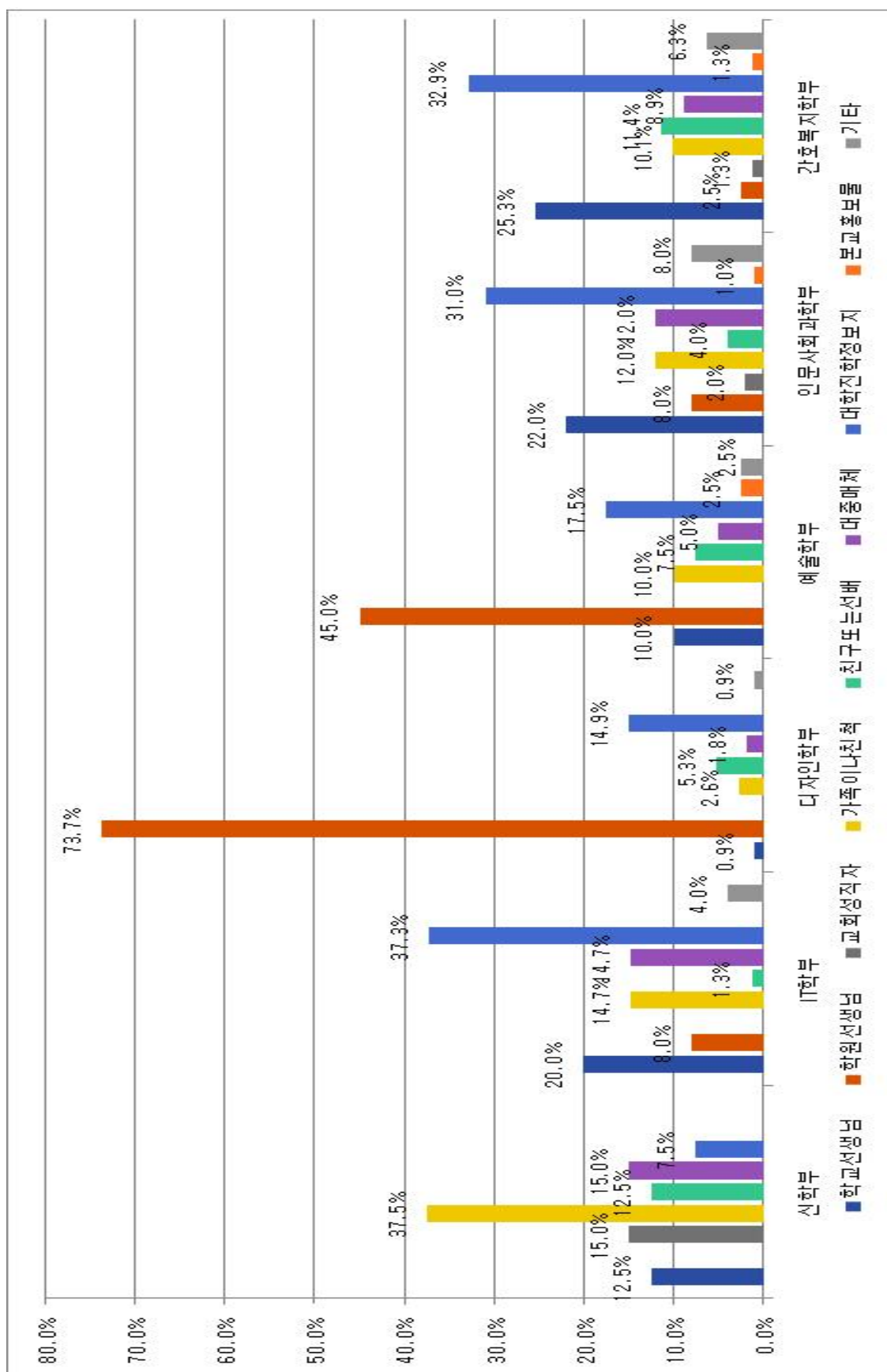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6.3%가 학원 선생님, 25.0%가 대학진학 정보지, 15.0%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는 가족이나 친척 (37.5%), 교회 성직자와 대중매체(15.0%)가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73.7%)와 예술학부 (45.0%)는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학부는 대학진학정보지나 학교 선생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23.7%가 대학진학정보지로 여학생 32.1%가 학원선생님을 통해 본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1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성직자	가족 이나 친척	친구 또는 선배	대중 매체	대학 진학 정보지	본교 홍보물	기타	전체
남	31	23	5	24	7	19	36	0	7	152
	20.4	15.1	3.3	15.8	4.6	12.5	23.7	0.0	4.6	100.0
여	36	95	4	29	21	21	76	3	11	296
	12.2	32.1	1.4	9.8	7.1	7.1	25.7	1.0	3.7	100.0
신학부	5	0	6	15	5	6	3	0	0	40
	12.5	0.0	15.0	37.5	12.5	15.0	7.5	0.0	0.0	100.0
IT학부	15	6	0	11	1	11	28	0	3	75
	20.0	8.0	0.0	14.7	1.3	14.7	37.3	0.0	4.0	100.0
디자인 학부	1	84	0	3	6	2	17	0	1	114
	0.9	73.7	0.0	2.6	5.3	1.8	14.9	0.0	0.9	100.0
예술학부	4	18	0	4	3	2	7	1	1	40
	10.0	45.0	0.0	10.0	7.5	5.0	17.5	2.5	2.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2	8	2	12	4	12	31	1	8	100
	22.0	8.0	2.0	12.0	4.0	12.0	31.0	1.0	8.0	100.0
간호복지 학부	20	2	1	8	9	7	26	1	5	79
	25.3	2.5	1.3	10.1	11.4	8.9	32.9	1.3	6.3	100.0
전체	67	118	9	53	28	40	112	3	18	448
	15.0	26.3	2.0	11.8	6.3	8.9	25.0	0.7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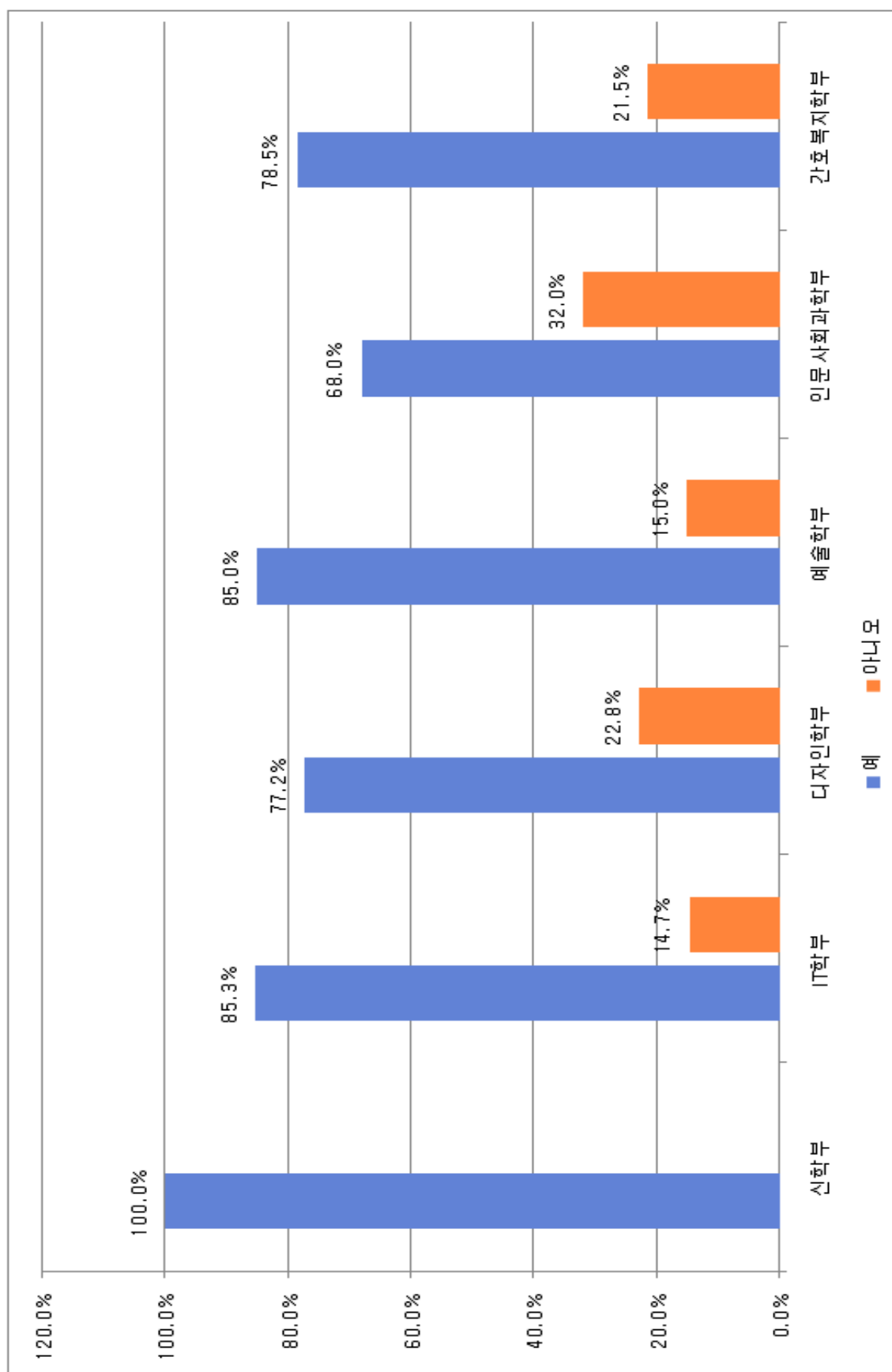
4) 학교의 만족도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입생 79.5%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전년도 64.7%보다 높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신학부 100%, IT학부 85.3%, 예술학부 8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인문사회과학부 32.0%, 디자인학부 22.8%, 간호복지학부 21.5%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85.5%, 여학생 76.4%가 본교입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학교의 만족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30	22	152
	85.5	14.5	100.0
여	226	70	296
	76.4	23.6	100.0
신학부	40	0	40
	100.0	0.0	100.0
IT학부	64	11	75
	85.3	14.7	100.0
디자인학부	88	26	114
	77.2	22.8	100.0
예술학부	34	6	40
	85.0	15.0	100.0
인문사회과학부	68	32	100
	68.0	32.0	100.0
간호복지학부	62	17	79
	78.5	21.5	100.0
전체	356	92	448
	79.5	2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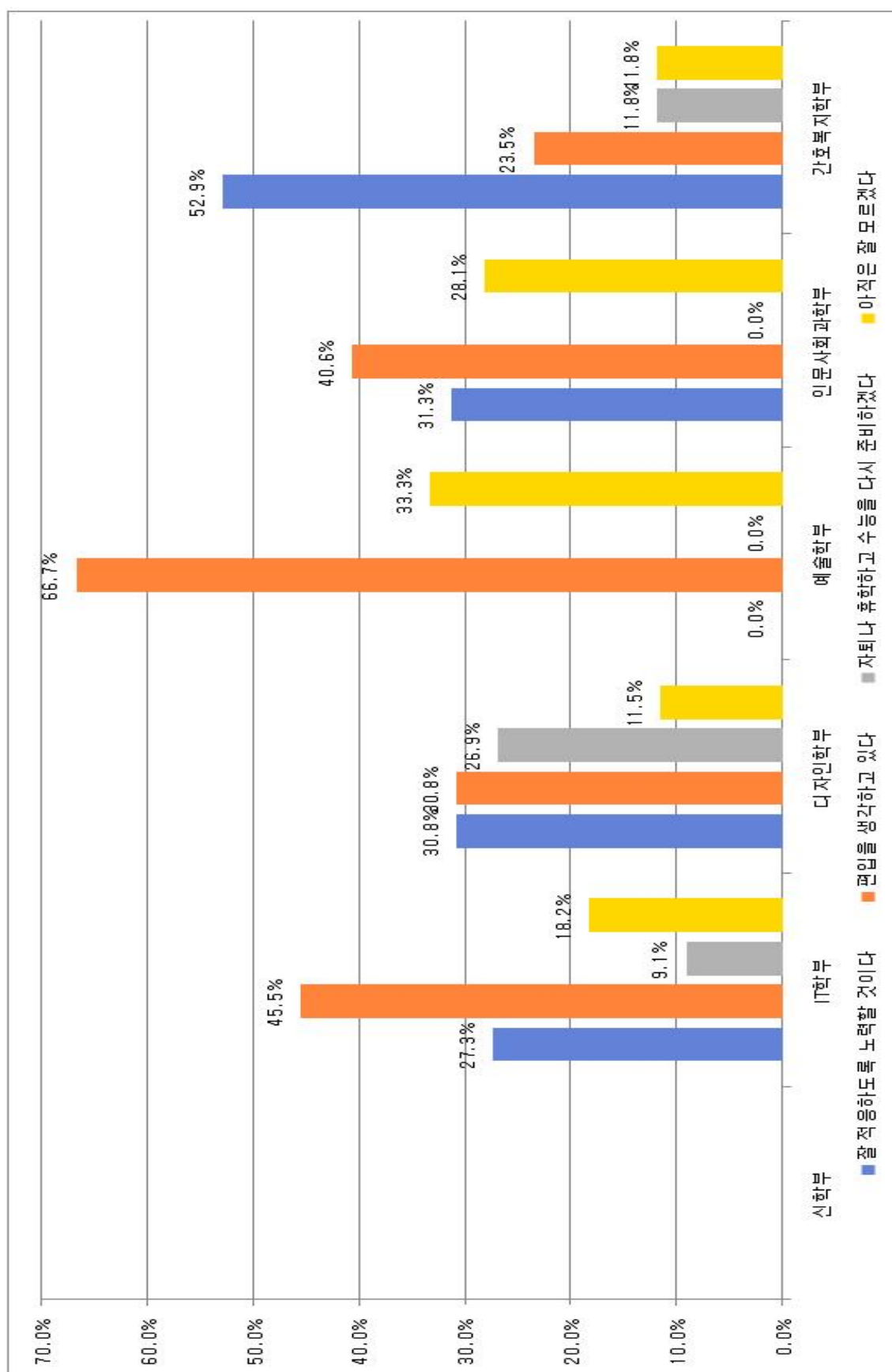
5)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2명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37.0%),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 (59.1%), 예술학부 (52.4%) 순으로 나타났고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예술학부(66.7)%, IT 학부(45.5%), 인문사회과학부(4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은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와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

<표 2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단위: 명, %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전체
남	7	5	3	7	22
	31.8	22.7	13.6	31.8	100.0
여	23	29	7	11	70
	32.9	41.4	10.0	15.7	100.0
신학부	0	0	0	0	0
	0	0	0	0	0
IT학부	3	5	1	2	11
	27.3	45.5	9.1	18.2	100.0
디자인학부	8	8	7	3	26
	30.8	30.8	26.9	11.5	100.0
예술학부	0	4	0	2	6
	0.0	66.7	0.0	33.3	100.0
인문사회과학부	10	13	0	9	32
	31.3	40.6	0.0	28.1	100.0
간호복지학부	9	4	2	2	17
	52.9	23.5	11.8	11.8	100.0
전체	30	34	10	18	92
	32.6	37.0	10.9	1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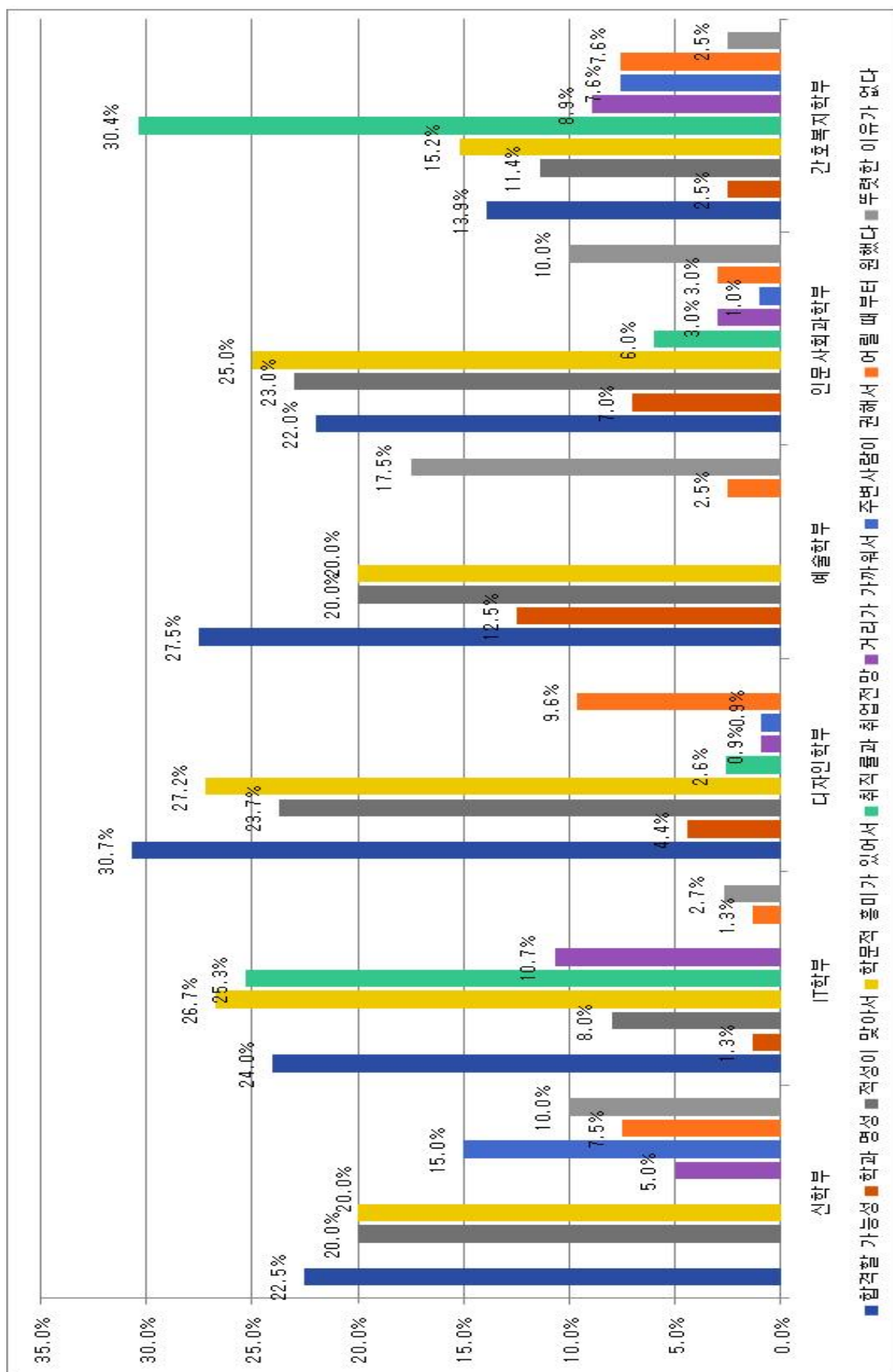
6)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합격할 가능성 23.7%,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23.2%, 적성이 맞아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부는 디자인학부(30.7%), 예술학부(27.5%), IT학부(24.0%), 신학부(22.5%) 순으로 나타났고, ‘학문적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학부는 디자인학부(27.2%), IT학부(26.7%) 순이었다. ‘적성에 맞아서’가 높은 학부는 디자인 학부(23.7%), 인문사회과학부(23.0%) 순으로 나타나 디자인학부의 경우 타 학부에 비해 세 항목 모두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문적 흥미(25.0%), 여학생은 합격할 가능성(2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단위: 명, %

	합격할 가능성	학과 명성	적성이 맞아서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취직을 과 취업 전망	거리가 가까 워서	주변 사람이 권해서	어릴 때 부터 원했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	전체
남	28	6	31	38	18	9	8	4	10	152
	18.4	3.9	20.4	25.0	11.8	5.9	5.3	2.6	6.6	100.0
여	78	14	50	66	34	12	6	21	15	296
	26.4	4.7	16.9	22.3	11.5	4.1	2.0	7.1	5.1	100.0
신학부	9	0	8	8	0	2	6	3	4	40
	22.5	0.0	20.0	20.0	0.0	5.0	15.0	7.5	10.0	100.0
IT학부	18	1	6	20	19	8	0	1	2	75
	24.0	1.3	8.0	26.7	25.3	10.7	0.0	1.3	2.7	100.0
디자인 학부	35	5	27	31	3	1	1	11	0	114
	30.7	4.4	23.7	27.2	2.6	0.9	0.9	9.6	0.0	100.0
예술학부	11	5	8	8	0	0	0	1	7	40
	27.5	12.5	20.0	20.0	0.0	0.0	0.0	2.5	17.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2	7	23	25	6	3	1	3	10	100
	22.0	7.0	23.0	25.0	6.0	3.0	1.0	3.0	10.0	100.0
간호복지 학부	11	2	9	12	24	7	6	6	2	79
	13.9	2.5	11.4	15.2	30.4	8.9	7.6	7.6	2.5	100.0
전체	106	20	81	104	52	21	14	25	25	448
	23.7	4.5	18.1	23.2	11.6	4.7	3.1	5.6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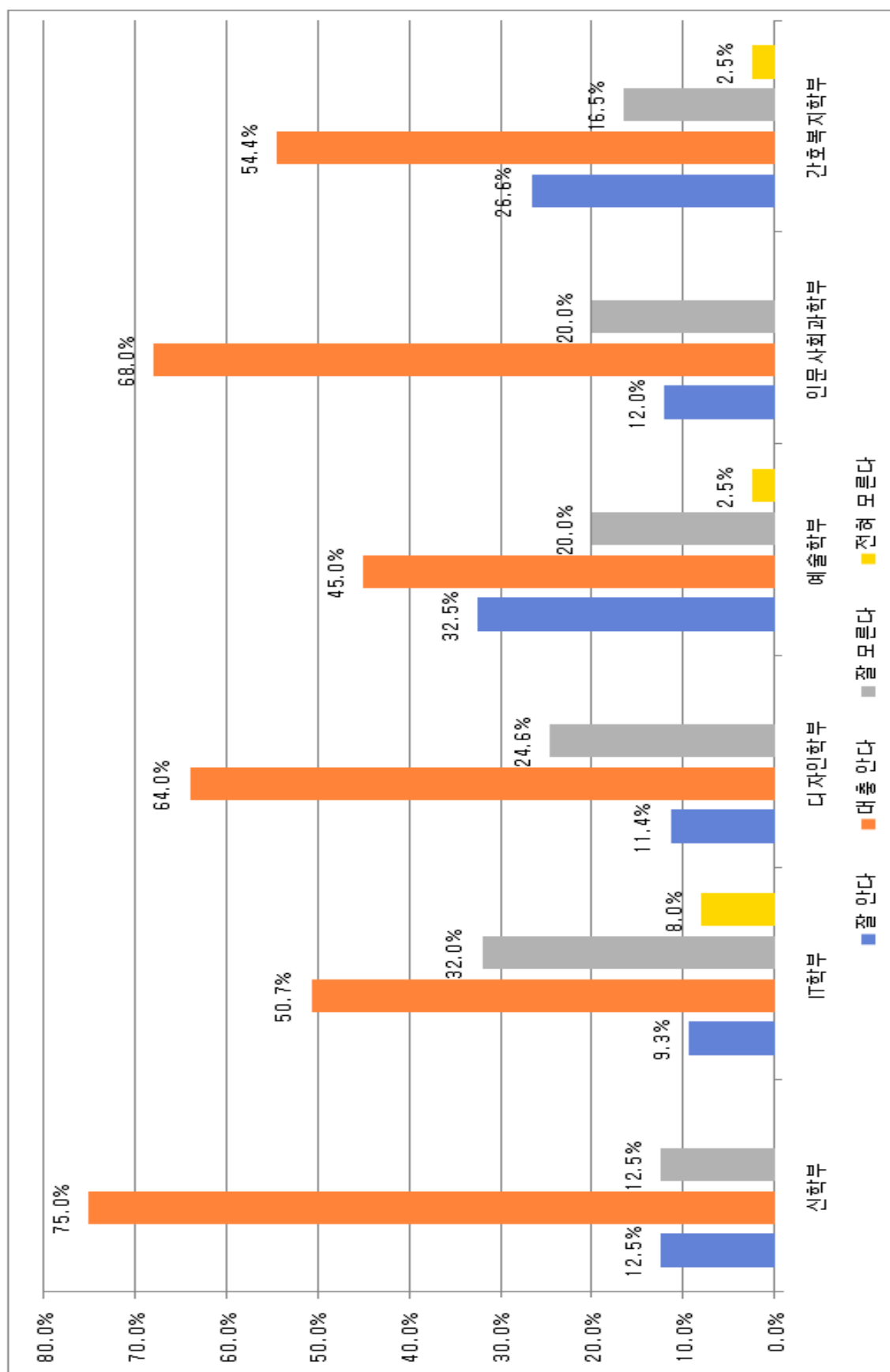
7)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신입생들에게 지망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충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학부 75.0%, 인문사회과학부 68.0%, 디자인학부 6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63.8%, 여학생의 58.4%가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에 대해 대충 안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단위: 명, %

	잘 안다	대충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	19	97	34	2	152
	12.5	63.8	22.4	1.3	100.0
여	52	173	64	7	296
	17.6	58.4	21.6	2.4	100.0
신학부	5	30	5	0	40
	12.5	75.0	12.5	0.0	100.0
IT학부	7	38	24	6	75
	9.3	50.7	32.0	8.0	100.0
디자인학부	13	73	28	0	114
	11.4	64.0	24.6	0.0	100.0
예술학부	13	18	8	1	40
	32.5	45.0	20.0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12	68	20	0	100
	12.0	68.0	2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21	43	13	2	79
	26.6	54.4	16.5	2.5	100.0
전체	71	270	98	9	448
	15.8	60.3	21.9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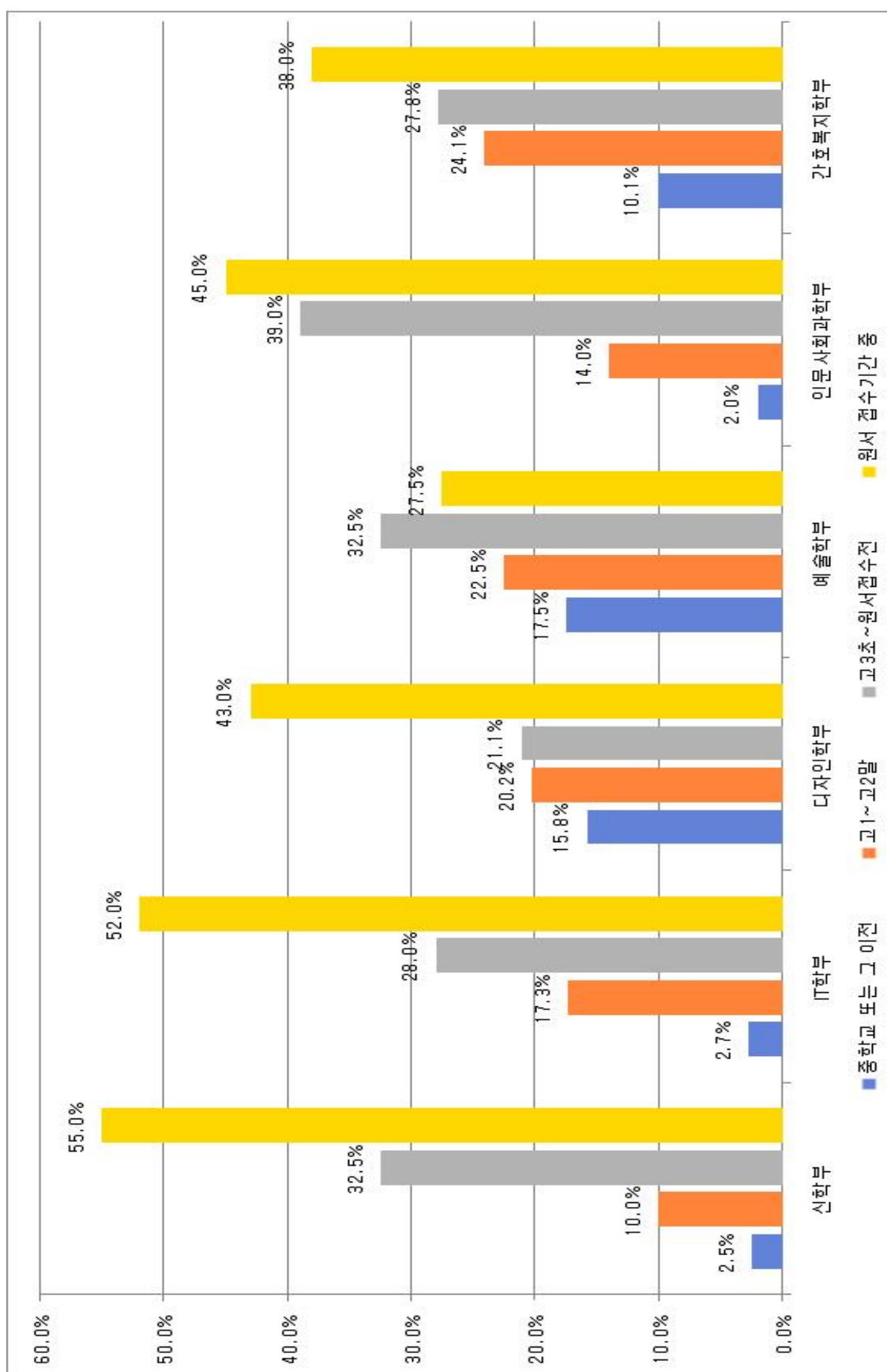
8) 학부의 결정시기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기간 중이 43.8%, 고3초~원서접수 전이 29.5%로 나타났다.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 학부 71.0%, 신학부 53.6% 순으로 나타났고 고3초~원서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학부 55.0%, IT학부 5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고3초~원서접수기간 중(고3초~원서접수 전,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4.4%, 72.7%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학부의 결정시기

단위: 명, %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고1~고2말	고3초~ 원서접수전	원서 접수기간 중	전체
남	7	32	51	62	152
	4.6	21.1	33.6	40.8	100.0
여	31	50	81	134	296
	10.5	16.9	27.4	45.3	100.0
신학부	1	4	13	22	40
	2.5	10.0	32.5	55.0	100.0
IT학부	2	13	21	39	75
	2.7	17.3	28.0	52.0	100.0
디자인학부	18	23	24	49	114
	15.8	20.2	21.1	43.0	100.0
예술학부	7	9	13	11	40
	17.5	22.5	32.5	2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2	14	39	45	100
	2.0	14.0	39.0	45.0	100.0
간호복지학부	8	19	22	30	79
	10.1	24.1	27.8	38.0	100.0
전체	38	82	132	196	448
	8.5	18.3	29.5	4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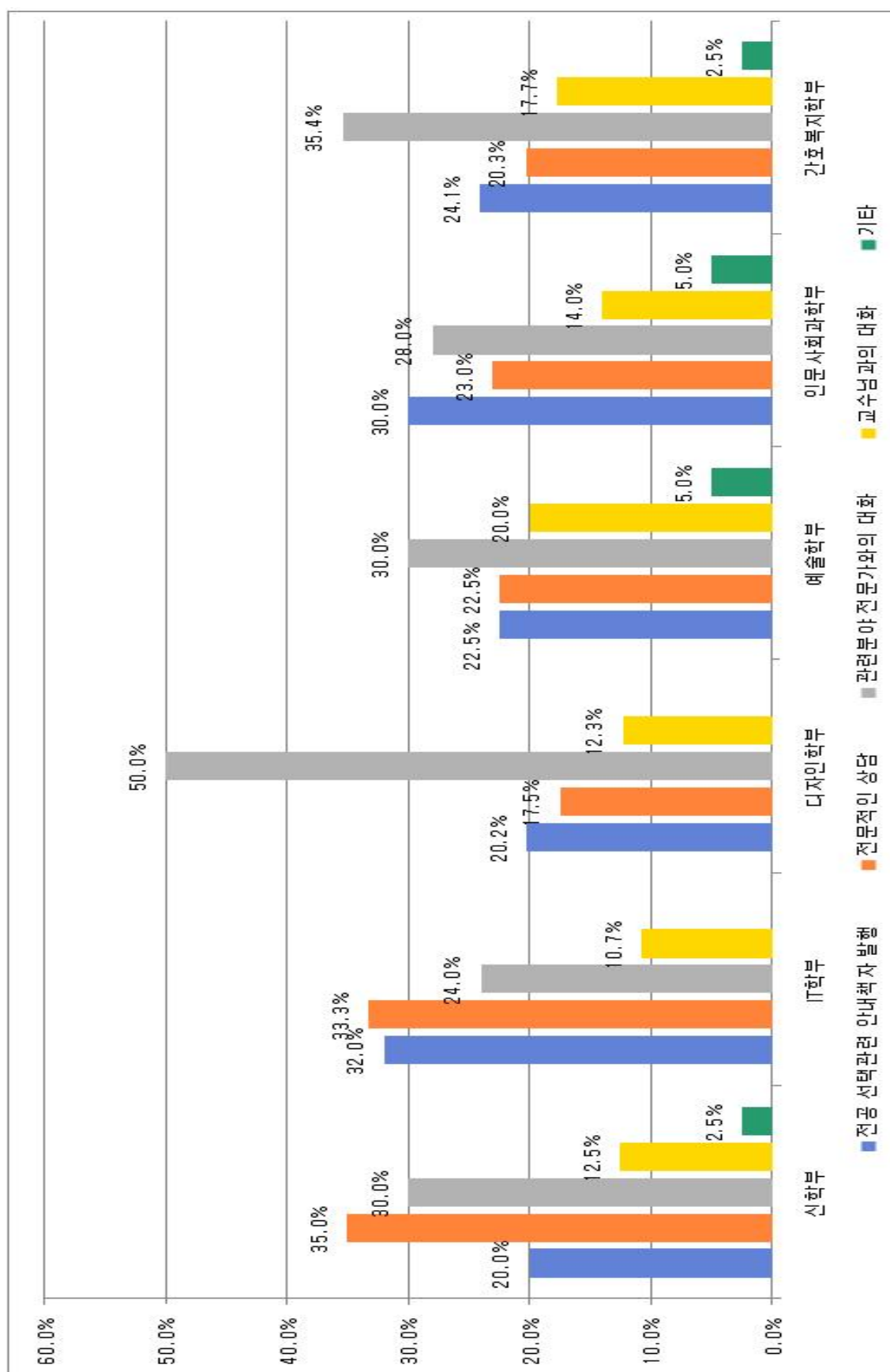


9) 2학년 진학 시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경우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34.6%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25.2%가 전공선택관련 안내책자 발행 순으로 응답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 50.0%, 간호복지학부 35.4%, 신학부와 예술학부 3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2.9%)과 여학생(35.5%) 모두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를 가장 많이 요청하였다.

<표 25> 전공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단위: 명, %

	전공 선택관련 안내책자 발행	전문적인 상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기타	전체
남	35	39	50	27	1	152
	23.0	25.7	32.9	17.8	0.7	100.0
여	78	68	105	36	9	296
	26.4	23.0	35.5	12.2	3.0	100.0
신학부	8	14	12	5	1	40
	20.0	35.0	30.0	12.5	2.5	100.0
IT학부	24	25	18	8	0	75
	32.0	33.3	24.0	10.7	0.0	100.0
디자인학부	23	20	57	14	0	114
	20.2	17.5	50.0	12.3	0.0	100.0
예술학부	9	9	12	8	2	40
	22.5	22.5	30.0	20.0	5.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0	23	28	14	5	100
	30.0	23.0	28.0	14.0	5.0	100.0
간호복지학부	19	16	28	14	2	79
	24.1	20.3	35.4	17.7	2.5	100.0
전체	113	107	155	63	10	448
	25.2	23.9	34.6	14.1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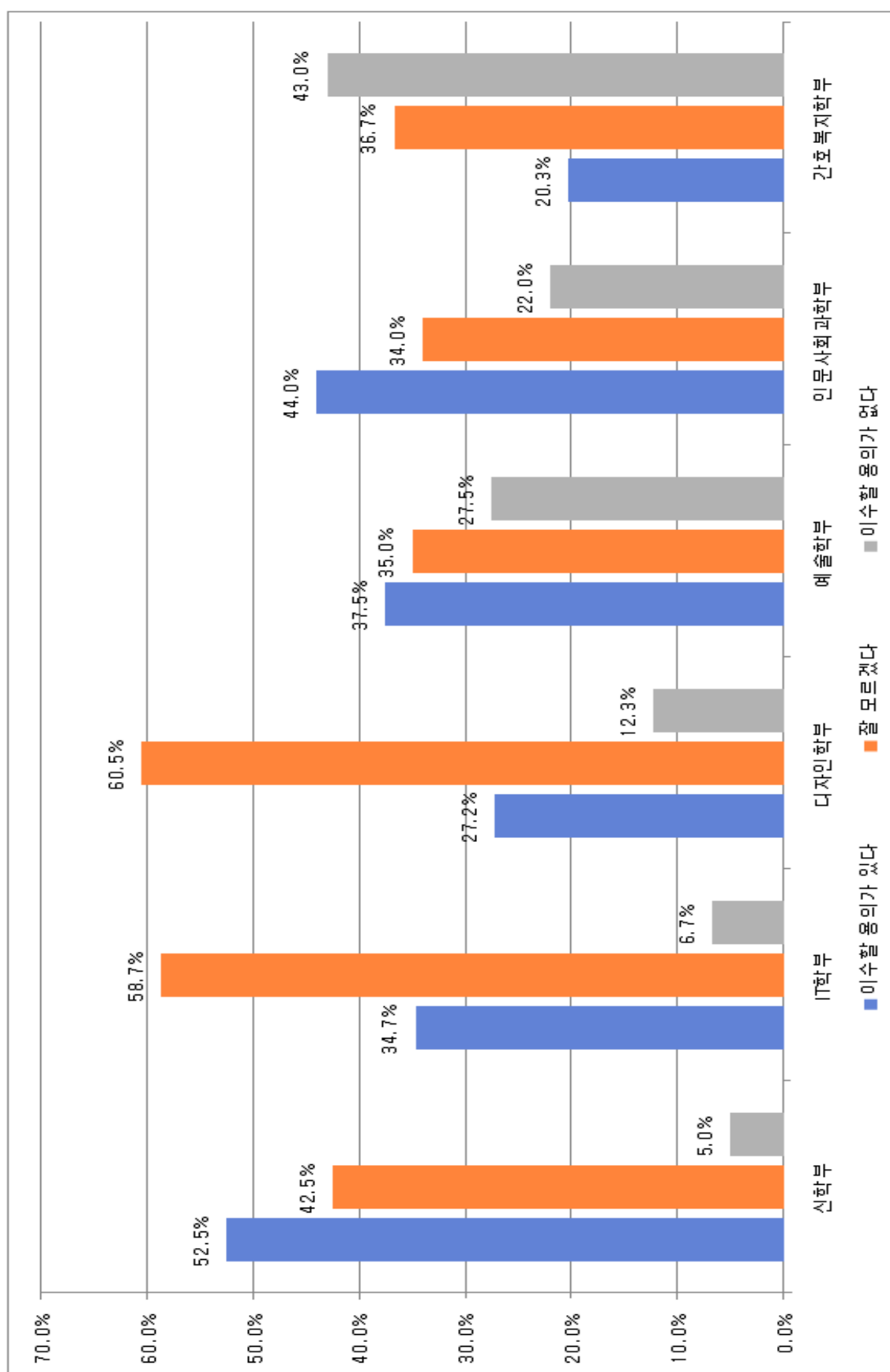
10) 복수전공(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의 이수 용의

신입생들이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6.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4.2%가 이수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60.5%), IT학부(58.7%), 신학부(4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48.7%, 여학생 44.9%로 나타났다.

<표 2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단위: 명, %

	이수할 용의가 있다	잘 모르겠다	이수할 용의가 없다	전체
남	54	74	24	152
	35.5	48.7	15.8	100.0
여	99	133	64	296
	33.4	44.9	21.6	100.0
신학부	21	17	2	40
	52.5	42.5	5.0	100.0
IT학부	26	44	5	75
	34.7	58.7	6.7	100.0
디자인학부	31	69	14	114
	27.2	60.5	12.3	100.0
예술학부	15	14	11	40
	37.5	35.0	2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44	34	22	100
	44.0	34.0	22.0	100.0
간호복지학부	16	29	34	79
	20.3	36.7	43.0	100.0
전체	153	207	88	448
	34.2	46.2	1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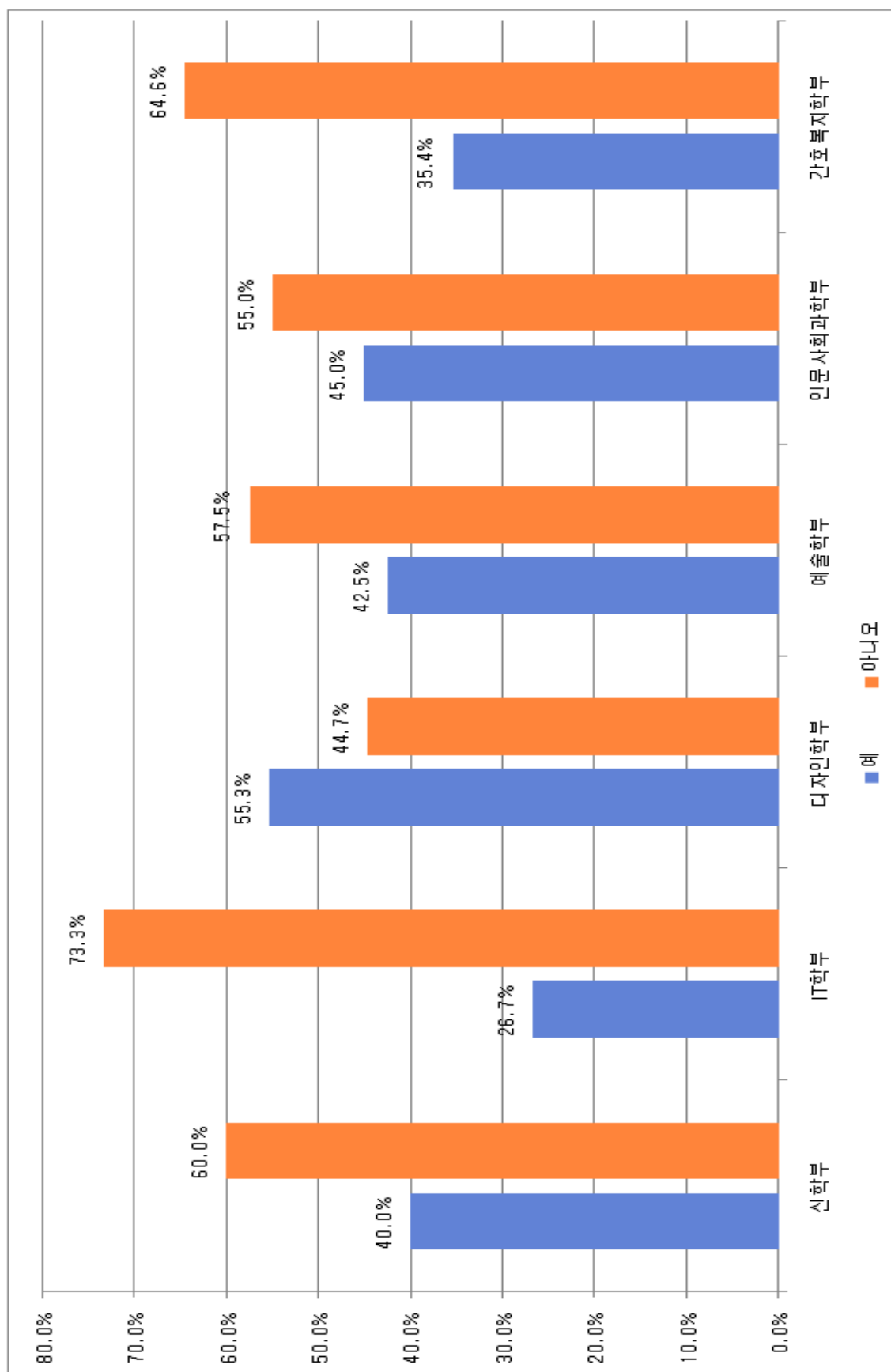
11)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42.2%,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57.8%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55.3%), 인문사회과학부 (45.0%), 예술학부(42.5%) 순으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IT학부(73.3%), 간호복지학부 (64.6%), 신학부(60.0%) 순으로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9.1% 여학생 52.0%이 아니오로 응답하여 전년도 남학생 67.4%, 여학생 51.0%과 큰 차이가 없었다. .**

<표 2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47	105	152
	30.9	69.1	100.0
여	142	154	296
	48.0	52.0	100.0
신학부	16	24	40
	40.0	60.0	100.0
IT학부	20	55	75
	26.7	73.3	100.0
디자인학부	63	51	114
	55.3	44.7	100.0
예술학부	17	23	40
	42.5	5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45	55	100
	45.0	55.0	100.0
간호복지학부	28	51	79
	35.4	64.6	100.0
전체	189	259	448
	42.2	5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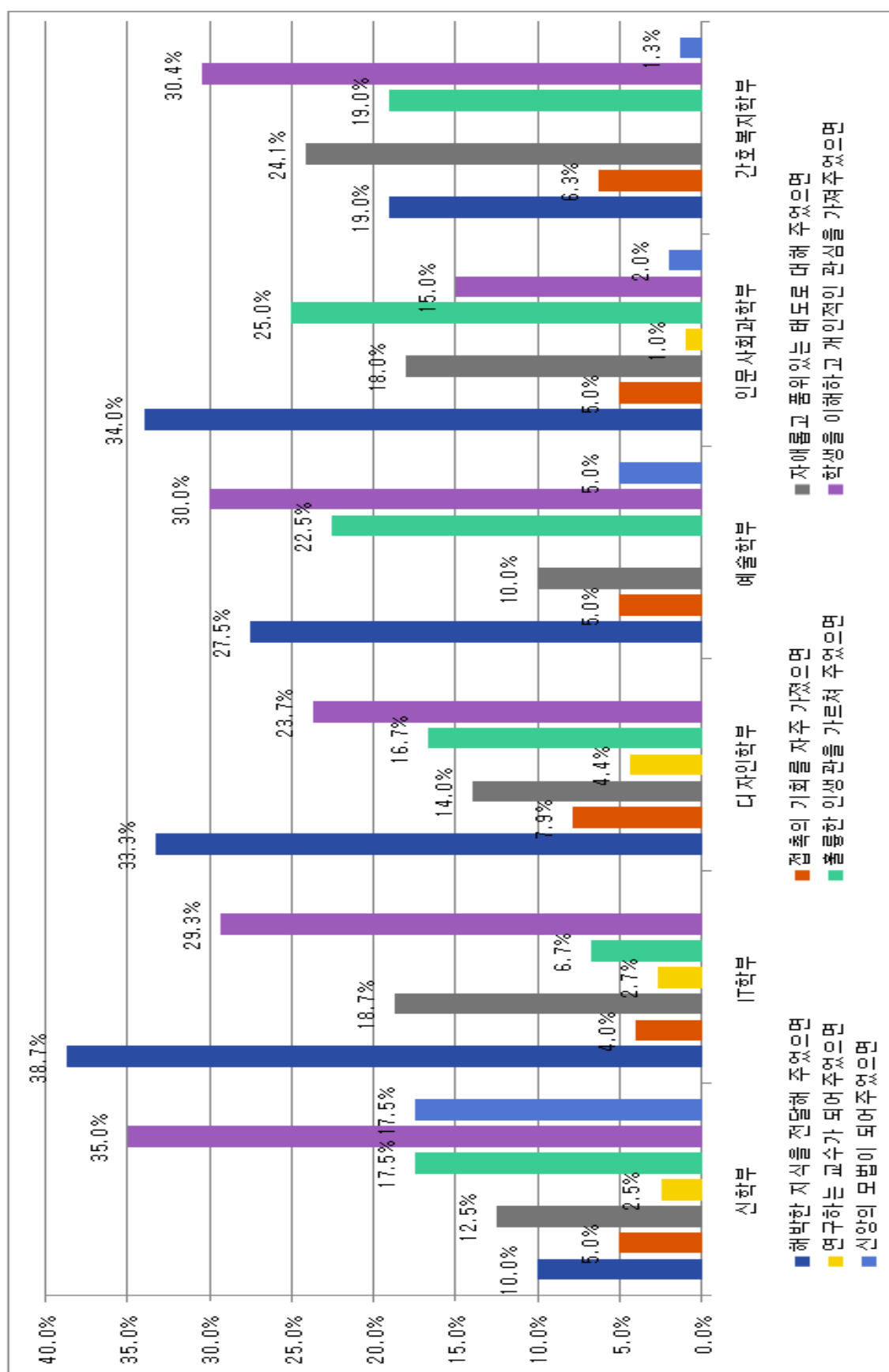
12)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29.2%)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25.4%),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17.9%)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17.0%), 순으로 나타났다.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는 2014(7.2%), 2015(9.1%), 2016(13.0%), 2018(12.5%), 2019(14.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에는 IT학부가 38.7%, 인문사회과학부 34.0%, 디자인 학부 3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29.6%는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여학생의 30.4%가 ‘해박한 지식 전달’을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단위: 명, %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자애롭고 품위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주었 으면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 으면	신앙의 모법이 되어주었 으면	전체
남	41	11	19	4	25	45	7	152
	27.0	7.2	12.5	2.6	16.4	29.6	4.6	100.0
여	90	15	57	5	55	69	5	296
	30.4	5.1	19.3	1.7	18.6	23.3	1.7	100.0
신학부	4	2	5	1	7	14	7	40
	10.0	5.0	12.5	2.5	17.5	35.0	17.5	100.0
IT학부	29	3	14	2	5	22	0	75
	38.7	4.0	18.7	2.7	6.7	29.3	0.0	100.0
디자인 학부	38	9	16	5	19	27	0	114
	33.3	7.9	14.0	4	16.7	23.7	0.0	100.0
예술학부	11	2	4	0	9	12	2	40
	27.5	5.0	10.0	0.0	22.5	30.0	5.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34	5	18	1	25	15	2	100
	34.0	5.0	18.0	1.0	25.0	15.0	2.0	100.0
간호복지 학부	15	5	19	0	15	24	1	79
	19.0	6.3	24.1	0.0	19.0	30.4	1.3	100.0
전체	131	26	76	9	80	114	12	448
	29.2	5.8	17.0	2.0	17.9	25.4	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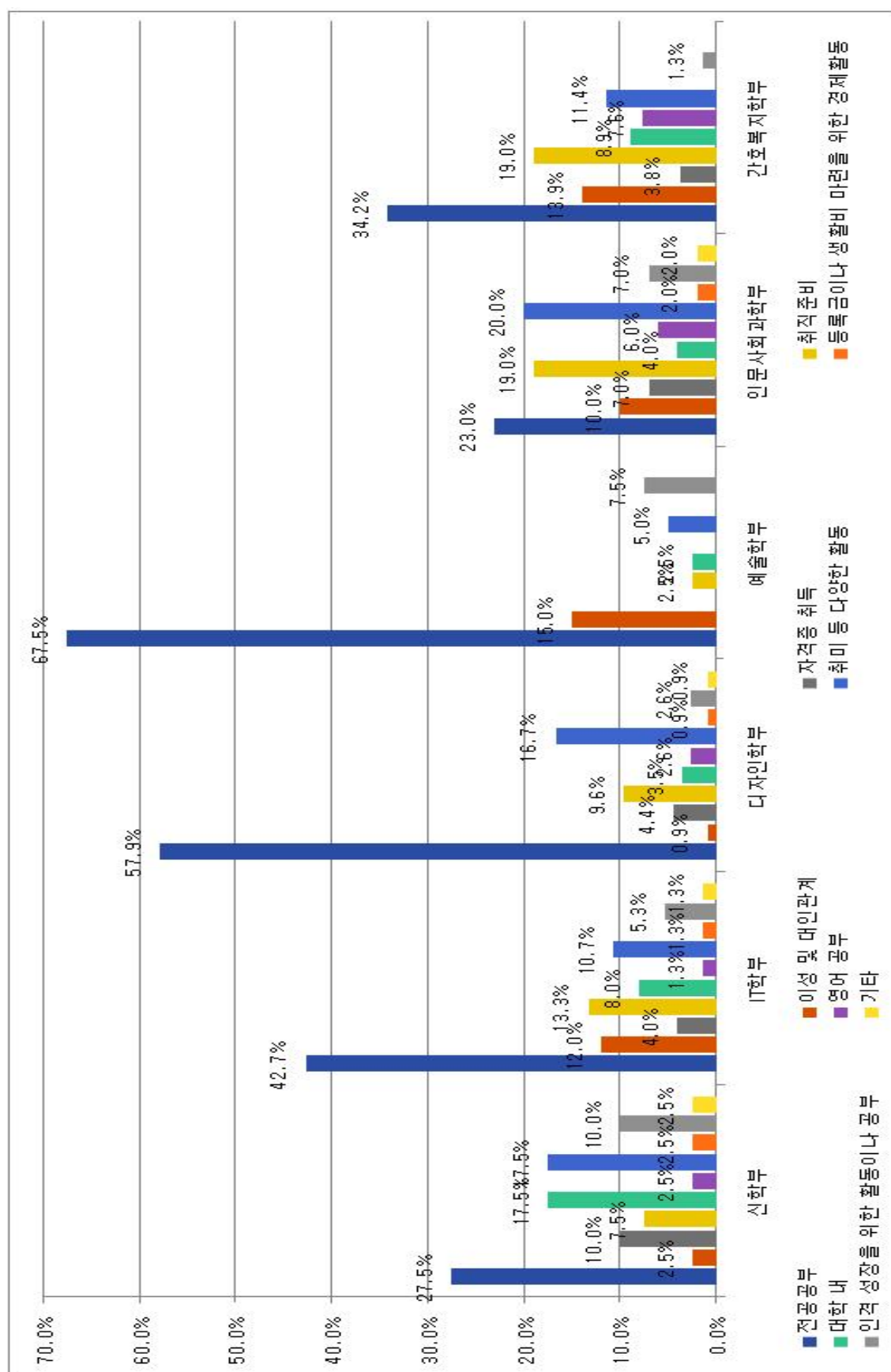
13)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41.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취미 등 다양한 활동(14.5%), 취직준비(13.2%), 이성 및 대인관계(8.5%)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공부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가 6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57.9%), IT학부(42.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7.5%), 여학생(43.6%) 모두 대학생활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단위: 명, %

	전공 공부	이성 및 대인 관계	자격증 취득	취직 준비	대학 내	영어 공부	취미 등 다양한 활동	등록금 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 이나 공부	기타	전체
남	57	23	7	18	6	4	27	3	6	1	152
	37.5	15.1	4.6	11.8	3.9	2.6	17.8	2.0	3.9	0.7	100.0
여	129	15	15	41	23	13	38	2	16	4	296
	43.6	5.1	5.1	13.9	7.8	4.4	12.8	0.7	5.4	1.4	100.0
신학부	11	1	4	3	7	1	7	1	4	1	40
	27.5	2.5	10.0	7.5	17.5	2.5	17.5	2.5	10.0	2.5	100.0
IT학부	32	9	3	10	6	1	8	1	4	1	75
	42.7	12.0	4.0	13.3	8.0	1.3	10.7	1.3	5.3	1.3	100.0
디자인 학부	66	1	5	11	4	3	19	1	3	1	114
	57.9	0.9	4.4	9.6	3.5	2.6	16.7	0.9	2.6	0.9	100.0
예술 학부	27	6	0	1	1	0	2	0	3	0	40
	67.5	15.0	0.0	2.5	2.5	0.0	5.0	0.0	7.5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23	10	7	19	4	6	20	2	7	2	100
	23.0	10.0	7.0	19.0	4.0	6.0	20.0	2.0	7.0	2.0	100.0
간호 복지 학부	27	11	3	15	7	6	9	0	1	0	79
	34.2	13.9	3.8	19.0	8.9	7.6	11.4	0.0	1.3	0.0	100.0
전체	186	38	22	59	29	17	65	5	22	5	448
	41.5	8.5	4.9	13.2	6.5	3.8	14.5	1.1	4.9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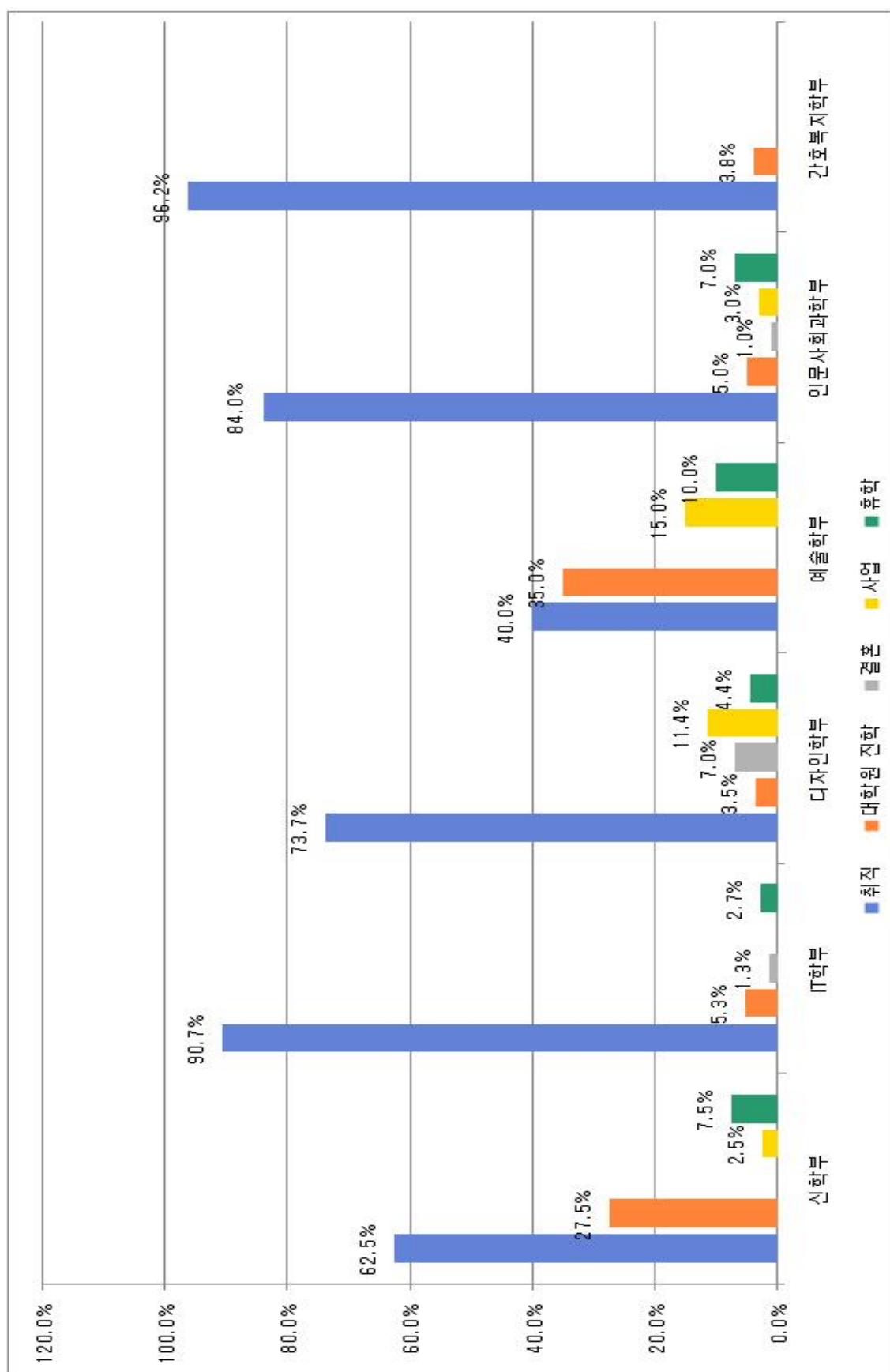
14)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8.8%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9.2%), 유학(5.1%), 기타(4.7%), 사업(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취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IT학부(90.7%), 인문사회과학부(8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학부는 4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81.6%), 여학생(77.4%) 모두 취직에 대한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 명, %

	취직	대학원 진학	사업	유학	기타	전체
남	124	11	4	6	7	152
	81.6	7.2	2.6	3.9	4.6	100.0
여	229	30	6	17	14	296
	77.4	10.1	2.0	5.7	4.7	100.0
신학부	25	11	0	1	3	40
	62.5	27.5	0.0	2.5	7.5	100.0
IT학부	68	4	1	0	2	75
	90.7	5.3	1.3	0.0	2.7	100.0
디자인학부	84	4	8	13	5	114
	73.7	3.5	7.0	11.4	4.4	100.0
예술학부	16	14	0	6	4	40
	40.0	35.0	0.0	15.0	1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84	5	1	3	7	100
	84.0	5.0	1.0	3.0	7.0	100.0
간호복지학부	76	3	0	0	0	79
	96.2	3.8	0.0	0.0	0.0	100.0
전체	353	41	10	23	21	448
	78.8	9.2	2.2	5.1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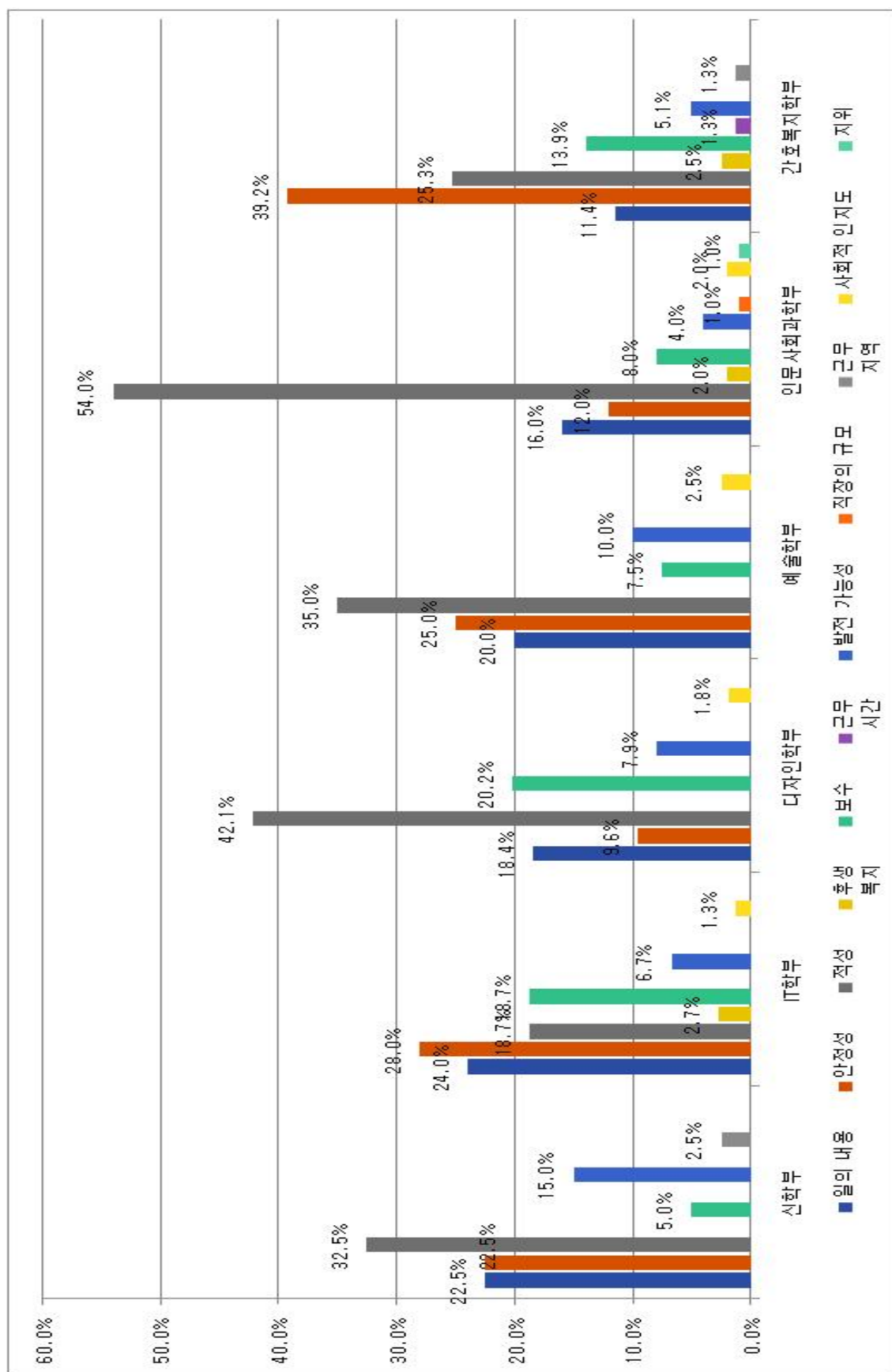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36.4%)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안정성’(21.0%), ‘일의 내용’(18.1%), ‘보수’(13.6%) 순이었다.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5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42.1%), 예술학부(35.0%), 신학부 (32.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6.8%), 여학생(36.1%) 모두 직업 선택 시 적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단위: 명, %

	일의 내용	안정성	적성	후생 복지	보수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직장의 규모	근무 지역	사회적 인지도	지위	전체
남	32	28	56	3	22	0	6	0	1	3	1	152
	21.1	18.4	36.8	2.0	14.5	0.0	3.9	0.0	0.7	2.0	0.7	100.0
여	49	66	107	3	39	1	26	1	1	3	0	296
	16.6	22.3	36.1	1.0	13.2	0.3	8.8	0.3	0.3	1.0	0.0	100.0
신학부	9	9	13	0	2	0	6	0	1	0	0	40
	22.5	22.5	32.5	0.0	5.0	0.0	15.0	0.0	2.5	00%	00%	100.0
IT학부	18	21	14	2	14	0	5	0	0	1	0	75
	24.0	28.0	18.7	2.7	18.7	0.0	6.7	0.0	0.0	1.3	0.0	100.0
디자인 학부	21	11	48	0	23	0	9	0	0	2	0	114
	18.4	9.6	42.1	0.0	20.2	0.0	7.9	0.0	0.0	1.8	0.0	100.0
예술 학부	8	10	14	0	3	0	4	0	0	1	0	40
	20.0	25.0	35.0	0.0	7.5	0.0	10.0	0.0	0.0	2.5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16	12	54	2	8	0	4	1	0	2	1	100
	16.0	12.0	54.0	2.0	8.0	0.0	4.0	1.0	0.0	2.0	1.0	100.0
간호 복지 학부	9	31	20	2	11	1	4	0	1	0	0	79
	11.4	39.2	25.3	2.5	13.9	1.3	5.1	0.0	1.3	0.0	0.0	100.0
전체	81	94	163	6	61	1	32	1	2	6	1	448
	18.1	21.0	36.4	1.3	13.6	0.2	7.1	0.2	0.4	1.3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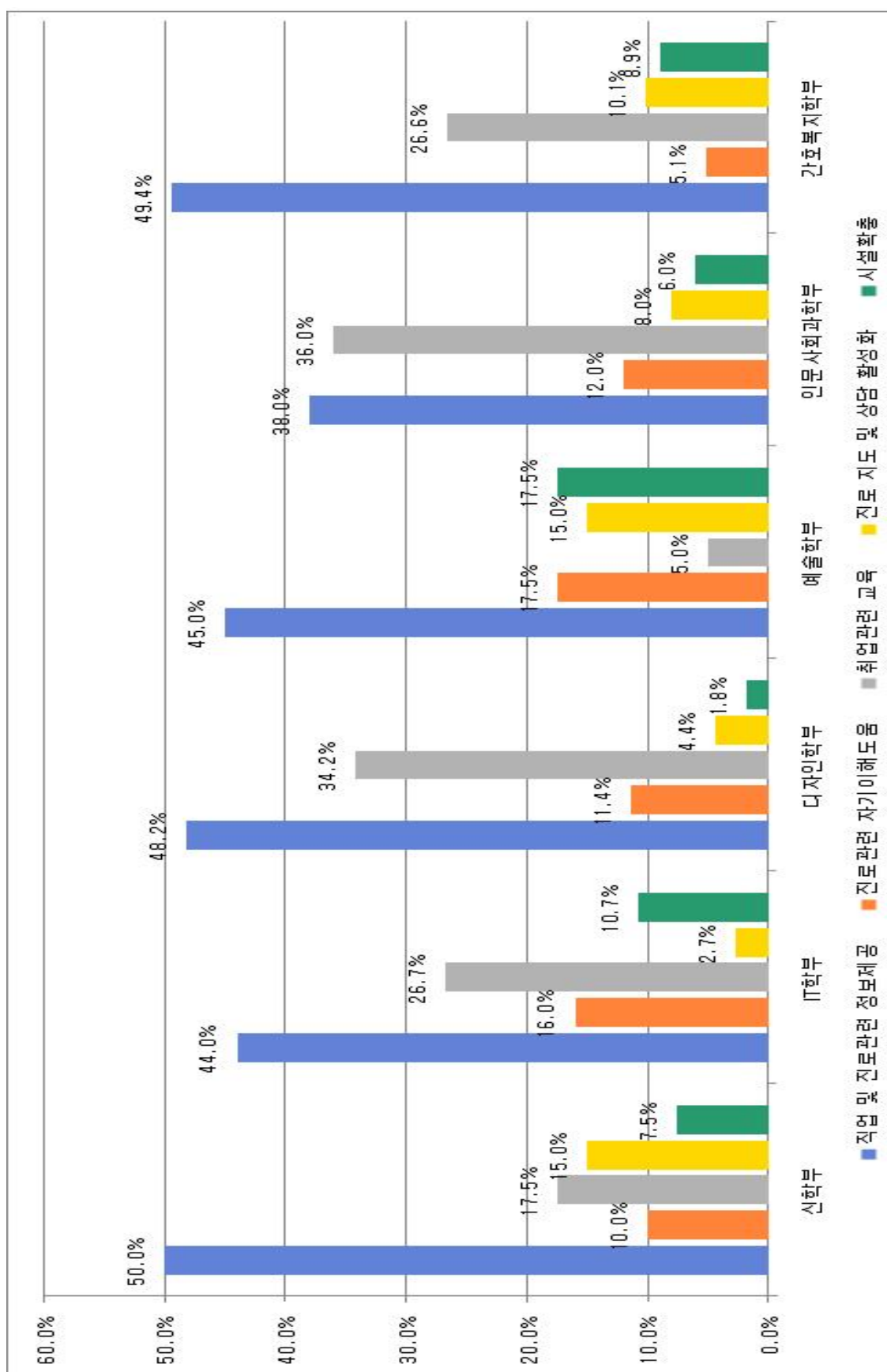
16)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5.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관련 교육’(27.9%), ‘진로관련 자기이해도움’(11.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가 50.0%로 가장 높았고, 간호복지학부(49.4%), 디자인학부(48.2%), 예술학부(4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3.4%), 여학생(46.3%) 모두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	진로관련 자기이해 도움	취업관련 교육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시설확충	전체
남	66	22	38	14	12	152
	43.4	14.5	25.0	9.2	7.9	100.0
여	137	30	87	21	21	296
	46.3	10.1	29.4	7.1	7.1	100.0
신학부	20	4	7	6	3	40
	50.0	10.0	17.5	15.0	7.5	100.0
IT학부	33	12	20	2	8	75
	44.0	16.0	26.7	2.7	10.7	100.0
디자인학부	55	13	39	5	2	114
	48.2	11.4	34.2	4.4	1.8	100.0
예술학부	18	7	2	6	7	40
	45.0	17.5	5.0	15.0	1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38	12	36	8	6	100
	38.0	12.0	36.0	8.0	6.0	100.0
간호복지학부	39	4	21	8	7	79
	49.4	5.1	26.6	10.1	8.9	100.0
전체	203	52	125	35	33	448
	45.3	11.6	27.9	7.8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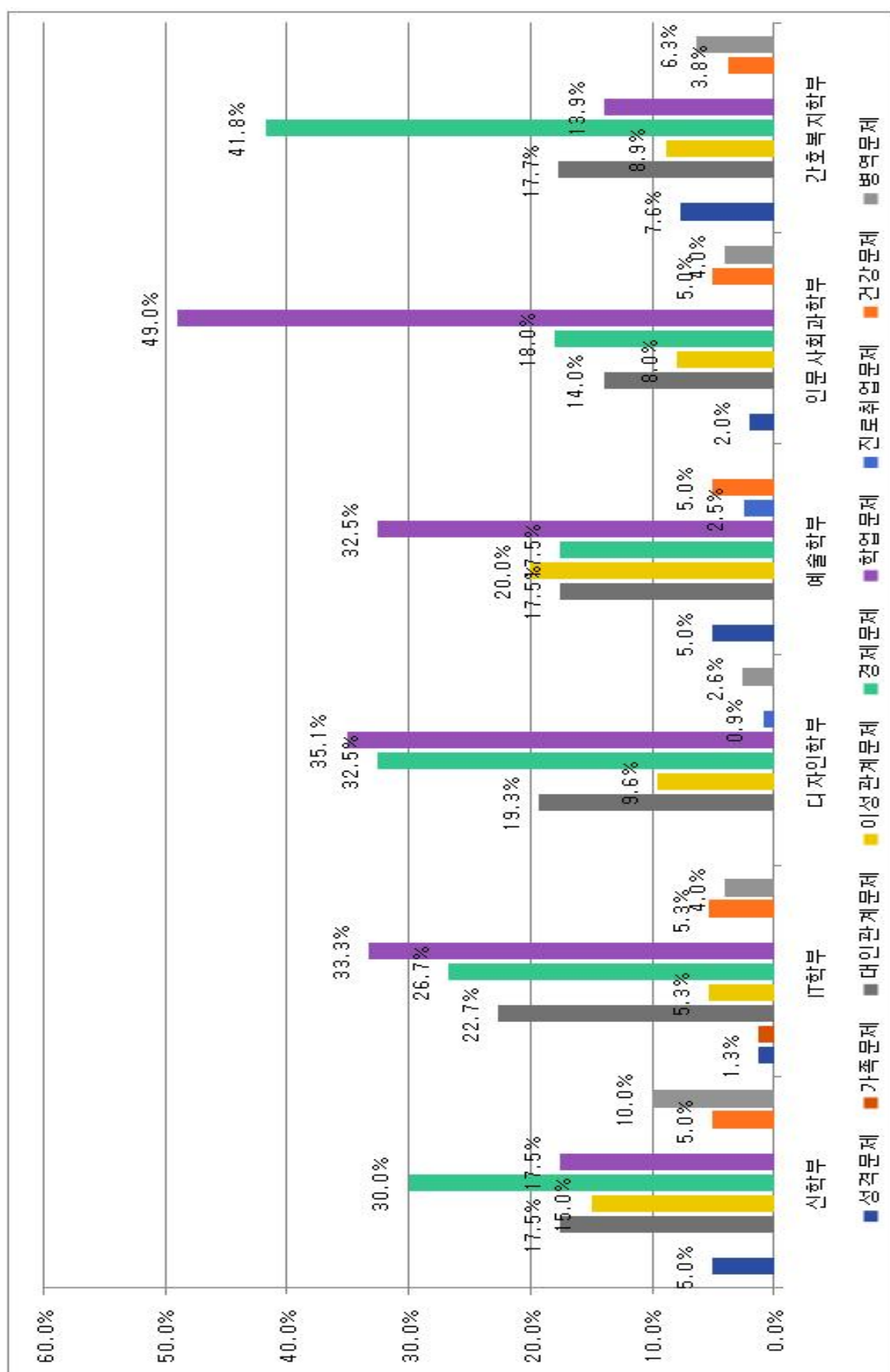
17)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진로취업문제’(32.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문제’(28.3%) ‘대인관계문제’(18.1), ‘경제문제’(9.8%) 순이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진로취업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49.0%), 디자인학부(35.1%), IT학부(33.3%)순이며, 학업문제가 가장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41.8%), 대인관계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IT학부(22.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5.7%), 여학생(35.8%) 모두 진로취업문제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33>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단위: 명, %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병역 문제	기타	전체
남	9	0	30	14	37	39	2	16	5	152
	5.9	0.0	19.7	9.2	24.3	25.7	1.3	10.5	3.3	100.0
여	4	1	51	30	90	106	0	0	14	296
	1.4	0.3	17.2	10.1	30.4	35.8	0.0	0.0	4.7	100.0
신학부	2	0	7	6	12	7	0	2	4	40
	5.0	0.0	17.5	15.0	30.0	17.5	0.0	5.0	10.0	100.0
IT학부	1	1	17	4	20	25	0	4	3	75
	1.3	1.3	22.7	5.3	26.7	33.3	0.0	5.3	4.0	100.0
디자인 학부	0	0	22	11	37	40	1	0	3	114
	0.0	0.0	19.3	9.6	32.5	35.1	0.9	0.0	2.6	100.0
예술학부	2	0	7	8	7	13	1	2	0	40
	5.0	0.0	17.5	20.0	17.5	32.5	2.5	5.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	0	14	8	18	49	0	5	4	100
	2.0	0.0	14.0	8.0	18.0	49.0	0.0	5.0	4.0	100.0
간호복지 학부	6	0	14	7	33	11	0	3	5	79
	7.6	0.0	17.7	8.9	41.8	13.9	0.0	3.8	6.3	100.0
전체	13	1	81	44	127	145	2	16	19	448
	2.9	0.2	18.1	9.8	28.3	32.4	0.4	3.6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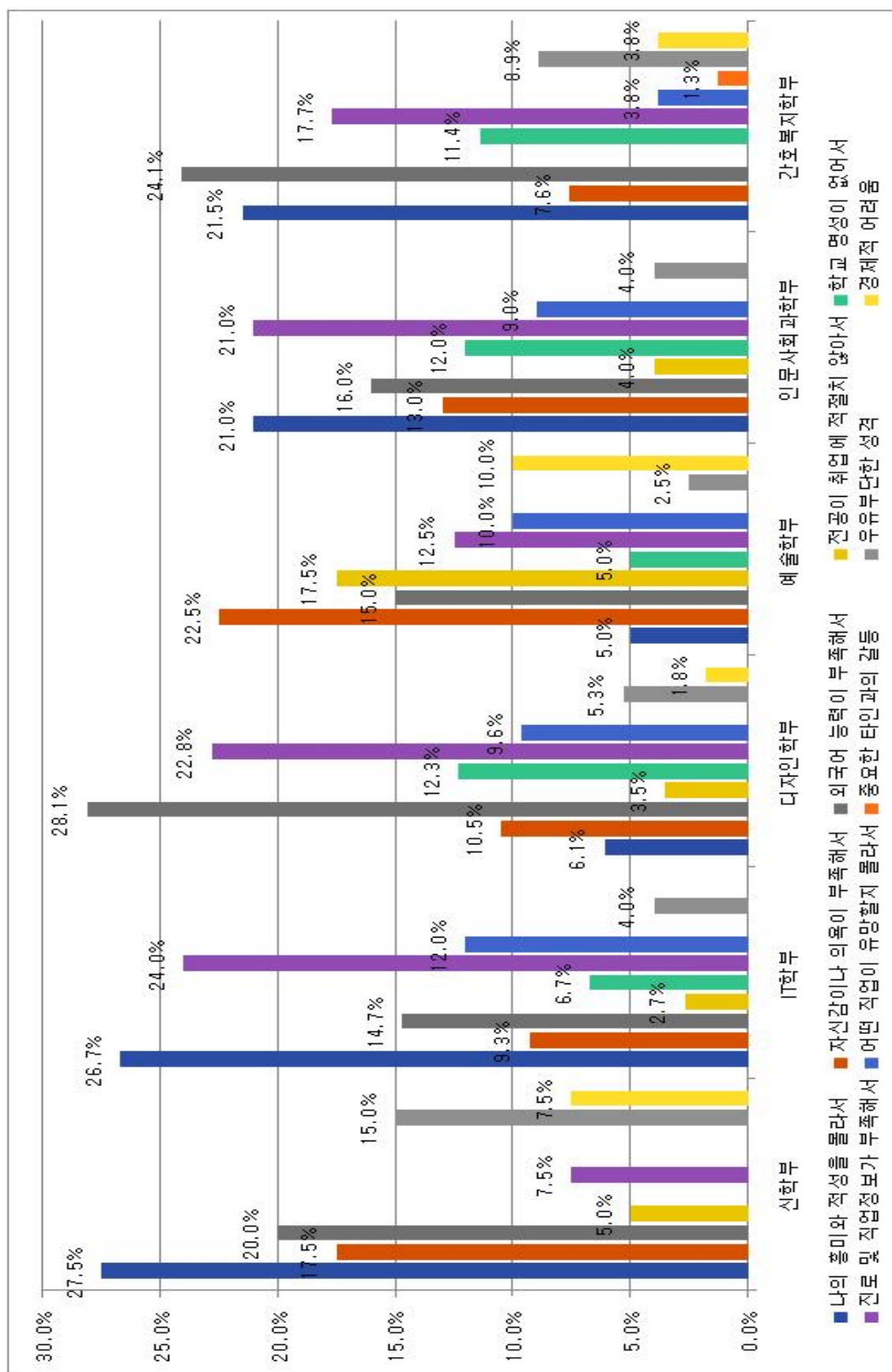


18)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19.4%),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7.4%),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12.1%), 순이었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28.1%로 가장 높았고 간호복지학부(24.1%), 신학부(20.0%) 순이다. 신학부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단위: 명, %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자신감 이나 의욕이 부족 해서	외국어 능력이 부족 해서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학교 명성이 없어서	진로 및 직업 정보가 부족 해서	어떤 직업이 유망 할지 몰라서	중요한 타인 과의 갈등	우유부 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전체
남	25	21	37	4	9	28	9	0	9	10	152
	16.4	13.8	24.3	2.6	5.9	18.4	5.9	0.0	5.9	6.6	100.0
여	53	33	55	15	33	59	27	1	18	2	296
	17.9	11.1	18.6	5.1	11.1	19.9	9.1	0.3	6.1	0.7	100.0
신학부	11	7	8	2	0	3	0	0	6	3	40
	27.5	17.5	20.0	5.0	0.0	7.5	0.0	0.0	15.0	7.5	100.0
IT학부	20	7	11	2	5	18	9	0	3	0	75
	26.7	9.3	14.7	2.7	6.7	24.0	12.0	0.0	4.0	0.0	100.0
디자인 학부	7	12	32	4	14	26	11	0	6	2	114
	6.1	10.5	28.1	3.5	12.3	22.8	9.6	0.0	5.3	1.8	100.0
예술 학부	2	9	6	7	2	5	4	0	1	4	40
	5.0	22.5	15.	17.5	5.0	12.5	10.0	0.0	2.5	1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21	13	16	4	12	21	9	0	4	0	100
	21.0	13.0	16.0	4.0	12.0	21.0	9.0	0.0	4.0	0.0	100.0
간호 복지 학부	17	6	19	0	9	14	3	1	7	3	79
	21.5	7.6	24.1	0.0	11.4	17.7	3.8	1.3	8.9	3.8	100.0
전체	78	54	92	19	42	87	36	1	27	12	448
	17.4	12.1	20.5	4.2	9.4	19.4	8.0	0.2	6.0	2.7	100.0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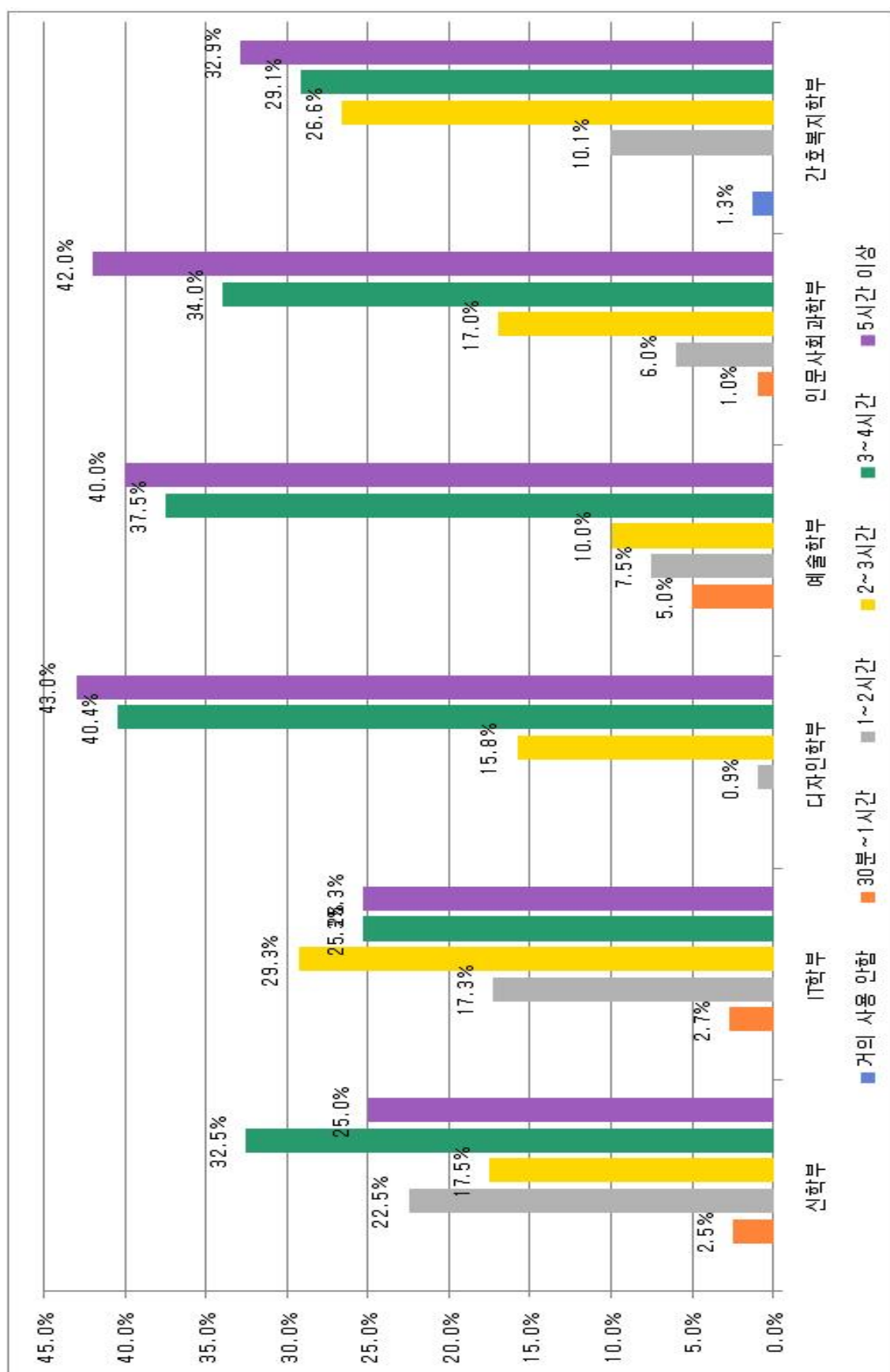
1)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36.2%)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시간(33.5%), 2~3시간(19.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가 5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문사회과학부가 42.0%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23.7%, 여학생은 42.6%가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사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3~4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5.8%로 남학생 2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5>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단위: 명, %

	거의 사용 안함	30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남	0	5	27	40	44	36	152
	0.0	3.3	17.8	26.3	28.9	23.7	100.0
여	1	1	13	49	106	126	296
	0.3	0.3	4.4	16.6	35.8	42.6	100.0
신학부	0	1	9	7	13	10	40
	0.0	2.5	22.5	17.5	32.5	25.0	100.0
IT학부	0	2	13	22	19	19	75
	0.0	2.7	17.3	29.3	25.3	25.3	100.0
디자인학부	0	0	1	18	46	49	114
	0.0	0.0	0.9	15.8	40.4	43.0	100.0
예술학부	0	2	3	4	15	16	40
	0.0	5.0	7.5	10.0	37.5	4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1	6	17	34	42	100
	0.0	1.0	6.0	17.0	34.0	42.0	100.0
간호복지학부	1	0	8	21	23	26	79
	1.3	0.0	10.1	26.6	29.1	32.9	100.0
전체	1	6	40	89	150	162	448
	0.2	1.3	8.9	19.9	33.5	3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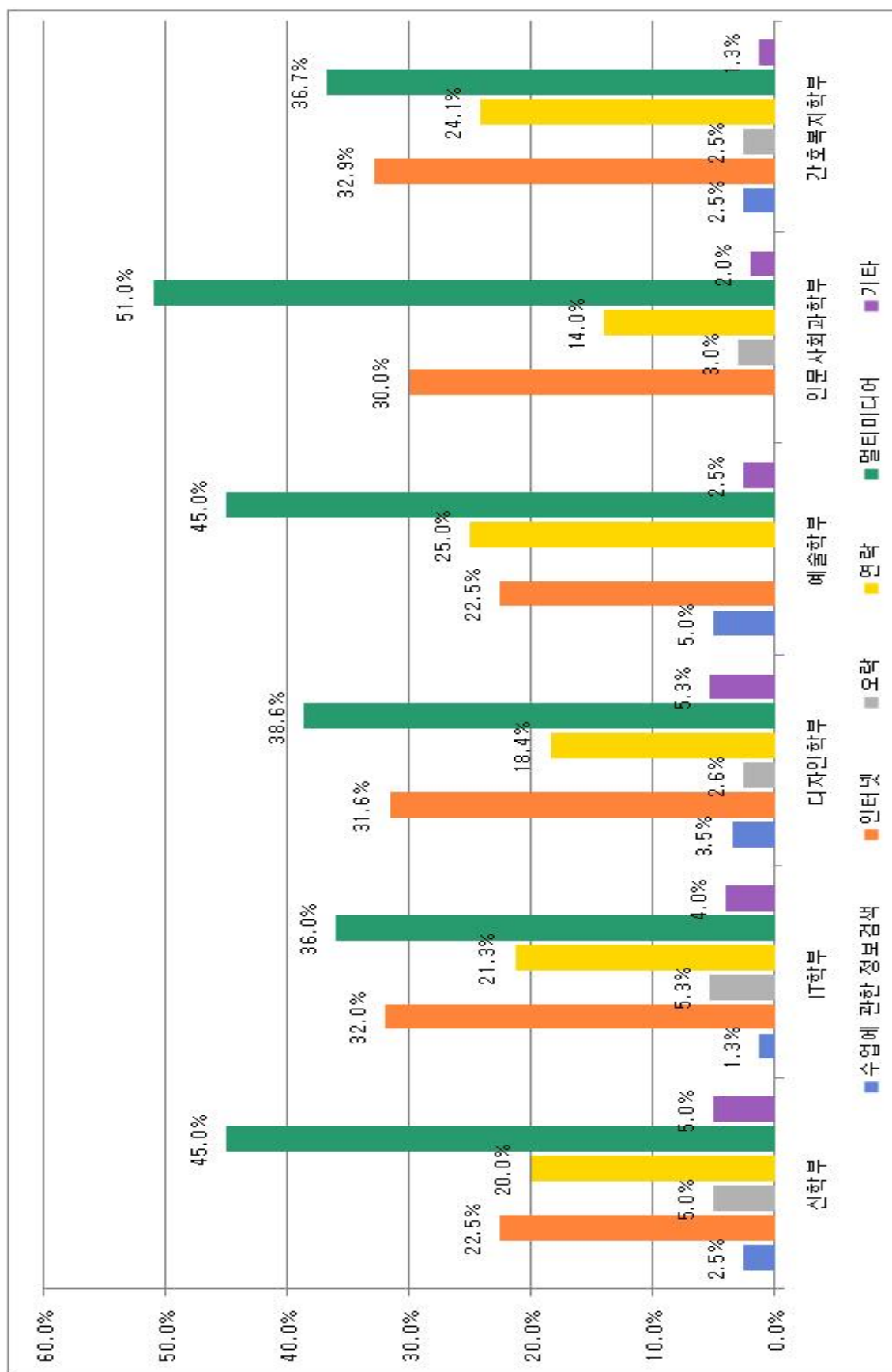
2) 핸드폰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멀티미디어(41.7%)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는 인터넷(29.9%), 연락(19.6%) 용도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멀티미디어 사용을 51.0%로 가장 높게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신학부와 예술학부(45.0%), 디자인학부(3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멀티미디어의 사용은 남학생(40.8%)에 비해 여학생(42.2%)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 핸드폰의 주된 용도

단위: 명, %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인터넷	오락	연락	멀티 미디어	기타	전체
남	3	49	7	26	62	5	152
	2.0	32.2	4.6	17.1	40.8	3.3	100.0
여	7	85	7	62	125	10	296
	2.4	28.7	2.4	20.9	42.2	3.4	100.0
신학부	1	9	2	8	18	2	40
	2.5	22.5	5.0	20.0	45.0	5.0	100.0
IT학부	1	24	4	16	27	3	75
	1.3	32.0	5.3	21.3	36.0	4.0	100.0
디자인학부	4	36	3	21	44	6	114
	3.5	31.6	2.6	18.4	38.6	5.3	100.0
예술학부	2	9	0	10	18	1	40
	5.0	22.5	0.0	25.0	45.0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30	3	14	51	2	100
	0.0	30.0	3.0	14.0	51.0	2.0	100.0
간호복지학부	2	26	2	19	29	1	79
	2.5	32.9	2.5	24.1	36.7	1.3	100.0
전체	10	134	14	88	187	15	448
	2.2	29.9	3.1	19.6	41.7	3.3	100.0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정보검색(54.5%)과 채팅 및 SNS(27.9%)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게임(13.6%), 동영상 시청(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정보검색을 한다는 응답에 6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58.8%), 예술학부(57.5%), 신학부(55.0%), 인문사회과부(49.0%) 순이다. 성별로는 남학생(55.3%), 여학생(54.1%) 모두 인터넷의 주된 용도로 정보검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채팅 및 SNS사용은 남학생(15.1%)보다 여학생(34.5%)이 두 배이상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게임사용은 남학생(26.3%)이 여학생(7.1%)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7> 인터넷의 주된 용도

단위: 명, %

	정보 검색	동영상 시청	채팅 SNS	게임	동호회 활동	파일 받기	기타	전체
남	84	2	23	40	0	2	1	152
	55.3	1.3	15.1	26.3	0.0	1.3	0.7	100.0
여	160	4	102	21	2	3	4	296
	54.1	1.4	34.5	7.1	0.7	1.0	1.4	100.0
신학부	22	0	7	7	0	3	1	40
	55.0	0.0	17.5	17.5	0.0	7.5	2.5	100.0
IT학부	48	1	7	18	1	0	0	75
	64.0	1.3	9.3	24.0	1.3	0.0	0.0	100.0
디자인학부	67	3	37	6	0	0	1	114
	58.8	2.6	32.5	5.3	0.0	0.0	0.9	100.0
예술학부	23	1	5	9	1	1	0	40
	57.5	2.5	12.5	22.5	2.5	2.5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9	0	37	12	0	0	2	100
	49.0	0.0	37.0	12.0	0.0	0.0	2.0	100.0
간호복지 학부	35	1	32	9	0	1	1	79
	44.3	1.3	40.5	11.4	0.0	1.3	1.3	100.0
전체	244	6	125	61	2	5	5	448
	54.5	1.3	27.9	13.6	0.4	1.1	1.1	100.0



6. 이성 및 성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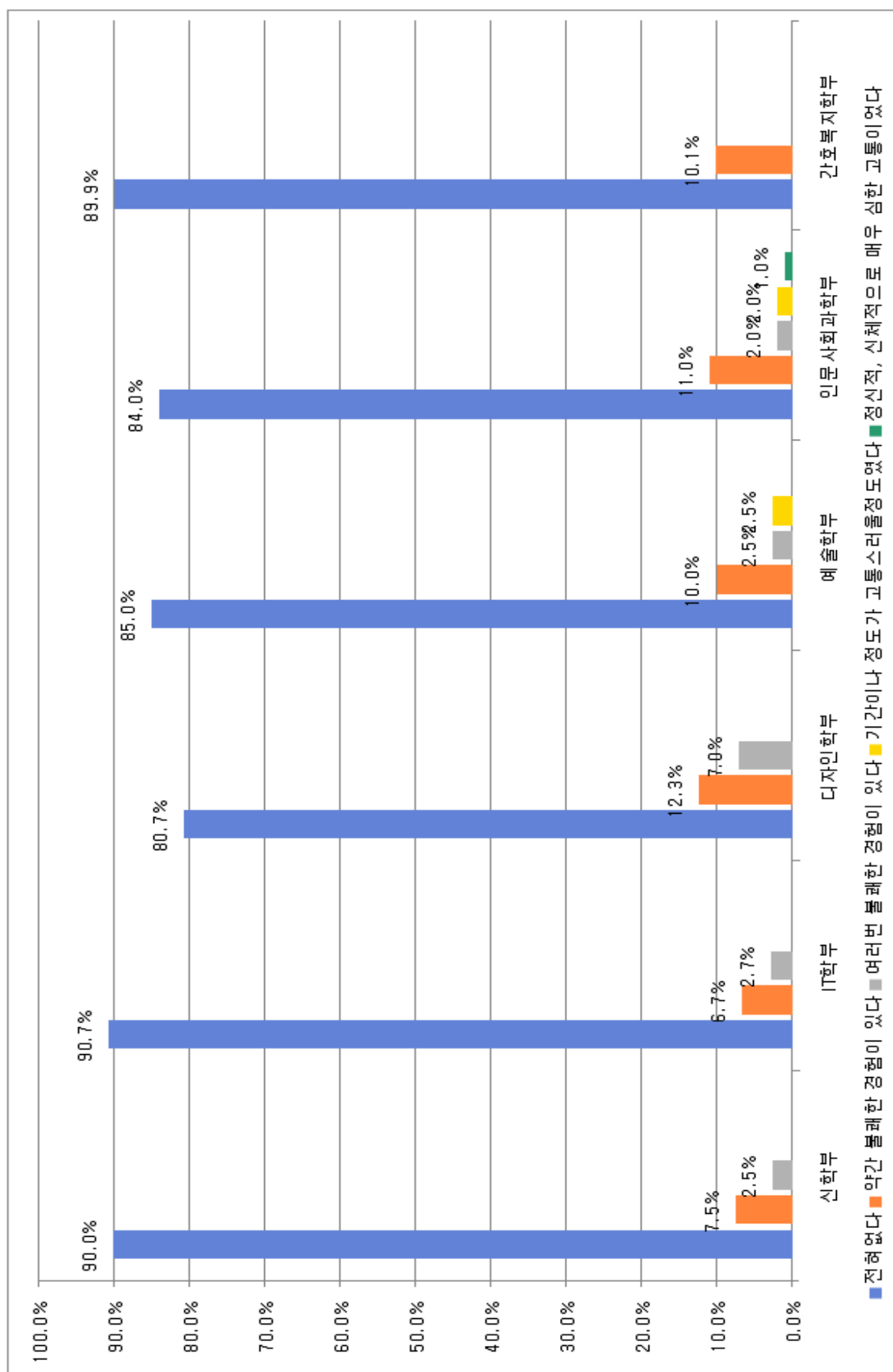
1)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5.9%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10.0%), ‘여러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3.1%),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0.7%),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0.2%)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IT학부가 9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신학부(90.0%), 간호복지학부(89.9%), 예술학부(85.0%) 순이다. 성별로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에 남학생(99.3%)이 여학생(79.1%)에 비해 높아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명, %

	전혀없다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여러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전체
남	151	1	0	0	0	152
	99.3	0.7	0.0	0.0	0.0	100.0
여	234	44	14	3	1	296
	79.1	14.9	4.7	1.0	0.3	100.0
신학부	36	3	1	0	0	40
	90.0	7.5	2.5	0.0	0.0	100.0
IT학부	68	5	2	0	0	75
	90.7	6.7	2.7	0.0	0.0	100.0
디자인학부	92	14	8	0	0	114
	80.7	12.3	7.0	0.0	0.0	100.0
예술학부	34	4	1	1	0	40
	85.0	10.0	2.5	2.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84	11	2	2	1	100
	84.0	11.0	2.0	2.0	1.0	100.0
간호복지학부	71	8	0	0	0	79
	89.9	10.1	0.0	0.0	0.0	100.0
전체	385	45	14	3	1	448
	85.9	10.0	3.1	0.7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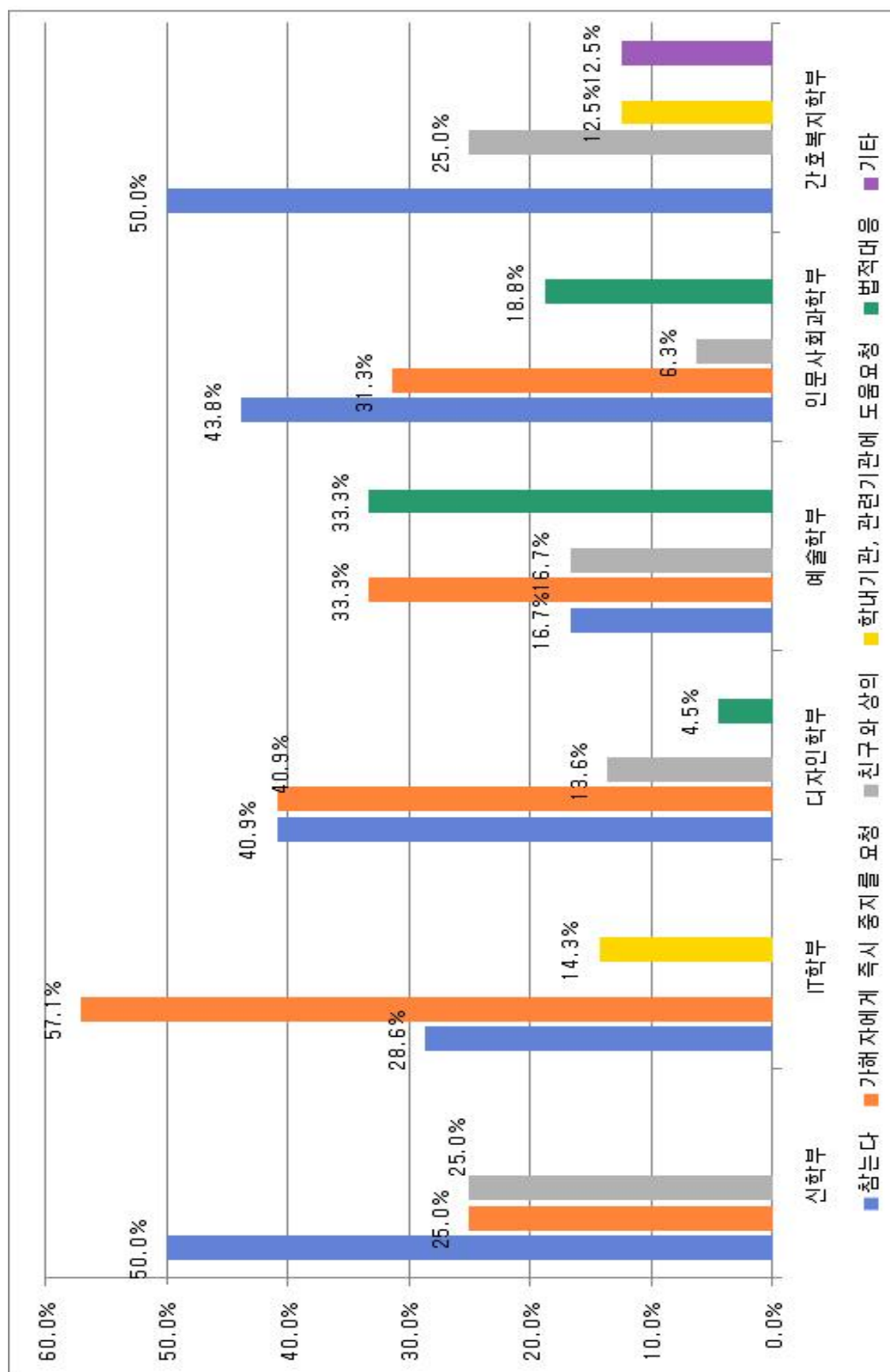
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참는다’가 39.7%,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33.3%), ‘친구와 상의’(12.7%), ‘법적대응’(9.5%) 순으로 응답하였다.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와 간호복지학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과학부(43.8%), 디자인학부(40.9%), IT학부(28.6%), 예술학부(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단위: 명, %

	참는다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요청	친구와 상의	학내기관, 관련 기관에 도움요청	법적대응	기타	전체
남	0	1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100.0
여	25	20	8	2	6	1	62
	40.3	32.3	12.9	3.2	9.7	1.6	100.0
신학부	2	1	1	0	0	0	4
	50.0	25.0	25.0	0.0	0.0	0.0	100.0
IT학부	2	4	0	1	0	0	7
	28.6	57.1	0.0	14.3	0.0	0.0	100.0
디자인학부	9	9	3	0	1	0	22
	40.9	40.9	13.6	0.0	4.5	0.0	100.0
예술학부	1	2	1	0	2	0	6
	16.7	33.3	16.7	0.0	33.3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	5	1	0	3	0	16
	43.8	31.3	6.3	0.0	18.8	0.0	100.0
간호복지 학부	4	0	2	1	0	1	8
	50.0	0.0	25.0	12.5	0.0	12.5	100.0
전체	25	21	8	2	6	1	63
	39.7	33.3	12.7	3.2	9.5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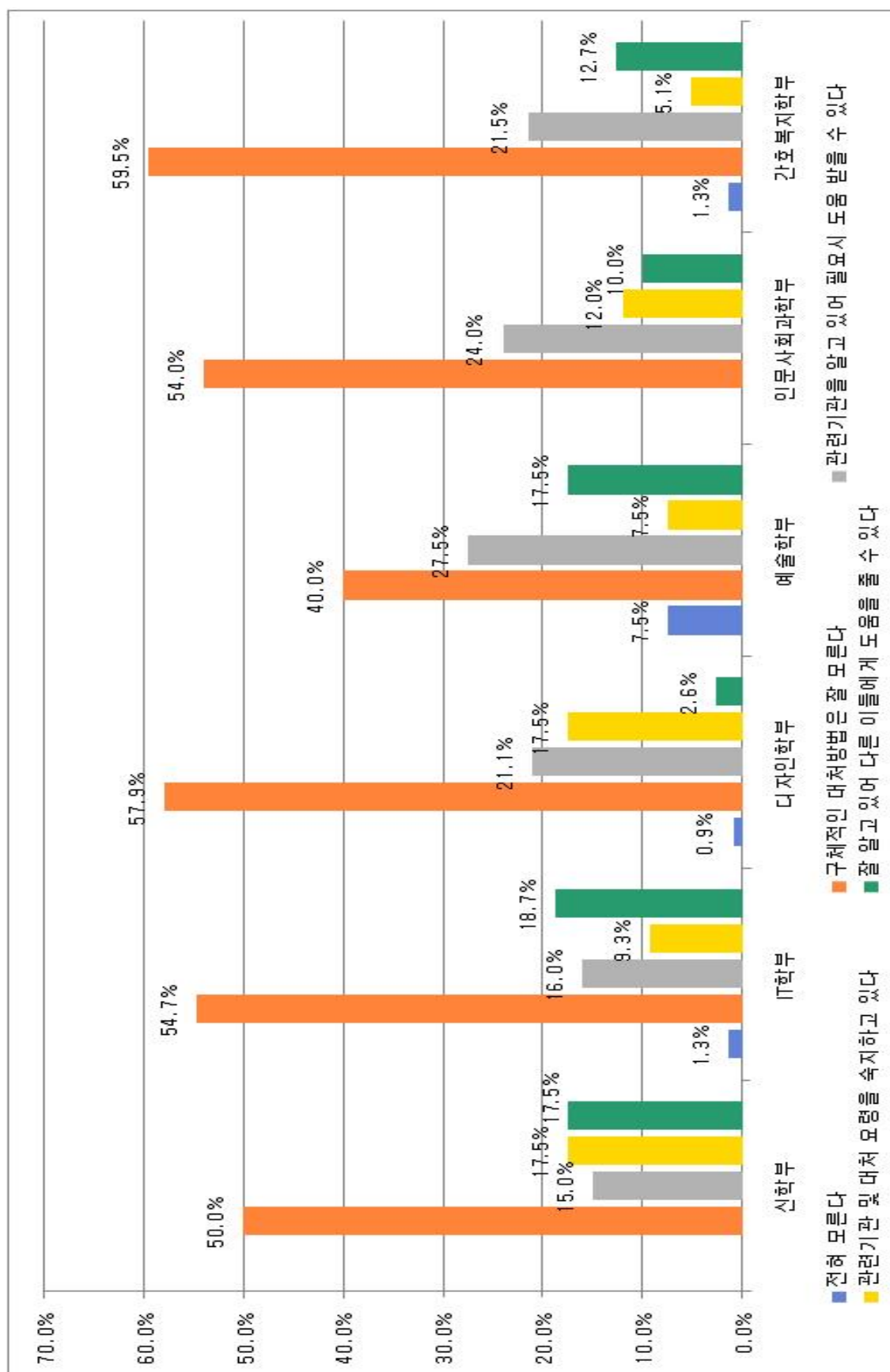
3)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21.0%),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1.8%),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1.4%), ‘전혀 모른다’(1.3%)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가 5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디자인학부(57.9%), IT학부(54.7%), 인문사회과학부(5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52.0%), 여학생(55.7%) 모두 구체적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0>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
남	3	79	25	17	28	152
	2.0	52.0	16.4	11.2	18.4	100.0
여	3	165	69	36	23	296
	1.0	55.7	23.3	12.2	7.8	100.0
신학부	0	20	6	7	7	40
	0.0	50.0	15.0	17.5	17.5	100.0
IT학부	1	41	12	7	14	75
	1.3	54.7	16.0	9.3	18.7	100.0
디자인학부	1	66	24	20	3	114
	0.9	57.9	21.1	17.5	2.6	100.0
예술학부	3	16	11	3	7	40
	7.5	40.0	27.5	7.5	1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54	24	12	10	100
	0.0	54.0	24.0	12.0	10.0	100.0
간호복지학부	1	47	17	4	10	79
	1.3	59.5	21.5	5.1	12.7	100.0
전체	6	244	94	53	51	448
	1.3	54.5	21.0	11.8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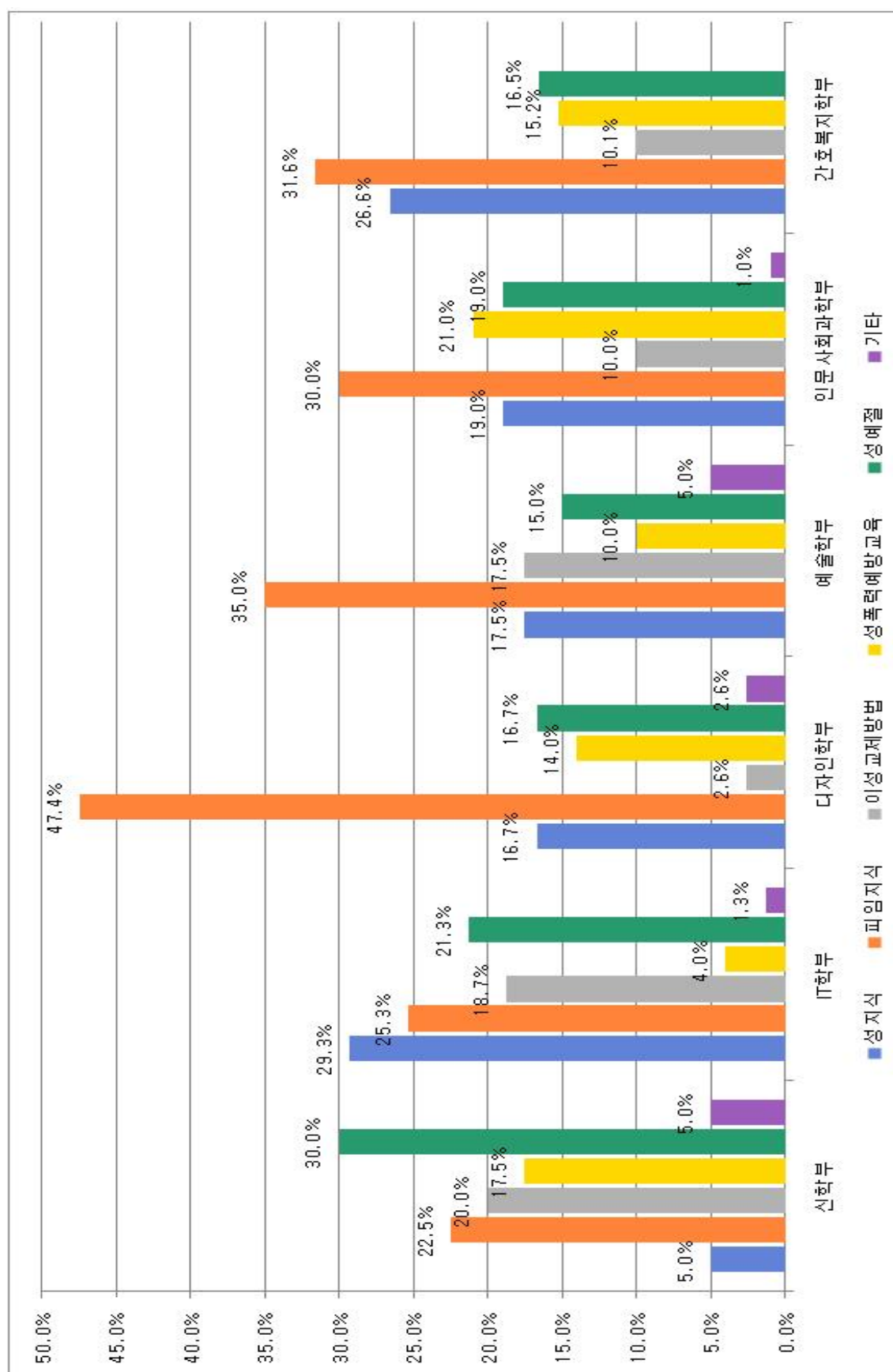
4)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지식’(20.1%), ‘성예절’(19.0%), ‘성폭력 예방교육’(14.1%), ‘이성교제 방법’(11.2%) 순이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피임지식’에 대하여 디자인학부(47.4%), 예술학부(35.0%), 간호복지학부(31.6%), 인문사회과학부(30.0%)가, ‘성예절’에 대하여는 신학부(30.0%)가, ‘성지식’에 대해서는 IT학부가 가장 알고 싶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7.0%)은 성예절, 여학생(44.3%)은 피임지식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4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단위: 명, %

	성지식	피임지식	이성교제 방법	성폭력에 방교육	성예절	기타	전체
남	38	20	31	18	41	4	152
	25.0	13.2	20.4	11.8	27.0	2.6	100.0
여	52	131	19	45	44	5	296
	17.6	44.3	6.4	15.2	14.9	1.7	100.0
신학부	2	9	8	7	12	2	40
	5.0	22.5	20.0	17.5	30.0	5.0	100.0
IT학부	22	19	14	3	16	1	75
	29.3	25.3	18.7	4.0	21.3	1.3	100.0
디자인학부	19	54	3	16	19	3	114
	16.7	47.4	2.6	14.0	16.7	2.6	100.0
예술학부	7	14	7	4	6	2	40
	17.5	35.0	17.5	10.0	15.0	5.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9	30	10	21	19	1	100
	19.0	30.0	10.0	21.0	19.0	1.0	100.0
간호복지학부	21	25	8	12	13	0	79
	26.6	31.6	10.1	15.2	16.5	0.0	100.0
전체	90	151	50	63	85	9	448
	20.1	33.7	11.2	14.1	19.0	2.0	100.0



7. 상담센터 관련

1)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1) 외로움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0%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42.6%), 자주 그렇다(11.2%), 거의 항상 그렇다(2.2%)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학부가 47.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디자인학부(46.5%), IT학부(45.3%), 인문사회과학부(43.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끔 그렇다(42.8%, 44.6%), 전혀 없다(40.8%, 4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외로움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항상 그렇다	전체
남	62	65	23	2	152
	40.8	42.8	15.1	1.3	100.0
여	129	132	27	8	296
	43.6	44.6	9.1	2.7	100.0
신학부	18	19	3	0	40
	45.0	47.5	7.5	0.0	100.0
IT학부	29	34	10	2	75
	38.7	45.3	13.3	2.7	100.0
디자인학부	42	53	14	5	114
	36.8	46.5	12.3	4.4	100.0
예술학부	17	17	5	1	40
	42.5	42.5	12.5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42	43	13	2	100
	42.0	43.0	13.0	2.0	100.0
간호복지학부	43	31	5	0	79
	54.4	39.2	6.3	0.0	100.0
전체	191	197	50	10	448
	42.6	44.0	11.2	2.2	100.0



(2) 불안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9%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없다’(37.5%), ‘자주 그렇다’(15.4%), ‘거의 항상 그렇다’(2.2%)순이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가 5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디자인 학부(49.1%), 간호복지학부(43.0%), IT학부(42.7%), 인문사회과학부(4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가끔 그렇다’가 45.4%로 가장 높았고, 38.8%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44.6%가 ‘가끔 그렇다’, 36.8%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표 43> 불안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항상 그렇다	전체
남	59	69	23	1	152
	38.8	45.4	15.1	0.7	100.0
여	109	132	46	9	296
	36.8	44.6	15.5	3.0	100.0
신학부	21	14	5	0	40
	52.5	35.0	12.5	0.0	100.0
IT학부	28	32	14	1	75
	37.3	42.7	18.7	1.3	100.0
디자인학부	31	56	24	3	114
	27.2	49.1	21.1	2.6	100.0
예술학부	12	23	5	0	40
	30.0	57.5	12.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40	42	14	4	100
	40.0	42.0	14.0	4.0	100.0
간호복지학부	36	34	7	2	79
	45.6	43.0	8.9	2.5	100.0
전체	168	201	69	10	448
	37.5	44.9	15.4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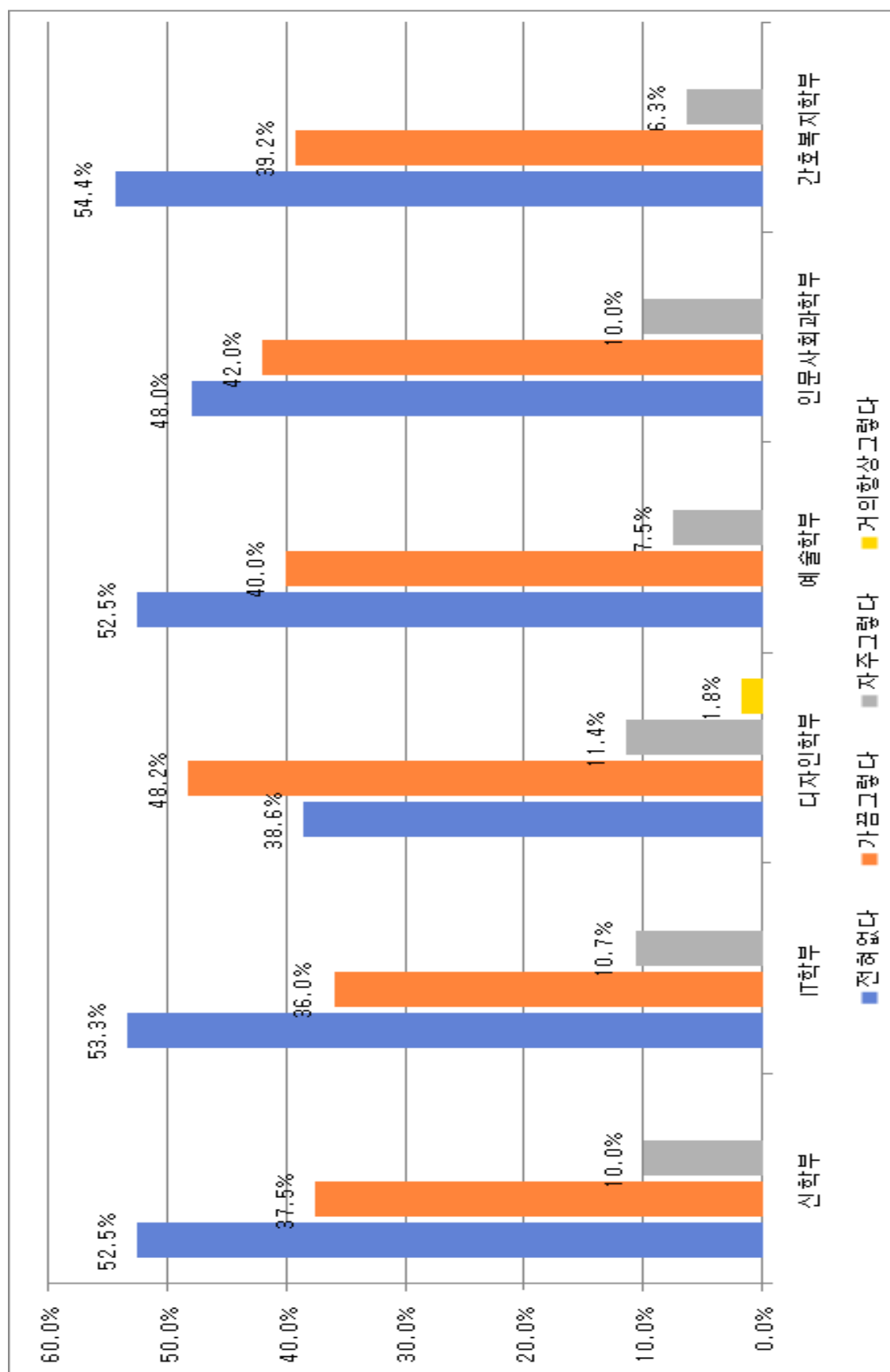
(3) 분노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8.4%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1.5%), ‘자주 그렇다’(9.6%), ‘거의 항상 그렇다’(0.4%) 순이었다.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48.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문사회과학부(42.0%), 예술학부(40.0%), 간호복지학부(39.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은 각각 59.9%, 42.6%가 ‘전혀 없다’에 응답하였고,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33.6%, 여학생 45.6%로 나타났다.

<표 44> 분노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항상 그렇다	전체
남	91	51	10	0	152
	59.9	33.6	6.6	0.0	100.0
여	126	135	33	2	296
	42.6	45.6	11.1	0.7	100.0
신학부	21	15	4	0	40
	52.5	37.5	10.0	0.0	100.0
IT학부	40	27	8	0	75
	53.3	36.0	10.7	0.0	100.0
디자인학부	44	55	13	2	114
	38.6	48.2	11.4	1.8	100.0
예술학부	21	16	3	0	40
	52.5	40.0	7.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48	42	10	0	100
	48.0	42.0	1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43	31	5	0	79
	54.4	39.2	6.3	0.0	100.0
전체	217	186	43	2	448
	48.4	41.5	9.6	0.4	100.0



(4) 우울 · 무기력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3.3%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8.4%), ‘자주 그렇다’(15.2%), ‘거의 항상 그렇다’(3.1%)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학부가 50.0%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47.4%), 인문사회과학부(43.0%), IT학부(4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무기력의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에 ‘가끔 그렇다’(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전혀 없다’(48.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5> 우울·무기력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항상 그렇다	전체
남	74	54	22	2	152
	48.7	35.5	14.5	1.3	100.0
여	98	140	46	12	296
	33.1	47.3	15.5	4.1	100.0
신학부	18	20	2	0	40
	45.0	50.0	5.0	0.0	100.0
IT학부	34	31	9	1	75
	45.3	41.3	12.0	1.3	100.0
디자인학부	32	54	23	5	114
	28.1	47.4	20.2	4.4	100.0
예술학부	18	15	6	1	40
	45.0	37.5	15.0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33	43	21	3	100
	33.0	43.0	21.0	3.0	100.0
간호복지학부	37	31	7	4	79
	46.8	39.2	8.9	5.1	100.0
전체	172	194	68	14	448
	38.4	43.3	15.2	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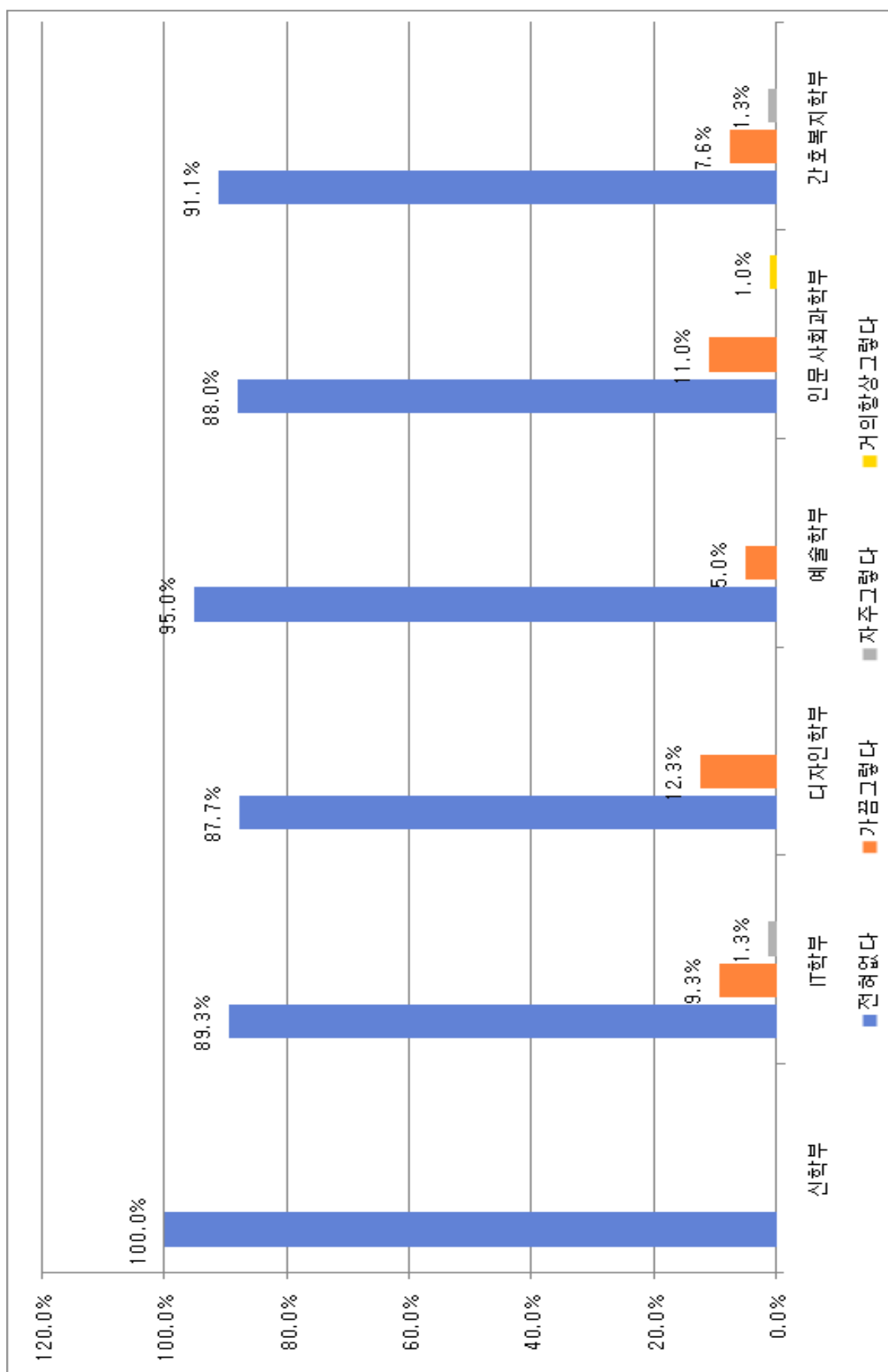
(5) 자살충동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충동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0.4%가 '전혀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가끔 그렇다'(8.9%), '거의 항상 그렇다'(0.4%), '자주 그렇다'(0.2%) 순이었다. 자살충동이 '전혀 없다'의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100%), 예술학부(95.0%)순으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학부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94.7%), 여학생(88.2%) 모두 '전혀 없다'가 가장 높았다.

<표 46> 자살충동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항상 그렇다	전체
남	144	8	0	0	152
	94.7	5.3	0.0	0.0	100.0
여	261	32	2	1	296
	88.2	10.8	0.7	0.3	100.0
신학부	40	0	0	0	40
	100.0	0.0	0.0	0.0	100.0
IT학부	67	7	1	0	75
	89.3	9.3	1.3	0.0	100.0
디자인학부	100	14	0	0	114
	87.7	12.3	0.0	0.0	100.0
예술학부	38	2	0	0	40
	95.0	5.0	0.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88	11	0	1	100
	88.0	11.0	0.0	1.0	100.0
간호복지학부	72	6	1	0	79
	91.1	7.6	1.3	0.0	100.0
전체	405	40	2	1	448
	90.4	8.9	0.4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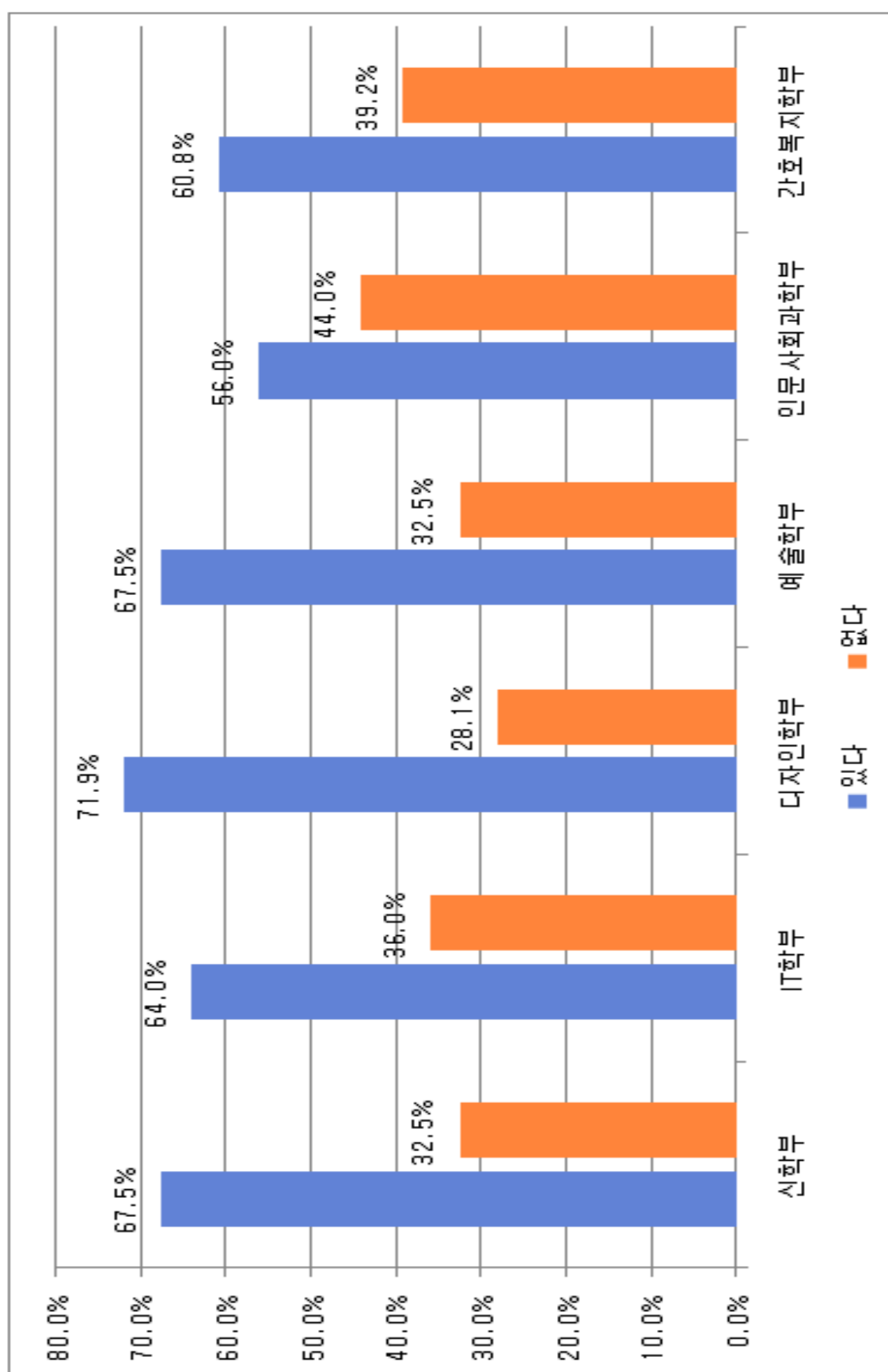


2)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신입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64.3%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디자인학부가 71.9%로 가장 높았고, 신학부와 예술학부(67.5%), IT학부(64.0%)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6.6%)은 남학생(55.9%)에 비하여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85	67	152
	55.9	44.1	100.0
여	203	93	296
	68.6	31.4	100.0
신학부	27	13	40
	67.5	32.5	100.0
IT학부	48	27	75
	64.0	36.0	100.0
디자인학부	82	32	114
	71.9	28.1	100.0
예술학부	27	13	40
	67.5	3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56	44	100
	56.0	44.0	100.0
간호복지학부	48	31	79
	60.8	39.2	100.0
전체	288	160	448
	64.3	3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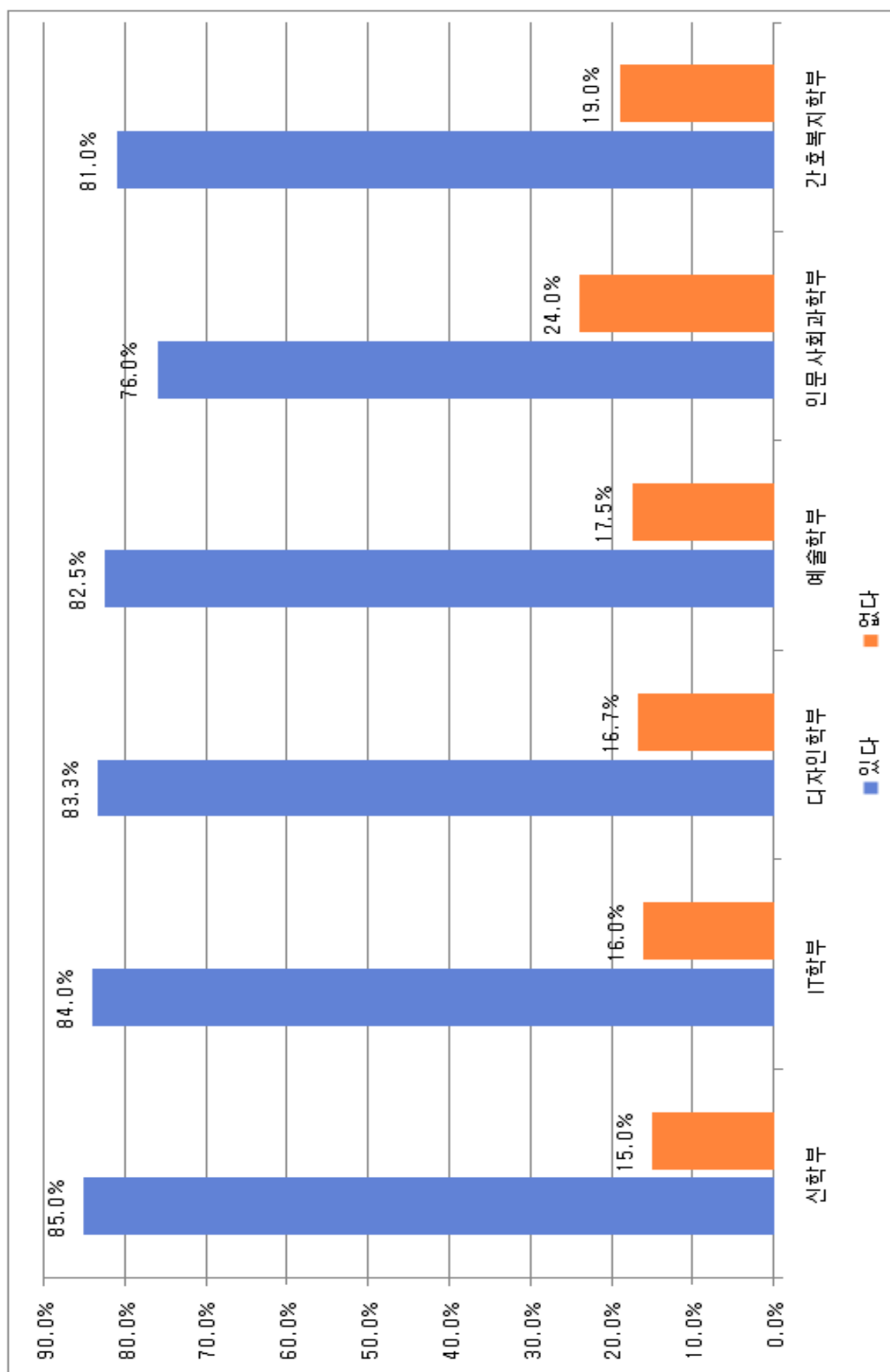


3)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81.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없다'라는 응답에는 18.5%가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에 신학부가 8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IT학부(84.0%), 디자인학부(83.3%), 예술학부(8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83.6%)과 여학생(80.4%) 모두 심리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48>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27	25	152
	83.6	16.4	100.0
여	238	58	296
	80.4	19.6	100.0
신학부	34	6	40
	85.0	15.0	100.0
IT학부	63	12	75
	84.0	16.0	100.0
디자인학부	95	19	114
	83.3	16.7	100.0
예술학부	33	7	40
	82.5	1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76	24	100
	76.0	24.0	100.0
간호복지학부	64	15	79
	81.0	19.0	100.0
전체	365	83	448
	81.5	1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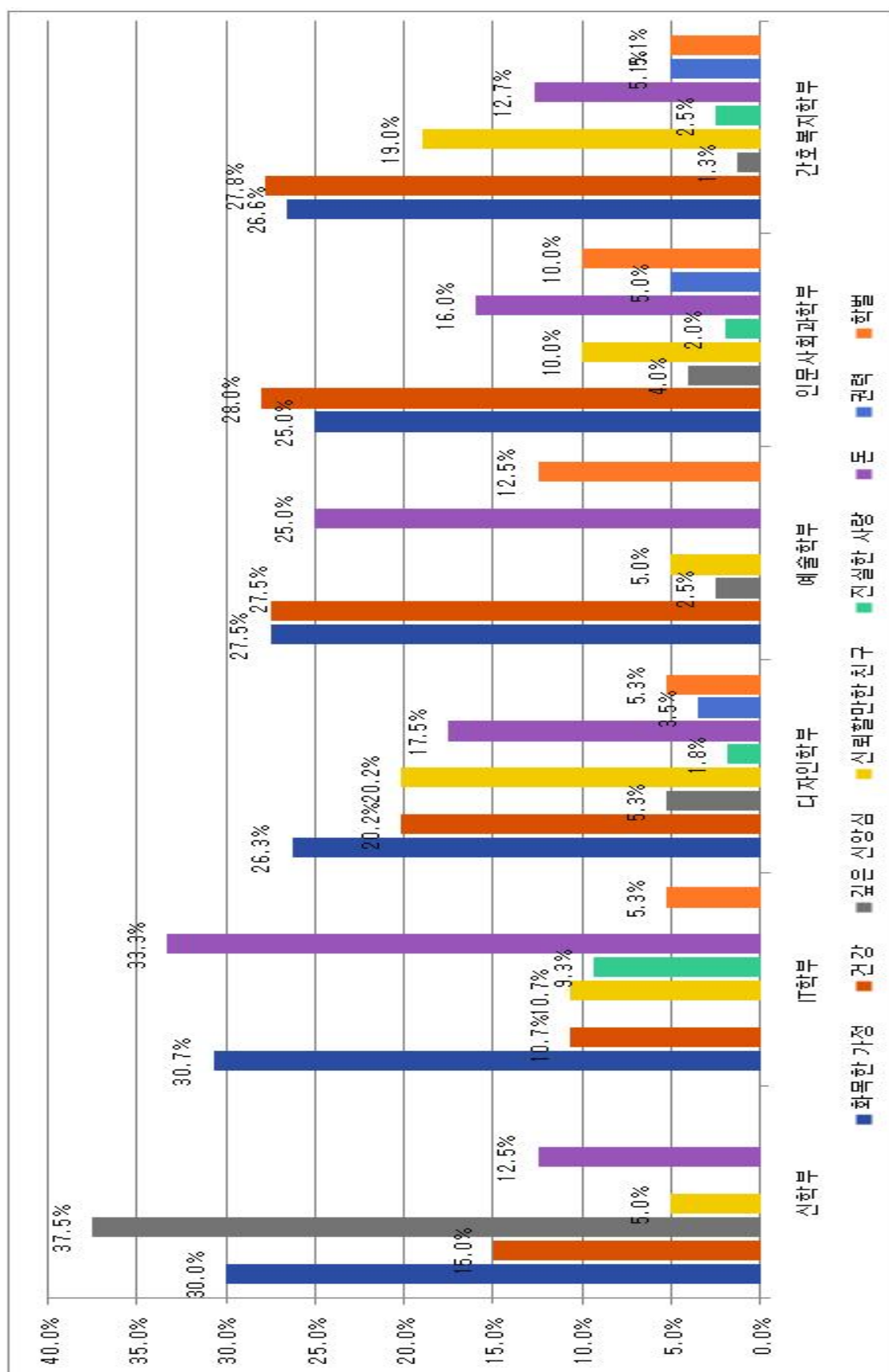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건강’(21.9%), ‘돈’(19.2%), ‘신뢰할만한 친구’(13.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는 응답에 IT학부(30.7%), 신학부(30.0%), 예술학부(2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3.7%), 여학생(29.1%) 모두 높은 비율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9>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화목한 가정	건강	깊은 신앙심	신뢰할 만한 친구	진실한 사랑	돈	사회적 지위	기타	전체
남	36	33	12	18	9	27	3	14	152
	23.7	21.7	7.9	11.8	5.9	17.8	2.0	9.2	100.0
여	86	65	15	42	4	59	10	15	296
	29.1	22.0	5.1	14.2	1.4	19.9	3.4	5.10%	100.0
신학부	12	6	15	2	0	5	0	0	40
	30.0	15.0	37.5	5.0	0.0	12.5	0.0	0.0	100.0
IT학부	23	8	0	8	7	25	0	4	75
	30.7	10.7	0.0	10.70	9.3	33.3	0.0	5.3	100.0
디자인 학부	30	23	6	23	2	20	4	6	114
	26.3	20.2	5.3	20.2	1.8	17.5	3.5	5.3	100.0
예술학부	11	11	1	2	0	10	0	5	40
	27.5	27.5	2.5	5.0	0.0	25.0	0.0	12.5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5	28	4	10	2	16	5	10	100
	25.0	28.0	4.0	10.0	2.0	16.0	5.0	10.0	100.0
간호복지 학부	21	22	1	15	2	10	4	4	79
	26.6	27.8	1.3	19.0	2.5	12.7	5.1	5.1	100.0
전체	122	98	27	60	13	86	13	29	448
	27.2	21.9	6.0	13.4	2.9	19.2	2.9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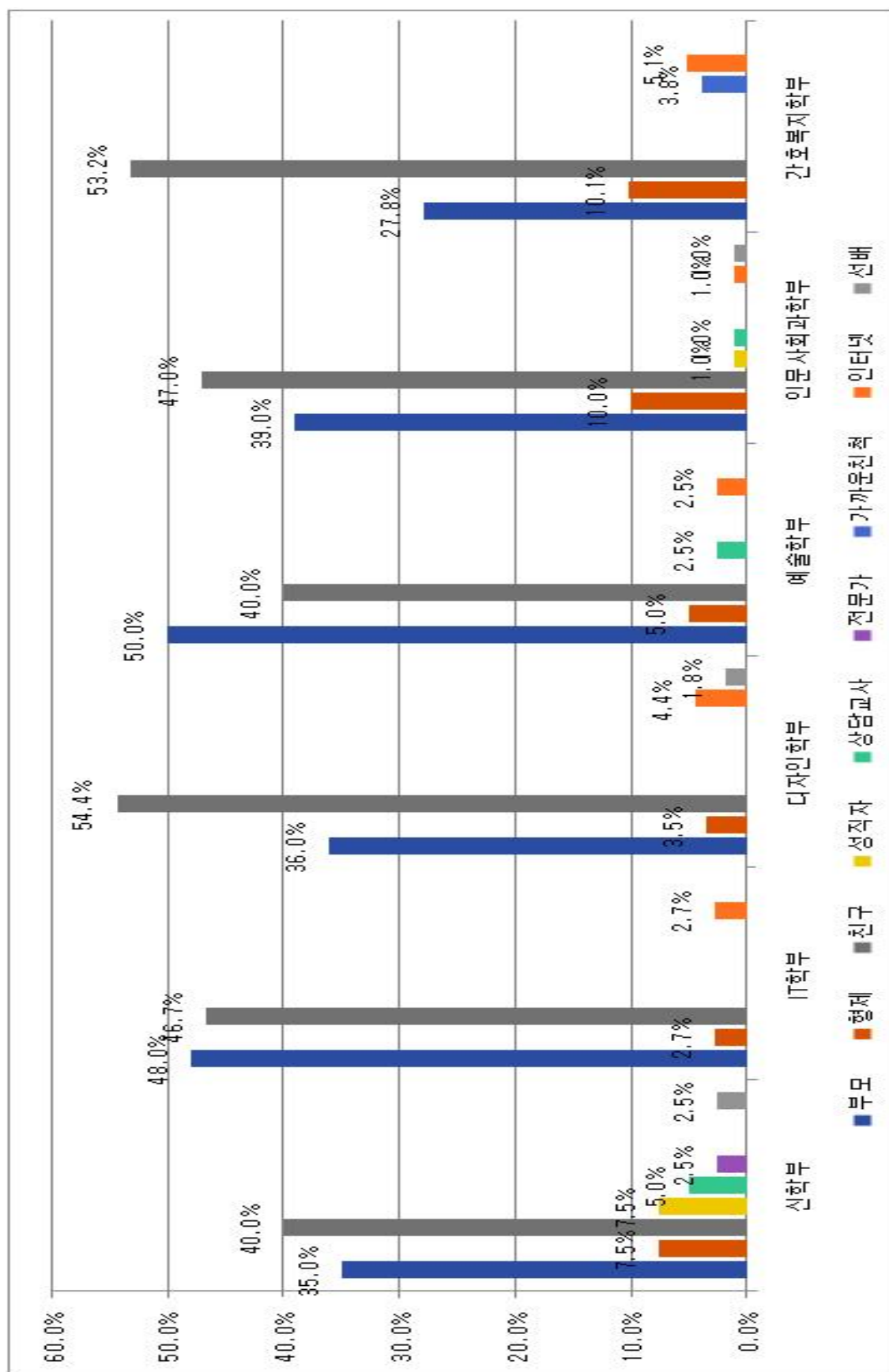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친구’라는 응답이 전체의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부모’(38.4%), ‘형제’(6.5%), ‘인터넷’(2.9%) 순이다. 문제 발생 시 의논상대가 ‘친구’라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54.4%), 간호복지학부(53.2%), 인문사회과학부(47.0%)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라는 응답에서는 예술학부(50.0%), IT학부(48.0%), 인문사회과학부(39.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5.4%), 여학생(50.3%) 모두 문제 발생 시 의논상대로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표 50>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단위: 명, %

	부모	형제	친구	성직자	상담교사	전문가	가까운 친척	인터넷	선배	전체
남	68	5	69	2	4	1	0	2	1	152
	44.7	3.3	45.4	1.3	2.6	0.7	0.0	1.3	0.7	100.0
여	104	24	149	2	0	0	3	11	3	296
	35.1	8.1	50.3	0.7	0.0	0.0	1.0	3.7	1.0	100.0
신학부	14	3	16	3	2	1	0	0	1	40
	35.0	7.5	40.0	7.5	5.0	2.5	0.0	0.0	2.5	100.0
IT학부	36	2	35	0	0	0	0	2	0	75
	48.0	2.7	46.7	0.0	0.0	0.0	0.0	2.7	0.0	100.0
디자인학부	41	4	62	0	0	0	0	5	2	114
	36.0	3.5	54.4	0.0	0.0	0.0	0.0	4.4	1.8	100.0
예술학부	20	2	16	0	1	0	0	1	0	40
	50.0	5.0	40.0	0.0	2.5	0.0	0.0	2.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39	10	47	1	1	0	0	1	1	100
	39.0	10.0	47.0	1.0	1.0	0.0	0.0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22	8	42	0	0	0	3	4	0	79
	27.8	10.1	53.2	0.0	0.0	0.0	3.8	5.1	0.0	100.0
전체	172	29	218	4	4	1	3	13	4	448
	38.4	6.5	48.7	0.9	0.9	0.2	0.7	2.9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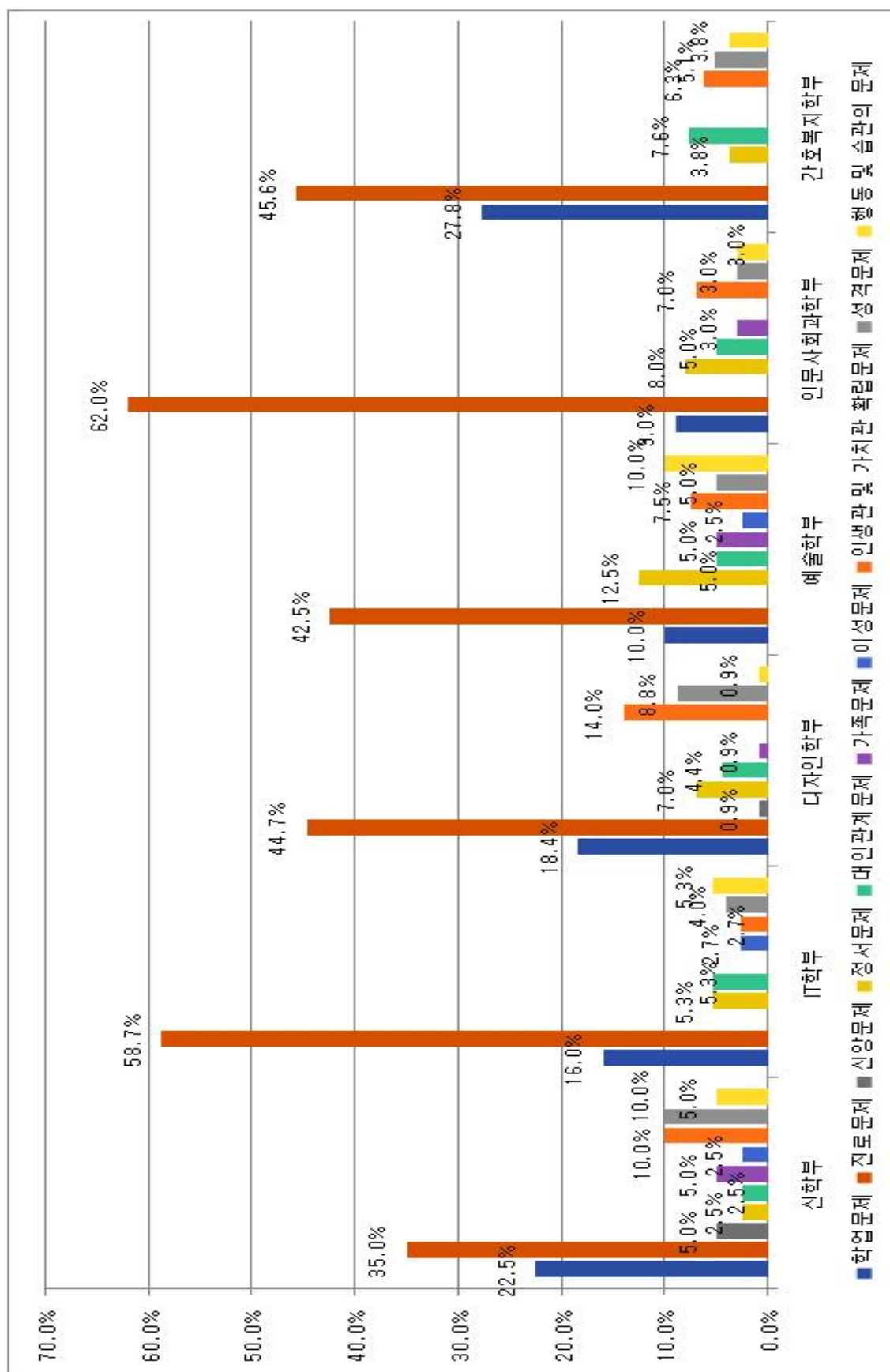
6)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0.0%가 '진로문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업문제'(17.2%),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8.3%), '정서문제'(6.5%) 순이었다. '진로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62.0%로 가장 높았고, IT학부(58.7%), 간호복지학부(45.6%), 디자인학부(44.7%) 순이다. '학업 문제'의 경우 간호복지학부가 27.8%로 가장 높았고, 신학부(22.5%), 디자인학부(18.4%), IT학부(16.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46.1%), 여학생(52.0%) 모두 높은 비율로 '진로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표 51>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단위: 명, %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	정서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이성 문제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성격 문제	행동 및 습관의 문제	전체
남	31	70	2	8	8	2	3	9	11	8	152
	20.4	46.1	1.3	5.3	5.3	1.3	2.0	5.9	7.2	5.3	100.0
여	46	154	1	21	15	6	1	28	15	9	296
	15.5	52.0	0.3	7.1	5.1	2.0	0.3	9.5	5.1	3.0	100.0
신학부	9	14	2	1	1	2	1	4	4	2	40
	22.5	35.0	5.0	2.5	2.5	5.0	2.5	10.0	10.0	5.0	100.0
IT학부	12	44	0	4	4	0	2	2	3	4	75
	16.0	58.7	0.0	5.3	5.3	0.0	2.7	2.7	4.0	5.3	100.0
디자인 학부	21	51	1	8	5	1	0	16	10	1	114
	18.4	44.7	0.9	7.0	4.4	0.9	0.0	14.0	8.8	0.9	100.0
예술 학부	4	17	0	5	2	2	1	3	2	4	40
	10.0	42.5	0.0	12.5	5.0	5.0	2.5	7.5	5.0	1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9	62	0	8	5	3	0	7	3	3	100
	9.0	62.0	0.0	8.0	5.0	3.0	0.0	7.0	3.0	3.0	100.0
간호 복지 학부	22	36	0	3	6	0	0	5	4	3	79
	27.8	45.6	0.0	3.8	7.6	0.0	0.0	6.3	5.1	3.8	100.0
전체	77	224	3	29	23	8	4	37	26	17	448
	17.2	50.0	0.7	6.5	5.1	1.8	0.9	8.3	5.8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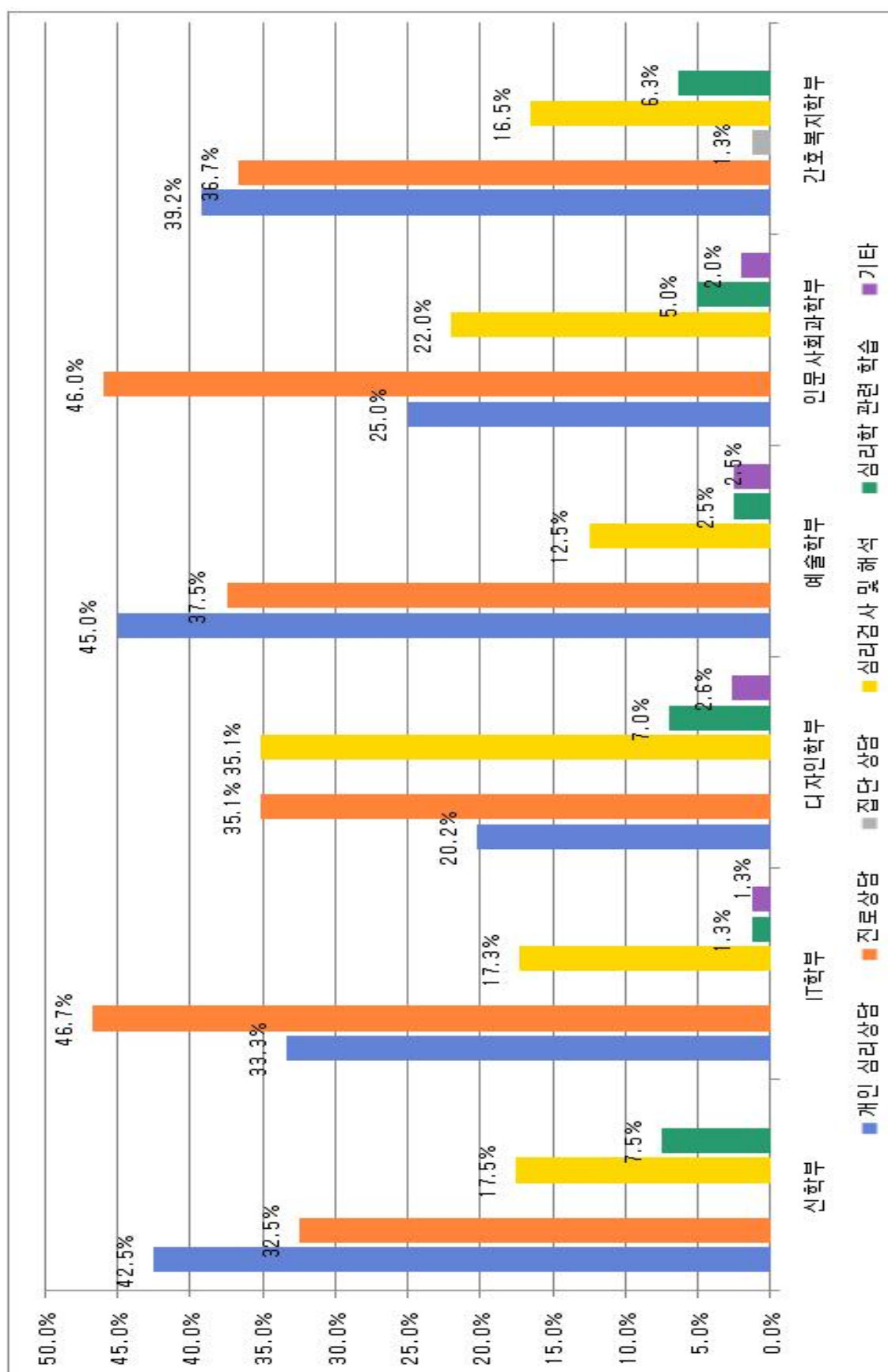
7) 상담실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상담’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개인심리상담’(31.0%), ‘심리검사 및 해석’(22.3%), ‘심리학 관련 학습’(5.1%)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을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사회과학부(46.0%), 예술학부(37.5%)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2.0%), 여학생(33.4%)모두 ‘진로상담’을 가장 원하였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2> 상담실 이용시 희망하는 서비스

단위: 명, %

	개인 심리상담	진로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심리학 관련 학습	기타	전체
남	46	79	0	19	5	3	152
	30.3	52.0	0.0	12.5	3.3	2.0	100.0
여	93	99	1	81	18	4	296
	31.4	33.4	0.3	27.4	6.1	1.4	100.0
신학부	17	13	0	7	3	0	40
	42.5	32.5	0.0	17.5	7.5	0.0	100.0
IT학부	25	35	0	13	1	1	75
	33.3	46.7	0.0	17.3	1.3	1.3	100.0
디자인학부	23	40	0	40	8	3	114
	20.2	35.1	0.0	35.1	7.0	2.6	100.0
예술학부	18	15	0	5	1	1	40
	45.0	37.5	0.0	12.5	2.5	2.5	100.0
인문사회과학부	25	46	0	22	5	2	100
	25.0	46.0	0.0	22.0	5.0	2.0	100.0
간호복지학부	31	29	1	13	5	0	79
	39.2	36.7	1.3	16.5	6.3	0.0	100.0
전체	139	178	1	100	23	7	448
	31.0	39.7	0.2	22.3	5.1	1.6	100.0



8. 자살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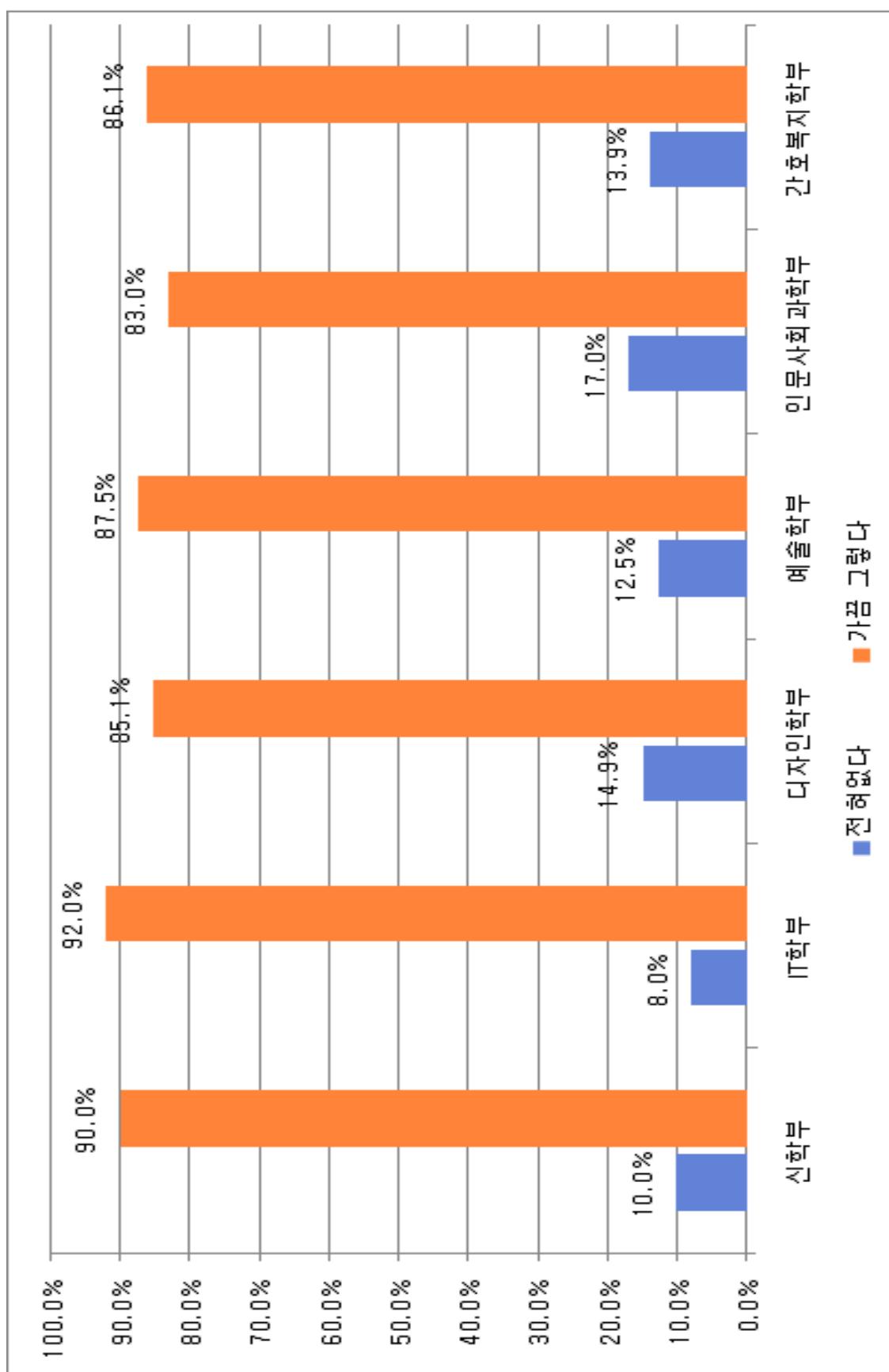
1)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유무

신입생들에게 과거 또는 최근에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86.6%가 없다고 하였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17.0%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14.9%), 간호복지학부(13.9%), 예술학부(1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자살에 대한 생각에 대해 남학생은 7.9% 여학생은 16.2%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자살 생각이 약 두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있다	없다	전체
남	12	140	152
	7.9	92.1	100.0
여	48	248	296
	16.2	83.8	100.0
신학부	4	36	40
	10.0	90.0	100.0
IT학부	6	69	75
	8.0	92.0	100.0
디자인학부	17	97	114
	14.9	85.1	100.0
예술학부	5	35	40
	12.5	87.5	100.0
인문사회과학부	17	83	100
	17.0	83.0	100.0
간호복지학부	11	68	79
	13.9	86.1	100.0
전체	60	388	448
	13.4	8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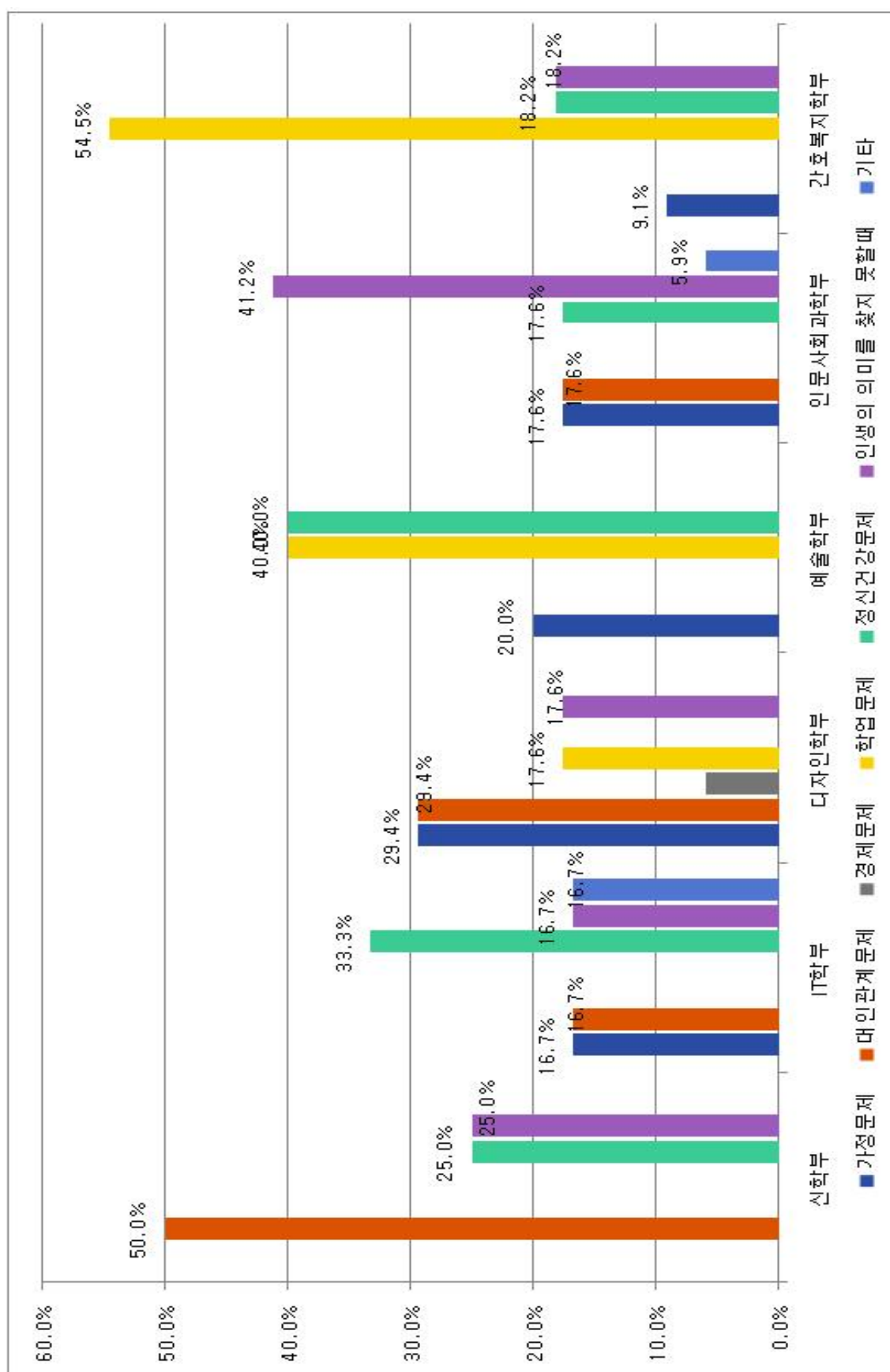
2)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신입생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23.3%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업문제'와 '가정문제', '대인관계 문제(18.3%), '정신건강문제'(16.7%) 순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을 학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부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신학부(25.0%), 간호복지학부(18.2%), 디자인학부(17.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3.3%)은 '정신건강문제'로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25.0%)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4>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단위: 명, %

	가정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문제	학업문제	정신건강 문제	인생의의 미를 찾지 못할때	기타	전체
남	1	2	1	2	4	2	0	12
	8.3	16.7	8.3	16.7	33.3	16.7	0.0	100.0
여	10	9	0	9	6	12	2	48
	20.8	18.8	0.0	18.8	12.5	25.0	4.2	100.0
신학부	0	2	0	0	1	1	0	4
	0.0	50.0	0.0	0.0	25.0	25.0	0.0	100.0
IT학부	1	1	0	0	2	1	1	6
	16.7	16.7	0.0	0.0	33.3	16.7	16.7	100.0
디자인 학부	5	5	1	3	0	3	0	17
	29.4	29.4	5.9	17.6	0.0	17.6	0.0	100.0
예술 학부	1	0	0	2	2	0	0	5
	20.0	0.0	0.0	40.0	40.0	0.0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3	3	0	0	3	7	1	17
	17.6	17.6	0.0	0.0	17.6	41.2	5.9	100.0
간호 복지 학부	1	0	0	6	2	2	0	11
	9.1	0.0	0.0	54.5	18.2	18.2	0.0	100.0
전체	11	11	1	11	10	14	2	60
	18.3	18.3	1.7	18.3	16.7	23.3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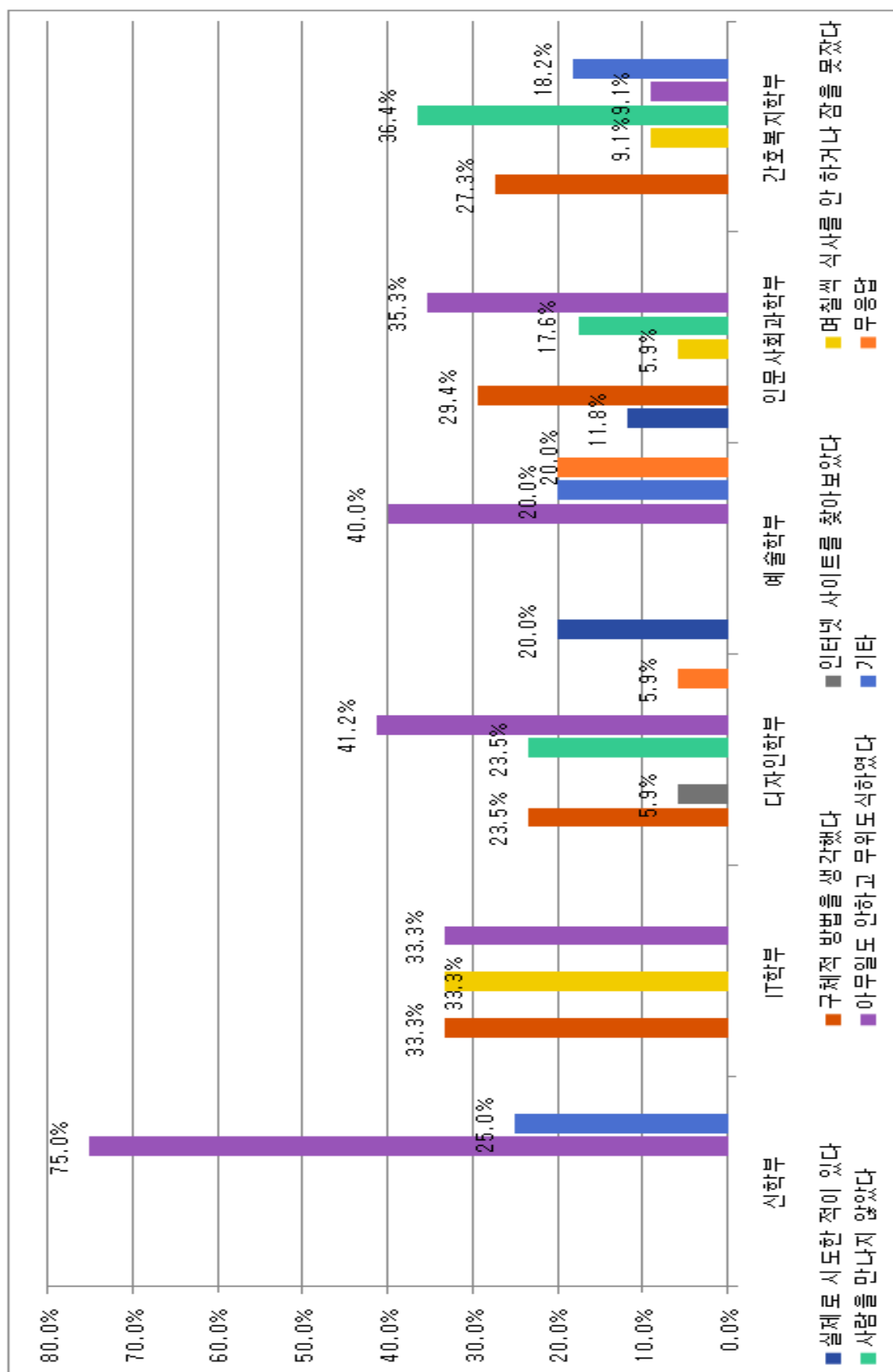
3)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35.0%가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23.3%),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18.3%), ‘며칠씩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못 잤다’와 ‘기타’(6.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에 36.4%로 나타난 것을 제외한 모든 학부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는 비율은 남학생(41.7%)과 여학생(33.3%)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55>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단위: 명, %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보았다	며칠씩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못 잤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	기타	무응답	전체
남	0	2	0	1	2	5	2	0	12
	0.0	16.7	0.0	8.3	16.7	41.7	16.7	0.0	100.0
여	3	12	1	3	9	16	2	2	48
	6.3	25.0	2.1	6.3	18.8	33.3	4.2	4.2	100.0
신학부	0	0	0	0	0	3	1	0	4
	0.0	0.0	0.0	0.0	0.0	75.0	25.0	0.0	100.0
IT학부	0	2	0	2	0	2	0	0	6
	0.0	33.3	0.0	33.3	0.0	33.3	0.0	0.0	100.0
디자인학부	0	4	1	0	4	7	0	1	17
	0.0	23.5	5.9	0.0	23.5	41.2	0.0	5.9	100.0
예술학부	1	0	0	0	0	2	1	1	5
	20.0	0.0	0.0	0.0	0.0	40.0	20.0	2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	5	0	1	3	6	0	0	17
	11.8	29.4	0.0	5.9	17.6	35.3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0	3	0	1	4	1	2	0	11
	0.0	27.3	0.0	9.1	36.4	9.1	18.2	0.0	100.0
전체	3	14	1	4	11	21	4	2	60
	5.0	23.3	1.7	6.7	18.3	35.0	6.7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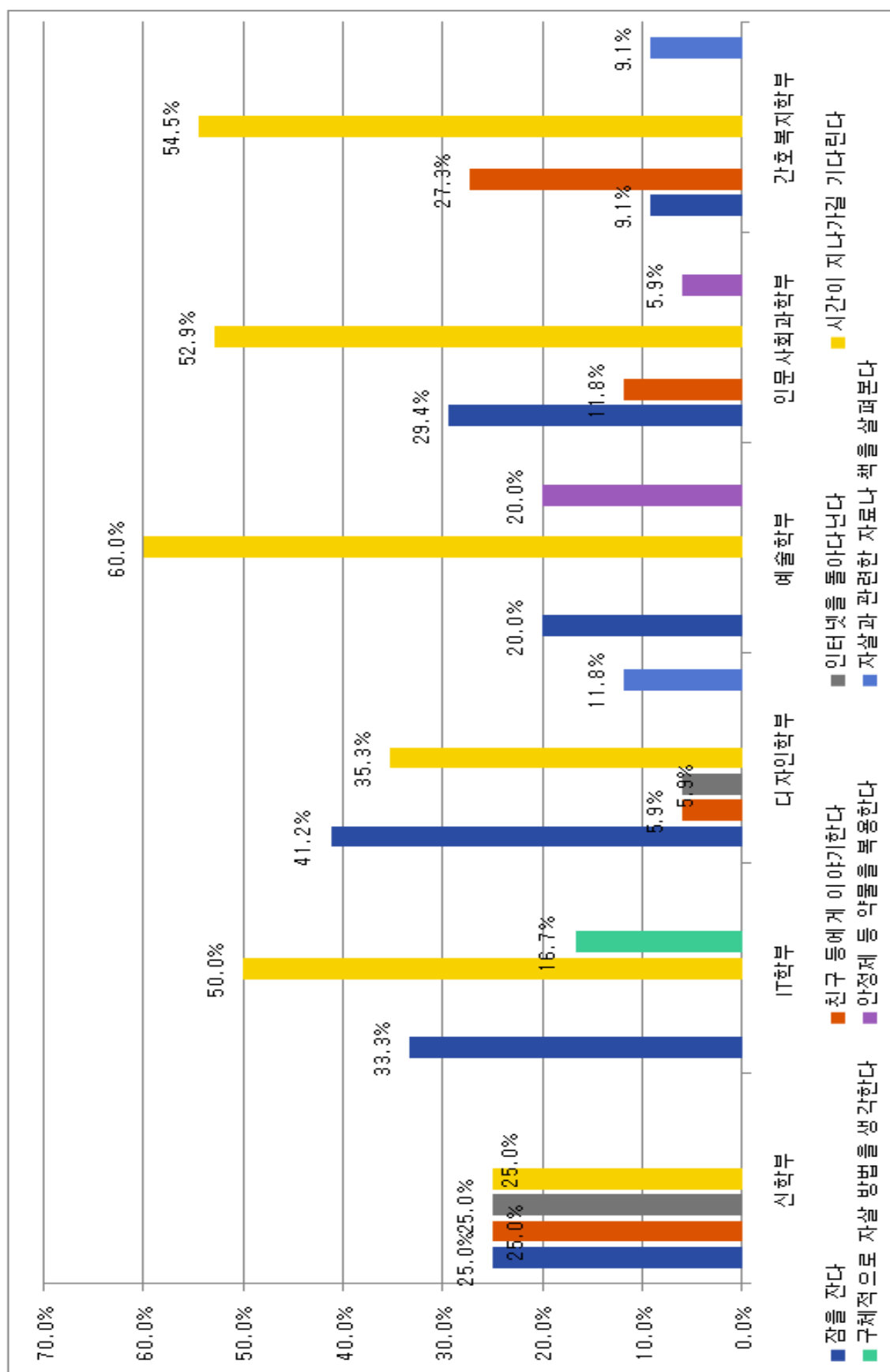
4)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신입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로 46.7%가 응답하였다. 이어서 ‘잠을 잔다.’(28.3%),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11.7%),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처방법으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응답에 예술학부(60.0%), 간호복지학부(54.5%), 인문사회과학부(52.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잠을 잔다’(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5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25.0%)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6> 자살 충동이 있을 때의 대처

단위: 명, %

	잠을 잔다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전체
남	4	3	1	3	0	0	1	12
	33.3	25.0	8.3	25.0	0.0	0.0	8.3	100.0
여	13	4	1	25	1	2	2	48
	27.1	8.3	2.1	52.1	2.1	4.2	4.2	100.0
신학부	1	1	1	1	0	0	0	4
	25.0	25.0	25.0	25.0	0.0	0.0	0.0	100.0
IT학부	2	0	0	3	1	0	0	6
	33.3	0.0	0.0	50.0	16.7	0.0	0.0	100.0
디자인학부	7	1	1	6	0	0	2	17
	41.2	5.9	5.9	35.3	0.0	0.0	11.8	100.0
예술학부	1	0	0	3	0	1	0	5
	20.0	0.0	0.0	60.0	0.0	20.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5	2	0	9	0	1	0	17
	29.4	11.8	0.0	52.9	0.0	5.9	0.0	100.0
간호복지학부	1	3	0	6	0	0	1	11
	9.1	27.3	0.0	54.5	0.0	0.0	9.1	100.0
전체	17	7	2	28	1	2	3	60
	28.3	11.7	3.3	46.7	1.7	3.3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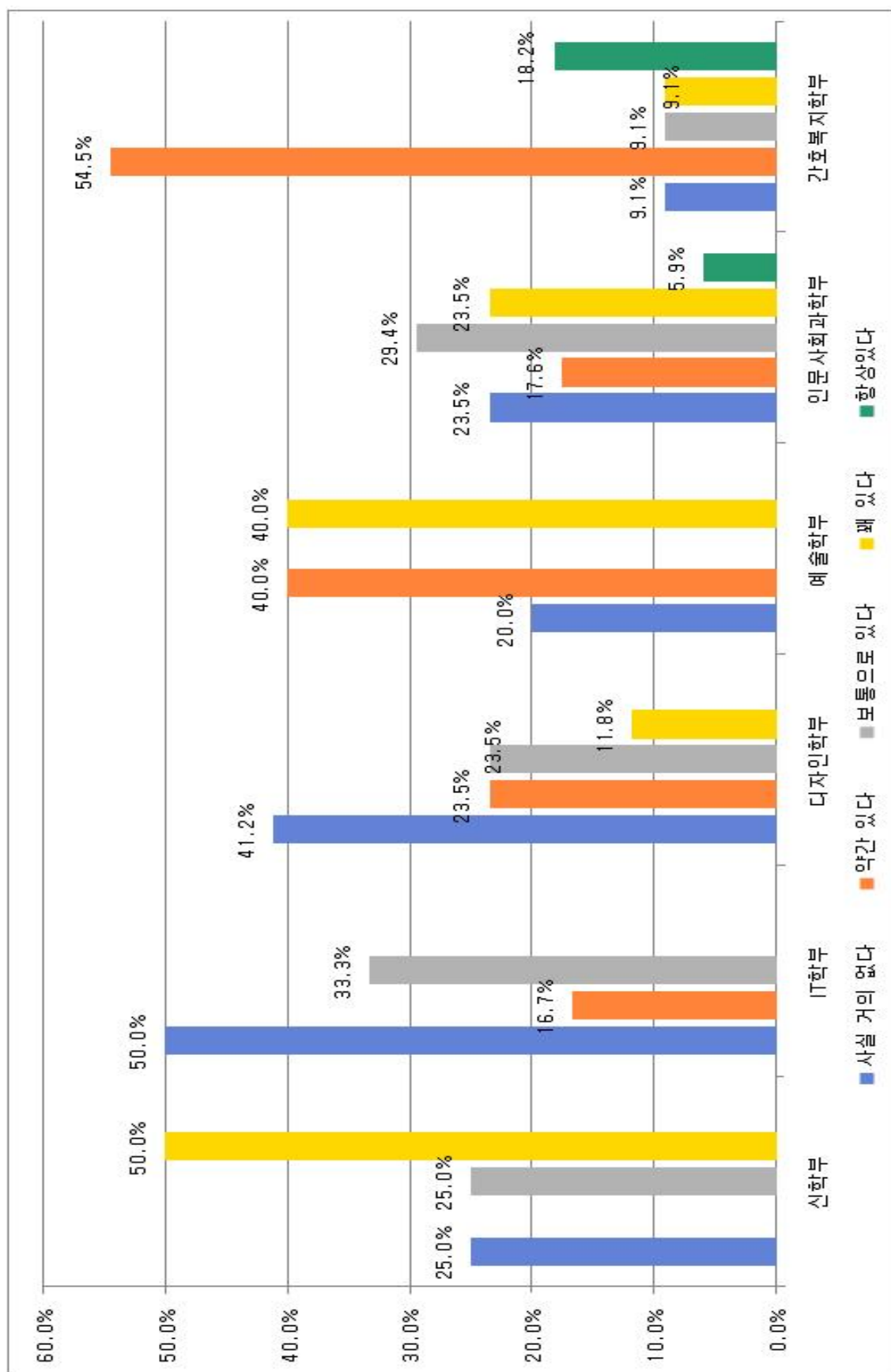
5)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대처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사실 거의 없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다. 이어서 ‘약간 있다’(26.7%), ‘보통으로 있다’(21.7%), ‘꽤 있다’(18.3%),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거의 없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디자인학부(41.2%), 신학부(25.0%), 인문사회과학부(23.5%)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자살 대처방법의 효과에 대하여 남학생은 ‘보통으로 있다’와 ‘꽤 있다’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사실 거의 없다’가 33.3%로 가장 높아 남학생과 여학생의 효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냈다.

<표 57>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단위: 명, %

	사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보통으로 있다	꽤 있다	항상있다	전체
남	1	3	4	4	0	12
	8.3	25.0	33.3	33.3	0.0	100.0
여	16	13	9	7	3	48
	33.3	27.1	18.8	14.6	6.3	100.0
신학부	1	0	1	2	0	4
	25.0	0.0	25.0	50.0	0.0	100.0
IT학부	3	1	2	0	0	6
	50.0	16.7	33.3	0.0	0.0	100.0
디자인학부	7	4	4	2	0	17
	41.2	23.5	23.5	11.8	0.0	100.0
예술학부	1	2	0	2	0	5
	20.0	40.0	0.0	4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	3	5	4	1	17
	23.5	17.6	29.4	23.5	5.9	100.0
간호복지 학부	1	6	1	1	2	11
	9.1	54.5	9.1	9.1	18.2	100.0
전체	17	16	13	11	3	60
	28.3	26.7	21.7	18.3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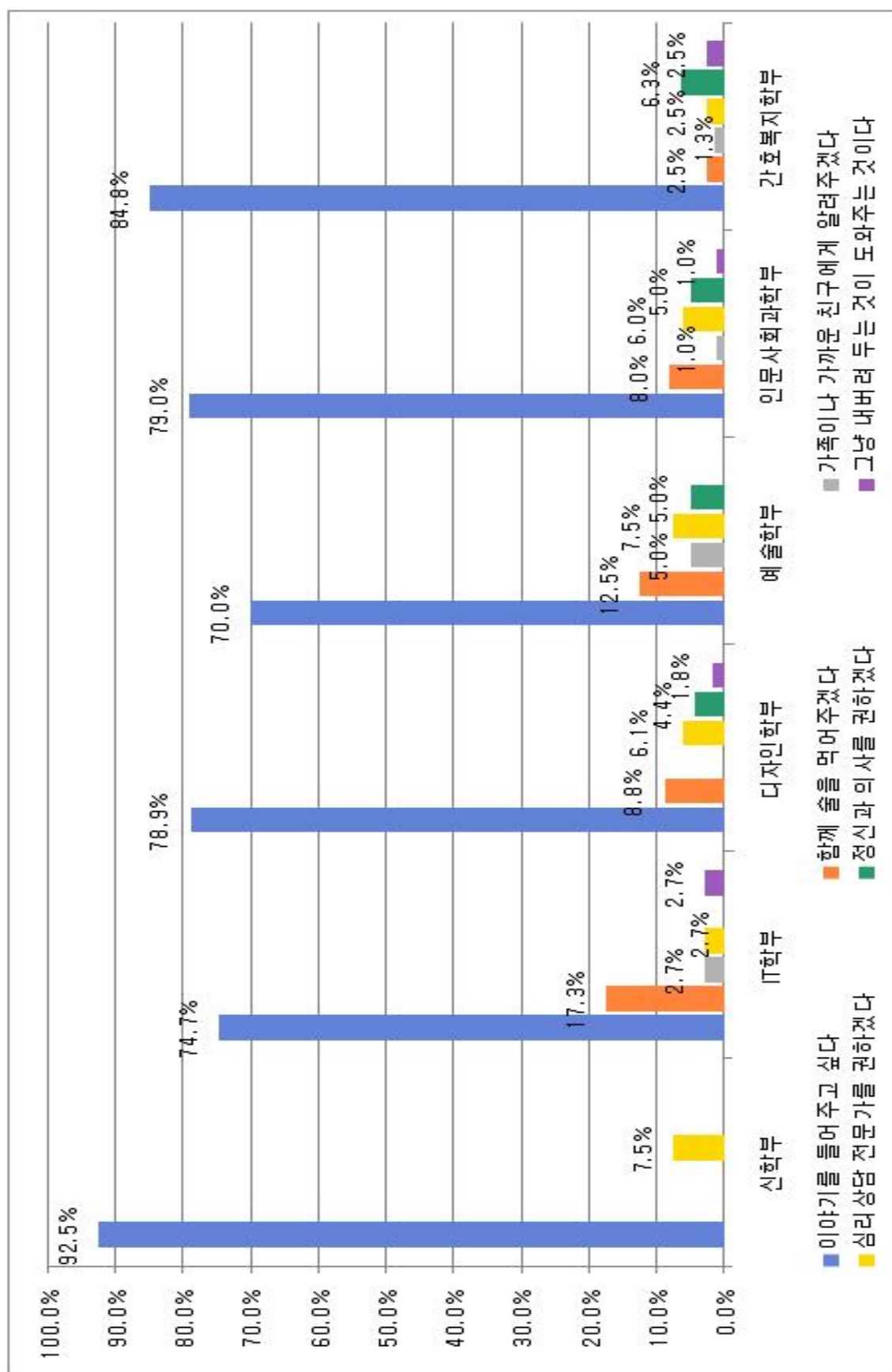


6)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79.7%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8.5%),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5.1%),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3.8%),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가 92.5%로 가장 높았고, 간호복지학부(84.8%), 인문사회과학부(79.0%), 디자인학부(78.9%) 순이다. 성별로 보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응답에 남학생(75.0%)에 비해 여학생(82.1%)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8>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단위: 명, %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함께 술을 먹어 주겠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 주겠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는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전체
남	114	19	5	9	2	3	152
	75.0	12.5	3.3	5.9	1.3	2.0	100.0
여	243	19	1	14	15	4	296
	82.1	6.4	0.3	4.7	5.1	1.4	100.0
신학부	37	0	0	3	0	0	40
	92.5	0.0	0.0	7.5	0.0	0.0	100.0
IT학부	56	13	2	2	0	2	75
	74.7	17.3	2.7	2.7	0.0	2.7	100.0
디자인학부	90	10	0	7	5	2	114
	78.9	8.8	0.0	6.1	4.4	1.8	100.0
예술학부	28	5	2	3	2	0	40
	70.0	12.5	5.0	7.5	5.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9	8	1	6	5	1	100
	79.0	8.0	1.0	6.0	5.0	1.0	100.0
간호복지 학부	67	2	1	2	5	2	79
	84.8	2.5	1.3	2.5	6.3	2.5	100.0
전체	357	38	6	23	17	7	448
	79.7	8.5	1.3	5.1	3.8	1.6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2021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들의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PC사용, 연애 및 성, 상담센터 이용, 자살 관련 문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신입생들의 일반 특성과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롯한 대학 생활 적응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과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2021학년도 신입생들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신입생 실태조사에는 코로나19로 2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하반기 신입생 기준으로 총 510명 중 448명이 응답하여, 총 87.8%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항은 총 55문항이며, 그 중 상담실 관련 문항에서는 1문항이 5개 소문항으로 나뉘었다.

1)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

신입생 전체 응답자 448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디자인학부(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남학생 33.9%, 여학생 66.1%의 참여율을 보였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6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52.5%), 예술학부(37.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6.0%), 간호복지학부(77.2%), 인문사회과학부(63.0%) 순이다. 2021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록하여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18세(43.3%), 만 19세(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늦은 나이 신입생은 31세로 확인되었다

개인 신상에 관하여는 모두 10문항으로 학부, 성별, 연령을 포함한 심리적 만족도와 경험 정도를 질문하였다. 심리적 만족도는 4문항으로 건강, 대인관계, 자신의 성격, 자신의 외모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만족'(31.7%), '보통'(27.7%) 순이었다.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학생(37.5%)이 여학생(28.7%)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7.3%)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 만족'(33.7%)으로 응답했으며, '보통'(17.4%)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매우만족, 만족)는 남학생이 80.3%, 여학생이 81.4%로 전년도의 남학생(71.5%)과 여학생(71.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29.5%), '매우 만족'(2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이상(매우 만족, 만족, 보통)은 9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족'(34.8)%, '매우 만족'(13.2%) 순이다.

경험의 정도는 흡연, 음주, 연애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먼저 흡연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4.1%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자주, 가끔)은 10.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61.2%, 여학생 80.7%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이 없다 85.7%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흡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 경험 정도에 대해 전체의 86.9%가 음주의 경험(자주, 가끔,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안함)이 있으며, 전체의 72.4%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주를 하는 비율(자주, 가끔)이 여학생 74.6%, 남학생 67.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남학생 70.9%, 여학생 69.8%의 비율보다 조금 높아져 음주의 경험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애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연애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험 없음 25.2%, 자주 10.0%, 하고 싶음 8.9%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항

가정생활과 관련한 질문은 총 5문항으로 출신고교 지역,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종교, 가정분위기, 가정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이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 24.8%, 대전.충청 2.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65.8%, 여학생이 64.2%가 경기, 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신입생들의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는 2021년도가 60.7%로 가장 많았고, 2020년 27.0%, 2019년 8.0% 순이었다.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독교 34.8%, 천주교 3.6%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는 기독교가 97.5%로 나타났다. 다른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입생들 대부분 자신의 가정 분위기는 매우 화목하다 51.1%, 비교적 화목하다 44.4%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모와의 의견충돌’ 9.8%,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9.6%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60.5%, 여학생 51.7%가 ‘가정에 대해 불만 없음’으로 응답했고 이어서 남학생의 경우 ‘경제적 곤란 및 용돈부족’이 9.2%,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견충돌’이 10.5%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불만사항에 차이가 나타났다.

3) 기타 생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생활과 관하여는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수경험, 군 입대 예정시기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군 입대예정시기에 관해서는 군 입대 예정자에게만 응답을 요구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21.4%로 전년도 25.3%보다 조금 낮아졌다.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는 남학생 152명 중 127명이 응답했다. 또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학생이 65.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의 65.7%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4) 대학 생활과 관련된 사항

대학 생활과 관련한 문항은 18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 진학동기 및 학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 학부선택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대학생활과 관련된 사항, 졸업 및 취업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6.7%)가 장래직업준비라고 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성과 소질개발(20.5%), 학문과 진리탐구(10.5%)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았는지와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전체의 82.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년도 84.2%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6.3%가 학원선생님, 25.0% 대학진학 정보지, 15.0%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했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입생 79.5%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64.7%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2명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37.0%,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6%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19.6%,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 하겠다 10.9%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합격할 가능성 23.7%,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23.2%, 적성이 맞아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 선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망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선택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지망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기간 중이 43.8%, 고3초~원서접수 전이 29.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고3초~원서접수기간 중(고3초~원서접수 전,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4.4%, 72.7%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의 도움, 복수전공의 이수, 어학연수, 교수, 하고 싶은 것과 걱정거리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것과 졸업 및 취업 관련 사항으로 졸업 후 진로계획, 직업선택 시 고려하는 점, 취업에 대해 학교에 바라는 도움, 졸업 후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고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경우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34.6%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25.2% '전공 선택관련 안내책자 발행' 순으로 응답했다. 신입생들이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6.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4.2%가 '이수할 용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42.2%,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57.8%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29.2%)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25.4%)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17.9%),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17.0%)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41.5%)라고 응답해 2020년(36.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취미 등 다양한 활동(14.5%), '취직준비'(13.2%), '이성 및 대인관계'(8.5%)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8.8%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9.2%), '유

학'(5.1%), '기타'(4.7%), '사업'(2.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36.4%)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안정성'(21.0%), '일의 내용'(18.1%), '보수'(13.6%)순이었다.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5.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관련교육'(27.9%), '진로관련 자기이해도움'(11.6%)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진로취업문제'(3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문제'(28.3%), '대인관계'(18.1%), '경제문제'(9.8%) 순이다.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19.4%),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7.4%),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12.1%)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의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9%로 나타났다.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3문항으로 핸드폰 이용시간과 주된 용도,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에 대해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 (36.2%)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시간(33.5%), 2-3시간(19.9%)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멀티미디어(41.7%), 인터넷(29.9%), 연락(19.6%)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주로 정보검색(54.5%)과 채팅 및 SNS(27.9%)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게임(13.6%), 동영상 시청(1.3%) 순으로 나타났다.

6) 이성 및 성(性)과 관련된 사항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5.9%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불쾌한 경험 있다'(10.0%), '여러 번 불쾌한 경험 있다'(3.1%),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0.7%),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0.2%)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는다'(39.7%)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33.3%), '친구와 상의'(12.7%), '법적대응'(9.5%)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21.0%),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1.8%),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1.4%), '전혀 모른다'(1.3%)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지식'(20.1%), '성예절'(19.0%), '성폭력예방교육'(14.1%), '이성교제 방

법'(11.2%) 순이다.

7) 상담실과 관련된 사항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7문항으로 그 중 최근 3개월 간의 심리적 상태에 관련된 문항은 5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0%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42.6%), '자주 그렇다'(11.2%), '거의 항상 그렇다'(2.2%)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9%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 없다'(37.5%), '자주 그렇다'(15.4%), '거의 항상 그렇다'(2.2%)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8.4%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1.5%), '자주 그렇다'(9.6%), '거의 항상 그렇다'(0.4%)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3.3%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8.4%), '자주 그렇다'(15.2%), '거의 항상 그렇다'(3.1%)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충동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90.4%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가끔 그렇다'(8.9%), '자주 그렇다'(0.4%), '거의 항상 그렇다'(0.2%) 순이다.

신입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64.3%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81.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없다'라는 응답에는 18.5%가 응답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건강'(21.9%), '돈'(19.2%), '신뢰할만한 친구'(13.4%)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친구'라는 응답이 전체의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38.4%), '형제'(6.5%) 순이다. 전년도는 '부모'(4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0.0%가 '진로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업문제'(17.2%), '정서문제'(6.5%) 순이었다.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상담'(39.7%), '개인 심리상담'(31.0%), '심리검사 및 해석'(22.3%), '심리학 관련 학습'(5.1%) 순이었다.

8) 자살과 관련된 사항

자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6문항으로 질문하였는데 마지막 문항을 제외하고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서 질문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에게 과거 또는 최근에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86.6%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있다고 답한 학생은 13.4%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의 23.3%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업 문제’와 ‘대인관계’(18.3%), ‘정신건강문제’(16.7%)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35.0%가 ‘아무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23.3%)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18.3%)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46.7%)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이어서 ‘잠을 잔다’(28.3%),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대처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실 거의 없다’(28.3%), ‘약간 있다’(26.7%), ‘보통으로 있다’(21.7%), ‘꽤 있다’(18.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79.7%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8.5%),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5.1%),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3.8%)’,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1.6%) 순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한 세 대 학 교
학 생 상 담 센 터

이 설문지는 한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실상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문항을 잘 읽어본 후, 중복 체크 없이 해당되는 한 가지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 개인 신상 관련

1. 학부 (꼭! 체크해주세요)

- ①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교육 · 상담)
- ② 인문사회과학부 (국제경영, 미디어영상광고, 경찰행정, 국제관광, 영어, 중국어)
- ③ IT학부 (전자소프트웨어, ICT융합, 산업보안)
- ④ 간호복지학부 (간호, 사회복지)
- ⑤ 예술학부 (음악, 공연예술)
- ⑥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섬유패션디자인)

2. 성별 : ① 남 ② 여 ③ 기타

3. 연령 : 2021년 3월 1일 기준 (* 01년 2월생 만 20세)
- 만 () 세

*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현재 심리적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4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5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성격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지금 안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8	흡연	①	②	③	④	⑤
9	음주	①	②	③	④	⑤
10	연애	①	②	③	④	⑤

◆ 가정 생활 관련

11. 출신 고교 소재지

- ① 서울 ② 경기 · 인천 ③ 강원도
- ④ 대전 · 충청도 ⑤ 부산 · 대구 · 경상도
- ⑥ 광주 · 전라도 ⑦ 제주도 ⑧ 국외
- ⑨ 기타

12.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 ① 2021년 ② 2020년 ③ 2019년
- ④ 2018년 ⑤ 2017년 ⑥ 2016년 이전

13. 본인의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 ④ 기타 ⑤ 없음

14. 가정의 분위기

- ① 매우 화목 ② 비교적 화목
- ③ 약간 불화 ④ 심한 불화

15. 가정에 대해 불편한 점 (한 가지 선택)

- ① 부모 사이의 불화 ② 형제간 불화
- ③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④ 대화부족
- ⑤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⑥ 편애 · 차별
- ⑦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것 ⑧ 부모의 지나친 기대
- ⑨ 부모와의 의견충돌 ⑩ 불만 없음 ⑪ 기타

◆ 기타 생활 관련

16. 재수경험

- ① 없음 ② 재수 ③ 삼수 ④ 사수 이상

17. 군 입대 예정 시기(군 입대 예정인 사람의 경우)

- ① 입학 전 ② 1학년 ③ 2학년
- ④ 3학년 ⑤ 4학년 ⑥ 졸업 후

◆ 대학생 생활 관련

18. 대학 진학의 동기

- ① 학문과 진리 탐구 ② 인격도야
- ③ 장래직업준비 ④ 적성과 소질 개발
- ⑤ 사회·경제적 높은 지위 획득 ⑥ 남들도 진학하니까
- ⑦ 기타

19.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⑤ 학교 명성이 없어서
- ⑥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
- ⑦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몰라서
- ⑧ 중요한 타인(부모나 형제 등)과의 갈등
- ⑨ 우유부단한 성격
- ⑩ 경제적 어려움

◆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36.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은?

- ① 거의 사용 안함(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 ③ 1시간~2시간 ④ 2~3시간
- ⑤ 3~4시간 ⑥ 5시간 이상

37.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는?

- ①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② 인터넷
- ③ 오락 ④ 연락
- ⑤ TV·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⑥ 기타

38.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① 정보검색 ② 이메일 ③ 채팅
- ④ 게임 ⑤ 동호회활동 ⑥ 파일받기
- ⑦ 전자상거래 ⑧ 기타

◆ 연애 및 성 관련

39. 이전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61번 문항으로)
- ② 약간 불편한 경험이 있다
- ③ 여러 번 불편한 경험이 있다
- ④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 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40. 59번 문항에 대한 당신의 대응방법은? (문항 59의 ①번 선택자는 제외)

- ① 참는다 ②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
- ③ 친구와 상의 ④ 학내기관, 관련기관에 도움요청
- ⑤ 법적 대응 ⑥ 여성단체와 상담
- ⑦ 기타

41.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 ③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 ④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 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42. 성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 ① 성지식 ② 피임지식
- ③ 이성교제 방법 ④ 성폭력 예방교육
- ⑤ 성 예절 ⑥ 기타

◆ 상담실 관련

43. 최근 3개월간 다음의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표시하시오.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불안	①	②	③	④
3)	분노	①	②	③	④
4)	우울, 무기력	①	②	③	④
5)	자살충동	①	②	③	④

44.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 ① 있다.
- ② 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45. 대학 내에 심리적 고민 해결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있다
- ② 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46.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① 화목한 가정 ② 건강
- ③ 깊은 신앙심 ④ 신뢰할 만한 친구
- ⑤ 진실한 사랑 ⑥ 돈
- ⑦ 명예 ⑧ 권력
- ⑨ 학벌 ⑩ 사회적 지위 ⑪ 기타

47.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① 부모 ② 형제 ③ 담임교사
- ④ 선배 ⑤ 친구 ⑥ 성직자
- ⑦ 상담교사 ⑧ 전문가 ⑨ 가까운 친척
- ⑩ 인터넷

48. 만약 상담실을 방문하여 개인 상담을 받게 된다면, 상담을 희망하는 내용은?

- ① 학업문제 ② 진로문제 ③ 신앙문제
- ④ 정서문제 ⑤ 대인관계 문제 ⑥ 가족문제
- ⑦ 이성문제 ⑧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
- ⑨ 성격문제 ⑩ 행동 및 습관의 문제

49.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 ① 개인 심리 상담 ② 진로 상담
 - ③ 집단 상담 ④ 심리 검사 및 해석
 - ⑤ 심리학 관련 학습 ⑥ 기타

◆ 자살 관련 문항

50.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 ① 있다(51번으로) ② 없다(55번으로)

51.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 ① 성격 문제 ② 가정 문제
- ③ 대인관계 문제 ④ 이성 관계 문제
- ⑤ 경제 문제 ⑥ 학업 문제
- ⑦ 진로(취업)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 ⑩ 기타 _____

52.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 ②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였다
- ③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 ④ 며칠씩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못 잤다
- 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 ⑥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하였다
- ⑦ 기타 _____

53.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잠을 잔다
- ②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 ③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 ④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 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 ⑥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 ⑦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 ⑧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54. 위에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사실 거의 없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보통으로 있다

- ④ 꽤 있다
- ⑤ 항상 있다

55.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 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 ②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
- ③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주겠다
- ④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 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 ⑥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학생지원처의 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기이해와 진로, 가정 및 대인관계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위한 인턴십 과정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를 겸하고 있어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교생 반성폭력 캠페인,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 연계 활동으로 군포·의왕 교육청 지원 청소년상담, 지역아동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그리고 교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1) 재학생 상담

(1) 개인상담

대학생활 중 겪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갈등, 정서 및 성격상의 문제, 신앙 및 가정의 위기, 진로 선택,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2) 집단상담 및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문상담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집단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나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MBTI, TCI, 에니어그램, 표준성격진단검사, 방어기제검사)와 적성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적성진단검사)가 있고, 기타 검사들로는 MMPI-2와 K-WAIS 대학생 간이정신진단검사 등이 있다.

(4)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를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성희롱 예방 주간에 성희롱 추방 캠페인을 도와주고 있다.

2) 지역 연계 상담

(1) 군포·의왕 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상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및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에 의거하여 군포·의왕 지역의 초·중·고 학생학생 교육 및 학부모 교육 실시 하고 있다.

(2) 인근 초등학교의 개인 상담 지원

본교 인근의 초등학교(당정초교)와의 협약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상담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돕고 있다.

(4) 기타 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타기관(서울분류심사원, 고봉 중·고등학교, 수원보호관찰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황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5)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군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상담실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월~금 (09:00 - 21:00), 토 (09:00 ~ 17:00)
- 이용절차 : 심리검사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한주 후에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면접 후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예약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매 학기 집단상담이 개설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전화/ 031) 450-5173, 5056
e-mail / kimhs@hansei.ac.kr

3. 주요 업무 실적

1) 재학생 월별 방문자 수 (2020년 3월 ~ 2021년 2월)

(단위: 명)

년도	월	심리검사 인원(검사횟수)	개인상담인원(회기수)
2020년	3월	0	4
	4월	4	22
	5월	216	182
	6월	21	298
	7월	45	150
	8월	2	129
	9월	15	93
	10월	179	88
	11월	56	422
	12월	32	221
2021년	1월	9	156
	2월	36	140
	합계	611	1905

2) 교육청 심리검사 및 상담(2020년 3월 ~ 2021년 2월)

년도	월	심리검사			상담진행건수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202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	
	9월						
	10월					9	
	11월					25	
	12월					2	
2021년	1월						
	2월						
	합계						

3) 상담 및 심리검사 (2020년 3월 ~ 2021년 2월)

(1) 학부별 심리검사 방문자

(단위 :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학생												
IT학부	0	0	45	3	12	0	5	5	10	0	5	5
간호복지학부	0	0	59	6	13	0	0	4	4	0	0	1
인문·사회과학부	0	0	3	3	0	1	5	120	20	14	3	16
디자인학부	0	0	68	2	14	0	3	7	2	0	0	4
신학부	0	0	41	6	6	1	1	2	5	7	0	3
예술학부	0	0	0	1	0	0	1	41	15	11	1	7
합계	0	0	216	21	45	0	15	179	56	32	9	26

(2) 심리검사 종류별 실시 및 해석 (2020년 3월 ~ 2021년 2월)

	MBTI	TCI	HLCT	홀랜드	에니어그램	이화방어기제	표준화 성격검사	표준화 적성검사	MMPI-2	SCT	HTP/KFD	간이 정신진단
재학생												
IT학부	8	2		9		1	1		30	4	5	47
간호복지학부	6	2		3		1			6	5	4	61
인문·사회과학부	17	7		11		1			11	8	5	116
디자인학부	1	2		1	1				3	4	11	73
신학부	9	6		3					8	8	3	35
예술학부	11	10		5					4	4	5	33
합계	52	29	0	32	1	3	0	0	62	33	33	365

(3) 개인상담 및 회기 (2020년 3월 ~ 20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 학 생	IT학부	0	2	33	47	27	28	13	13	18	10	7	7
	간호 복지학부	0	4	46	71	25	23	14	10	12	1	3	0
	인문· 사회과학부	2	9	23	35	13	21	14	20	253	119	69	62
	디자인학부	0	0	41	84	41	30	14	18	31	21	16	21
	신학부	2	4	33	46	38	18	23	19	25	25	27	20
	예술학부	0	3	6	15	6	9	15	8	83	45	34	30
	합계	4	22	182	298	150	129	93	88	422	221	156	140

4) 집단상담

프로그램명	지도	총인원 (수료인원)	총시간	만족도
2020-1년도 힐링-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최남희	12명(11명)	8시간	4.85
2020-1학기 영화심리치유 “영화를 통한 자아탐색여행 ”	임선정	40명(35명)	6시간	4.34
발표불안	김은숙	15명(15명)	8시간	4.69
제 4기 한세우리친친 또래상담자양성교육	박유선	15명(15명)	12시간	4.53
한세우리친친또래상담자 활동	박유선	17명(16명)	12시간	4.56
연애학개론	정영주	15명(11명)	6시간	4.5
2020-2학기 영화치유프로그램 영화를 통한 치유와 자아성장	차병주	13명(9명)	6시간	4.37
2020-2힐링스타트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정명화	15명(7명)	8시간	4.8
합계		142명(119명)	66시간	

5) 특강

프로그램명	강사	참여인원 (교육인원/대상인원)	일시 및 시간	비 고
2020-1학기 전교생대상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931명/1234명	2020.6.02	
2020-1학기 교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김희수	181명/238명	2020.04.15	
생활관 및 도서관 이용자 위한 집중심리검사	남혜경외	24명	2020.11.16.~20	
신입생대상 간이정신진단검사		365명	2021.5월/ 11월	
자살예방교육	장각자	1,414명/1,715명	2020.12.01	
2020-2학기 교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고남숙	160명/235명	2020.10.15	
2020-2학기 전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동영상교육	1,600명/1,715명	2020.11.24	
합계		4,675명		

2021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2021.03 ~2022.2)

구분	주요 활동 내용
3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2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실시, 신입생 전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학사경고자 상담 실시(2020-2학기) 전교생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월 2회로 확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군포.의왕 교육청 위센터)
4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실시
5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힐링스타트) - 학부 대상, 5주 과정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6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하계연차대회 참가(센터장)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저녁)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7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하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8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실시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 연수 참석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9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중 심리검사주간 실시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0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2차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실시
1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22학년도 예산 계획 수립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연간 개인심리 검사, 상담 및 업무 종합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연간 활동 계획 수립 월례회 및 동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21년 인턴 수료식 2022년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 및 선발
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인턴 상담사 양성 과정 O/T(심리검사 워크숍) 신입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신입생 OT

학생생활연구 발간규정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이상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 분야, 상담학 분야의 연구 논문과 관련 자료 및 실증논문을 게재합니다.

본 학회지는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로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제 21권부터 학생생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게재논문 선정논문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논문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료 30,000원(심사위원 3인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논문의 분량은 기본 15쪽 이내, 15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 게재연구 초과시 초과면수 1면당 20,000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고체계

- ① 국문제목
- ② 투고자 성명 및 소속(한글)
- ③ 국문초록
- ④ 본문 (예,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 ⑤ 참고문헌
- ⑥ Abstract

※ 단, 질적연구에서는 ④ 본문 (예,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로 형식을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 게재신청서 작성

게재신청서의 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논문 신청, 수정, 게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국과 연락을 취할 자
- 교신저자: 논문이 게재된 후 논문에 대한 내용 문의 등을 교신을 담당할 자
- 연구자: 논문 작성에 참여한 자. (작성 순서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록)

☐ 논문 제출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세대학생생활연구 편집국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T.031-450-5173).

학생생활연구 투고규정

1.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자료(연구용 및 상담학사 관계) 및 논설이며, 주제가 '학생생활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게재희망자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을 통하여 제출하며, 학생생활연구의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논문투고,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 편집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출판 후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다른 저자나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교신이 진행될 경우의 혼란으로 인하여 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A4 용지 규격으로 한 페이지 당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5. 제출된 원고는 무기명으로 편집위원의 요건 사전심사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7. 경험적 연구논문에서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문의 글자는 신명조체(크기 10)로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신명조체, 크기 9)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8.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9. 영문 초록은 페이지를 분리하여 제시한다.
10. 원고는 학생생활연구 원고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출판지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11.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20부에 한하여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초과분의 별쇄본은 저자의 사전요청과 부담에 의하여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학생생활연구

제 24권 <비매품>

발 행 인	정 문 경
편 집 인	엄 기 영
발 행 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 행 일	2021년 12월 27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ISSN : 2635 - 5604	

한 세 대 학 교

2021년 12월 27일 인쇄

2021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 정 문 경

발행처 :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전 화 : 031)450-5173, 5056

E-mail : jmoonk509@hansei.ac.kr
